•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제 70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1월 5일(음력 10월 8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네 마음이 부처임을 알라"
14 선지식-지유 스님



"마음의 눈뜨는게 최상의 공덕"
13 함께가요 설법전-수불 스님



"베스트 병은 경계"
9 도반의 향기-박은주 사장



"재가·신행교육에 매진할 것"
6 동산반야회 2대 이사장-안동일 변호사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봉행 조계종은 10월 31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2005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 받은 스님은 도문, 혜정, 지종, 명선, 선진, 무진장,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흥 스님 12명이다. 명종, 삼귀의, 고불문, 서원, 법계증 수여, 종정 법어, 가사 수여,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봉행된 이날 품서식에서 법전 종정스님은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가지 않고는 공겁(空劫)이전의 면목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법어를 내렸다.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종정스님으로부터 법계증과 가사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자를 받았다. 박재완 기자

"종교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대구경북대회 봉행위원장 허운 스님 기자회견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10월 29일 기자회견하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종교차별금지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성시화 운동'은 중단돼야 합니다."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앞두고 공동봉행위원장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허운 스님은 10월 29일 대구 보현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과 갈등 해소, 사회 공동체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허운 스님은 "이번 대회는 지혜와 자비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교적 방식으로 여법하고 평화적인 행사로 치를 것"이라며, ▲각종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공동체 정신 회복운동 실천결의 ▲종교차별금지 법안 입법 촉구 결의 ▲종교차별 철폐를 위한 불자 실천행동 지침 발표 ▲종교편향 공직자 및 성시화 운동 참여 공직자에 대한 거부운동 전개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 지부 구성 및 감시센터 개소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에 이어 ▲명종 ▲명고 ▲개회 ▲삼귀의, 예불, 대중정진(신묘장구대다라니, 참회진언),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경과보고 ▲치사-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봉행사-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대회연설1-종교차별금지입법 촉구 ▲대회연설2-사회차별 해소(불자행동지침 제안) ▲대회연설3-성시화 운동 공직자 경고 ▲대통령께 드리는글-초등학생 남녀 2명 ▲결의문 ▲발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성우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소년비만, 불교에 답있다"

포교원 ·사회복지재단, 인성형 비만치유 프로 개발

고칼로리 음식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비만 · 성인병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비만치료를 통한 신개념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이 등장해 관심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과 사회복지재단은 10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성형 비만치유학교 'The Less The More'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비만치유프로그램 보급에 나섰다.

발표회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 산하 사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불교의 가치로 어린이 · 청소년 비만 등 사회적병리현상 치유하고, 향후 미래 동량을 육성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한 임해영 사회복지재단 연구실장(성균관대 겸임교수)은 "현재 대부분의 비만치료 프로그램은 단순히 살을 빼는데 치중해 정서적 · 심리적 치유 접근이 부족하다. 우울성향과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만아동들에게는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찰음식을 통한 생활방식 변화와 아동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강화, 부모교육 등 부모의 동참과 변화를 유도한다는데 기존 비만치료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호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프로그램, 범우 스님(동국대 유아교육과 강사)의 다도명상 프로그램, 박현숙 사찰생태연구소팀장의 사찰생태프로그램, 박상혜 소장(사찰음식연구소 '공양간')의 사찰음식식단개발 프로그램 등 세부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에 최선"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 지관 총무원장에 다짐

"한나라당과 합의해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상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이 10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최문순 의원은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1차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2차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11월 1일 대구경북 범불교대회를 계기로 종교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2009년 문화재청 예산 삭감과 관련, "불교문화재 유지 ·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불교와 사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잘못이다"며 "문화재 보호는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선숙 의원, 윤원호 前의원이 참석해 8·27 범불교도대회, 11·1 대구경북대회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감 의원'에 선정됐다.

이상언 기자

社告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게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금강경)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금강선원 뽕잎차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아생 수제 구증구포 뽕잎차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만월등(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서가 대중문화에서 해탈하는 길

'찬 가을 한 자락이 은은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고마운 일이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에 조향미 시인의 시 '국화차' 한 구절이다. 한 자락 바람에 마음도 얼어붙는 듯 문화 공황기인 요즘 한 권의 애서(愛書)를 품은 지인의 만남이 그립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통계에 따른 전국 출판물 발행부수 현황에 의하면 2007년 신간 발행부수는 월평균 1217만 부인 반면 2008년 9월 평균은 961만 부이다. 작년 대비 무려 22% 감소, 출판업계의 불황을 극명히 드러냈다.

불교출판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생을 통찰한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1999),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가 담긴 틱낫한 스님의 명상집 <화(Anger)>(2002)를 잇는 스테디셀러가 없다는 지적도 묵은 아쉬움이다.

자기계발, 성공학, 경제경영에 대한 관심이 주류인 이때 <시크릿> <긍정의 힘> <내려놓음> 등 불교소재 자기 계발서를 개신교에서 앞 다퉈 출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국내 개신교계는 번역만으로 어부지리 선교에 덕을 입었다.

불교출판 관계자들은 '필진의 토양 부족'을 불황의 원인으로 꼽지만, 기획력 발휘에 실패한 결과물은 "읽을 책이 없다"는 구매 기피를 초래했다. 불교대학 출신 지식인층의 필요에 부합되지 못한 탓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에 의한 간화선 풍토도 불서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제양성' '역경' '포교'라는 종단 3대 사업의 과제에 전면적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교출판 활로에 귀감이 되는 사례는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이다. 저서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2007년 4월 초판 이후 13쇄 됐고 3만 부 이상 판매수익을 올렸다. 웰다잉(well-dying) 시류에 부합, 평상심으로 가꾸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에세이로 풀었다. 불교TV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영화와 선(禪)을 접목해 시의에 맞는 기획과 대중이 원하는 주제는 기폭제가 됐다.

독서는 고단한 삶으로부터 참나를 찾는 보물지도다. 심도 깊은 기획력으로 대중문화와 교감하는데 문학과 에세이는 탁월한 장르다. 인간 본연의 정서로 포용 가능한 순수 창작 영역인 이유다. 종단의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인의 왜곡된 불교를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다종교 시대 누구나 쉽게 부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혜안의 불서야말로 불법의 감성 멘토에 의한 해탈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수계일부터 4년 합산하라"

승개추, 승랍기산법 변경 등 '승려법' 개정 촉구

"사미와 사미니는 예비승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식 승가의 일원이 돼야 한다."

조계종 제6회 3급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수료스님들이 승랍기산을 비구 ·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간 4년을 합산해 기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여 스님들이 참여한 승려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승개추)는 10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조항은 불합리한 만큼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간 4년을 합산하여 기산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승랍 11~14년 스님 실종=1999년 12월 개정된 승려법에 따르면,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 · 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한 반면, 1995년 이후 출가자는 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출가자는 올해 승랍이 15년이지만, 1995년 출가자는 전문교육을 최단기간에 수료하더라도 승랍이 10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승랍 11~14년에 해당하는 스님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등에서 국장급 소임을 맡을 인적자원이 부족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구본사는 국장급 소임자를 구하지 못해 승랍 10년 미만자로 채우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종무기관 국장급은 승랍 15년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어 교구본사 보다 5년 늦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승랍기산을 변경하거나 소임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0대 돼야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소임 가능=최근 출가연령은 점차 고령화, 고학력화 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몇년간 평균 출가연령은 30대 중반이다. 현 조계종 법계에서 승랍 15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9년이 필요하고, 50대 중반에야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소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앙종무기관 국장 소임자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다가는 종단행정조직 체계와 인적자원의 공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승개추는 "최근 조계종 인적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어 종단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 종단행정에 대한 불신과 승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한다.

#사미승도 당당한 출가승단=조계종 종헌 제8조는 "본종은 승려(비구 ·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 우바이)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와 사미 · 사미니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일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단 구성원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 셈이다. 승려법의 승랍기산 조항에서 사미(니)의 수행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인 미비는 사미(니)의 종단내 역할을 간과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태고종 등 타 종단이 사미(니)를 정식 승려로 인정하는 현실과도 배치된다. 4년간 예비승려로서의 수행기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7~8년만에 정식 사제로 인정받고 선교에 나서는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의 포교경쟁에 뒤쳐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종헌에서 사미(니)를 종단 구성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미(니)에 관련된 종법은 해석에 따라서는 종헌에 위배된 효력 없는 종법이 될 수도 있다. 중앙종회는 사미(니)를 종단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번째 이월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800여 스님들이 '승랍기산 시점을 사미(니)계부터 해야 한다'는 승려법 개정청원을 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승개추 집행위원 도륜 스님은 "제6회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수료자 일동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수행과 교육, 포교에 진력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며 "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종법체계로 인해 승가화합과 불교발전에 저해되는 점이 있기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승개추는 승려법 개정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앙종회 정기종회가 열리는 11월 6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승가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한 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승려노후복지 대상 '65세 승랍20년 이상'

조계종 종회특위 6차회의서 결정, 정기종회 상정

고령화 되는 승가환경에 대비해 노후에 수행과 주거, 의료를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이 마련돼 정기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는 10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11월 6일 중앙정기종회에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세납 65세 이상 승려이면서, 승랍 20년 이상인' 비구 · 비구니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 지원과 노후연금보장 등 의료 · 교육 및 주거환경 보장을 골자로 한다.

6차 회의에서는 대상 중 '장로승려' 부분을 '비구 · 비구니'로, 법적용 대상자를 50세인 출가상한연령을 고려해 '세랍 65세 이상 승려'에 '승랍 20년 이상'을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승려노년복지 화두 타파할 때"

실승회 불교미래사회硏,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개최



승려노년복지 체계의 확립은 청정승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틀이다. 10월 28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11월 6일 개원하는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 가칭 '승려노후복지법'이 상정 예정인 가운데 실천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연구소장 법안)가 10월 28일 승려노후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한 달간 조계종 스님 756명을 대상으로 73.9%의 응답율(560명)을 보인 설문조사를 기반한 것이다.

세미나 제1발제를 맡은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노후복지 미비가 개인재산 축적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노후복지시설 장소, 노스님 수발 등 각종 문항에서 비구(니) · 사미(니) 등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대책수립시 세분화된 생활보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서 수안 스님(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은 "세속의 핵가족화, 출가연령 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출가유지정책' 차원에서 승려노후복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은 제3발제에서 원불교의 후생복지금제도, 천주교의 공제회 등을 예로 들며 ▲승가복지재단 신설 ▲공적 의료보장 활용 ▲의료비 적립지원 등 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 가입률이 사미나 젊은 승려일 수록 저조해 미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종단차원 정기건강검진과 건보료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장례복지학과)는 "현재 화장법은 전통적인 다비장법이 아니라 일본식 화장법으로, 불교식 다비장법 정신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중앙종단차원의 다비장 보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성묵 스님 입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인 성묵 스님(사진)이 10월 30일 오후 7시경 입적했다.

1988년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법왕사 주지, 봉정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재완 기자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신임주지로 재추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후보로 현 주지 성웅 스님(사진)이 다시 추천됐다.

10월 30일 직지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는 전체 140명 중 93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성웅 스님은 70표, 법매 스님은 20표를 얻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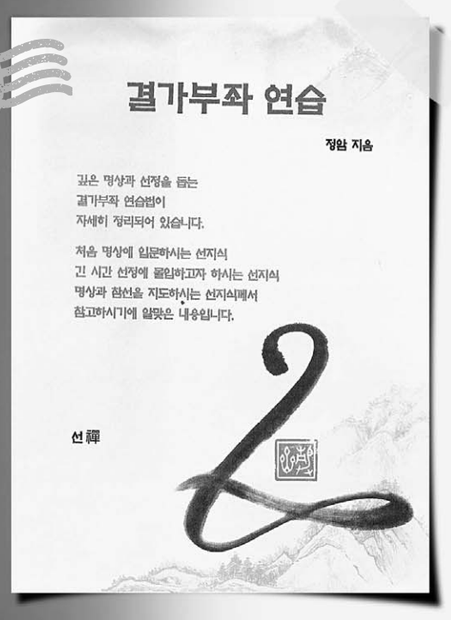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시간 결가부좌의 즐거움

결가부좌 연습

신간



저자 정암 스님은
8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제방 선지식에게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십 여 년 동안 체득하고 연구하며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굳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결가부좌를 할 수 있고, 세 시간 결가부좌를 성취할 수 있으며,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이 함께 하는 자재인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심신양생을 돕는 여덟 가지 불이양생법: 차훈명상, 불이태극권, 차훈요가, 장생다도, 양생소, 불이경전, 유마선, 하루단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의 불이사상 연구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결가부좌의 수승한 공덕 | 길상좌(吉祥坐)와 항마좌(降魔坐)

붇다의 혜명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입장에서 전개한 대선지식 용수보살(龍樹菩薩)은 결가부좌가 참선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좌법[앉는 법]임을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 제7권에서 밝히고 있다.

모든 앉는 법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온하여 피로하지 않다. 결가부좌가 좌선수행하는 선지식의 좌법이다. ……
결가부좌는 참선수행자의 좌법으로 깨달음[도법(道法)]을 성취하는 좌법이다. 그래서 마왕(魔王)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 마왕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참선수행자의 그림만 보아도 두려움의 근심으로 불안해하는데 하물며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선지식이 앉는데 있어서 결가부좌의 좌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결가부좌연습 1 한기정화
결가부좌 연습에 들어갈 때 먼저 생명체의 주요 지점인 목 부위, 허리 부위, 무릎 부위, 발바닥 부위의 한기를 정화한다.

결가부좌연습 2 근육이완
근육이완 수련은 결가부좌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다.

결가부좌연습 3 완성자세
몸의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상호작용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아래로 발, 위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체근육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결가부좌 자세를 만들어갈 때 결가부좌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기혈이 순환될 수 있게 된다.

결가부좌연습 4 한 시간 결가부좌
완성자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한 시간 결가부좌 관문을 통과한다. 모두 여덟 과정을 순서대로 수련한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인호흡과 가슴보기를 수련한 다음 이어서 도인호흡과 왓베보기, 도인호흡과 아랫배보기, 도인호흡과 명문보기, 도인호흡과 골반보기, 도인호흡과 무릎보기, 도인호흡과 발바닥보기, 도인호흡과 단전보기 순으로 수련한다.

결가부좌연습 5 두 시간 결가부좌
두 시간 동안 결가부좌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바닥부위 현상, 발목부위 현상, 교차부위 현상, 무릎부위 현상, 대퇴부부위 현상, 고관절부위 현상, 허리부위 현상, 다리마무 현상, 가려운 현상, 호흡장애 현상, 상기충혈 현상과 그 밖에 현상들에 상응한 대처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정리했다.

결가부좌연습 6 세 시간 결가부좌
현실의 고락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마음가짐, 결가부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된다는 마음가짐, 의식이 사물과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 그 속에 향상 분별상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본래면목이 확연히 깨어 있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세 시간 이상의 순일한 결가부좌 정진력을 성취하게 된다.



결가부좌 어깨서기와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의 정진자세는 바르게 앉은 자세를 주요 방법으로 어깨서기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 누운 자세 결가부좌, 엎드린 자세 결가부좌, 손 짚고 선 결가부좌, 엉덩이로 선 결가부좌, 옆으로 선 결가부좌 등 다양한 자세가 있다.

결가부좌 선양회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취하는 수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가부좌선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1회 결가부좌 삼일정진을 **2009년 4월 18일 ~ 20일** 불이양생치악산수련원에서 개최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선지식께서 동참하시어 결가부좌 정진력 향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가부좌선양회 회원일동 합장

■ 결가부좌 상담 : 채선 선생님(한국불양생교육원장) 010-6720-2115

결가부좌선양회 www.결가부좌.com / www.shuangpan.com
전화 052)260-1636 / 팩스 052)261-163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7 박일진수학학원 3F

"53일간 순례마무리"

오체투지 순례단, 계룡산 신원사서 1차 회향

시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한 오체투지 순례단이 53일만에 공주 신원사에 도착해 1차 순례를 회향했다. 순례단이 53일 동안 순례한 거리는 180여km다. 하루 3~4km씩 3m에 한번 오체투지를 했으니 6만여 차례 땅에 엎드려 절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 전종훈 신부 등 오체투지 순례단은 10월 26일 공주 신원사(주지 지성)에서 오체투지 순례 1차년도 회향 행사를 개최했다.

순례단의 회향 소식에 달려온 불교 · 천주교 신도 및 일반인 등 700여 명도 신원사 전방 2.8km 지점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해 신원사 중악단에 도착하는 오체투지에 동참해 장관을 이뤘다.

행사는 도착을 하늘에 알리는 천고제를 시작으로 헌다, 지리산 및 계룡산 합수 · 합토 행사, 천고문 낭독, 시낭송, 순례단 경과보고, 마무리 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지관 스님은 순례단 대표 인사에서 "53일 동안 자갈길, 흙길, 시멘길 등 180여km 구간을 순례한 것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기도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1차년도 순례는 오늘 마치지만 내년 2차년도 순례에는 북한 묘향산까지 갈 것"이라며, "종교인과 지식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랑으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6일 공주 신원사 중악단에 오르기 위해 오체투지 순례단과 대중 700여명이 오체투지를 하고있다.

'기도-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오체투지 순례단'의 2차년도 순례는 2009년 3월부터 공주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에서 시작한다. 순례는 임진각을 거쳐 북한 묘향산에 이를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 문을 열어 주십시오"

서불대생 오체투지 후 지욱 스님 찾아

"우리는 제적생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학내 분규로 제적당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학생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체투지와 관계기관 진정서 접수, 지욱 스님 면담 등 제적 구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불대 제적생 10여 명은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원정상화를 위한 퍼포먼스(만다라 테라피)를 펼쳤다. 만다라 테라피를 공연한 송연옥(연극치료 전문가) · 문영애(탱고테라피 전문가)씨는 자아초월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나 이번 학내 분규로 제적됐다.

퍼포먼스 후 학생들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조계사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조계사에 도착한 학생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불자들에게 서불대 사태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은 29일 광주 극락사를 찾아 이사장 지욱 스님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법당에서 법문만을 들었을 뿐 개별적인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욱 스님은 법문에서 "역행보살들이 많지만 살신성인하는 입장에서 감내하고 있다"며, "부처님이 그랬듯 참회만 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참회가 학내 상황에 침묵하겠다는 조건부각서를 작성하는 것이냐"며, "도대체 무엇을 참회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탄했다.

계속된 서불대 사태에 학생 측 진정서를 받은 기관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정만)는 성의 없이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소명절차 없이 총장대행이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불대 김우열 관리과장은 "학생 제적과 관련한 교과부의 소명요청 공문을 접수해 답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임됐던 황윤식 총장이 11월 중순경 판결을 앞두고 학교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황 총장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서불대에 제적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김영란 총장대행 측과 마찰을 빚었다. 황윤식 총장은 "총장 직위에 따른 학사행정이 가능하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행정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19월 2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적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불상에 절했던 이찬수 교수 복직하나?

대법원, 10월 23일 강남대 주장 '기각' 판결

사찰에서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던 이찬수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복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 3부(재판장 이홍훈)은 10월 23일 "상고인(강남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 교수는 강남대가 재임용을 거부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벌였던 4차례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찬수 교수는 2003년 EBS 교양프로그램 '톨레랑스'에서 종교간 조화와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당에서 절한 것이 문제가 돼 2006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교과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강남대의 이 교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강남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까지 이르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등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강남대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 속히 이찬수 교수를 복직시키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불교대회 전국 동참

전국 사찰 일제히 범종 33타

11월 1일 열리는 대구경북 범불교도결의대회에서는 전국 3000여 사찰에서 일제히 범종을 33번 울리고 각 본사에서 성지순례 형식으로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5차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이번 불교도대회에 3만 여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한편, 총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9년 예산 기조 및 예산안을 보고했다.

김성우 기자




'뜰앞에 곶감말리기' 충주 창룡사(주지 성도) 법당 처마에 매달린 곶감들이 가을 볕에 익어가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스님 해외여행 기준있어야" 교단자정센터 논평 발표

조계종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10월 24일 논평을 통해 "해외여행 시 스님들의 행동지침을 종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9월 2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홈페이지에 'B교구 소속 30여 명의 스님이 필리핀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제보가 게시되자 호법부가 각 교구본사에 '공무 외 해외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이는 위험수위에 이른 승풍 실추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엄중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종령화해서 상습적으로 향락외유를 즐기는 승려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종령을 통해 ▲해외여행 시 목적을 총무원이나 교구본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순수한 친교 목적 해외 골프의 기준 제시 등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촛불 농성자들 조계사 떠나

10월 29일 종적 묘연

경찰의 총무원장 지관 스님 검문검색 강행을 촉발시킨 조계사 촛불 농성자들이 10월 29일 1시 30분 경 일제히 조계사를 떠났다.

이날 조계사를 떠나 잠적한 수배자는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백성균 미친소닷컴 대표, 김동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등 6명이다.

경찰은 조계사 외곽에 형사 50여 명을 배치하고, 수시로 조계사 경내에서도 감시하는 등 수배자 도주에 대비했지만 이날 잠적한 6명을 비롯해 앞선 수배자 잠적을 제때 알지 못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오후 4시 수배자들이 떠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배자들이 오늘 조계사를 떠나 '잠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경찰도 수배자 잠적을 시인하고, "완전히 빠져나갔는지를 위해 소재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사 농성단은 그동안 경찰의 감시 강화와 조계사의 입장, 대외적인 여론악화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단은 '안티이명박카페' 백은종 부대표가 10월 18일 오후 '민생 ·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를 나섰다가 경찰에 검거되고, 10월 24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이 잠적하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배자들은 대책회의에 "그간 장기간 농성을 도와주신 조계종 총무원장과 불자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불교는 오고 감에 자유자재하고, 조계사에는 울타리가 없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며 "광우병 등 사회적 갈등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돼 다시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기원한다"고 사태의 원만 수습을 바랐다.

노덕현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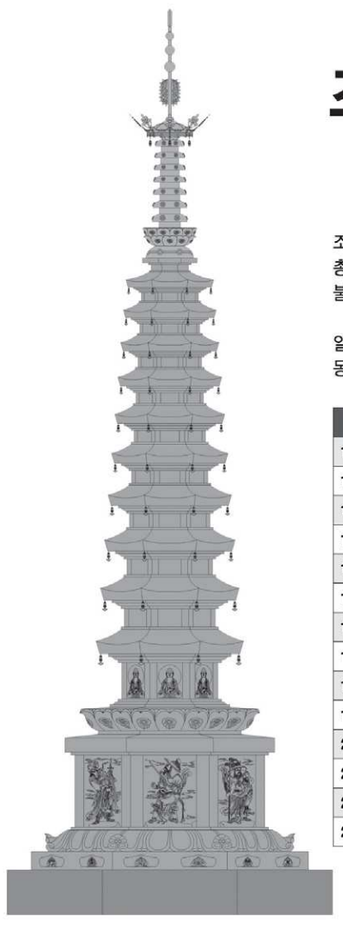
스님과 함께하는
조계사 시민선원 동안거 결제 회원모집

도심 속 열린 도량 조계사에서 시민선원 개원을 맞아 불기 2552년 동안거 기간 동안 〈스님과 함께하는 시민선원 동안거 결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용맹정진 프로그램을 통해 스님과 재가자들이 직접 안거를 하며 수행 정진하고자 합니다. 발심 동참하시어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깨달음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상 : 조계사 신도 / 일반 직장인
장소 : 조계사 시민선원 3층 선방
기간 : 불기 2552(2008)년 동안거 기간 (11.12 ~ 2009.2.9)
모집인원 : 주간반 (오전 10시 ~ 오후 5시) 40명
저녁반 (저녁 7시 ~ 밤 10시) 40명
면접 : 11월 7일(금), 시간 개별 통보

입방비 : 주간반 250,000원 / 저녁반 200,000원 (3개월)
문의 : 조계사 포교국 (02-732-2183)



8각10층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조계사 28고승초청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 봉행

조계사에서는 법륜상전과 국태민안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8각10층 사리탑건립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총무원장큰스님을 비롯한 28분의 원로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옵니다.

일 시 | 2008년 11월 28일(음 11.1) ~ 2009년 6월 5일(음 5.13) 매주 금요일 10시
동참비 | 20만원 (343일 조상천도법회 동참자는 무료)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11월 28일 (음 11.1)	1. 서품	총무원장큰스님	3월 6일 (음 2.10)	15. 종지용출품	월파큰스님
12월 5일 (음 11.8)	2. 방편품	무진장큰스님	3월 13일 (음 2.17)	16. 여래수량품	도영큰스님
12월 12일 (음 11.15)	3. 비유품	월운큰스님	3월 20일 (음 2.24)	17. 분별공덕품	해인큰스님
12월 19일 (음 11.22)	4. 신해품	정무큰스님	3월 27일 (음 3.1)	18. 수희공덕품	총무원장큰스님
12월 26일 (음 11.29)	5. 약초유품	무비큰스님	4월 3일 (음 3.8)	19. 법사공덕품	성우큰스님
1월 2일 (음 12.7)	6. 수기품	법산큰스님	4월 10일 (음 3.15)	20. 상불경보살품	근일큰스님
1월 9일 (음 12.14)	7. 화성유품	해남큰스님	4월 17일 (음 3.22)	21. 여래신력품	밀운큰스님
1월 16일 (음 12.21)	8. 오백제자수기품	원학큰스님	4월 24일 (음 3.29)	22. 촉루품	혜총큰스님
1월 23일 (음 12.28)	9. 수학무학인기품	무관큰스님	5월 1일 (음 4.7)	23. 약왕보살본사품	현해큰스님
1월 30일 (음 1.5)	10. 법사품	홍교큰스님	5월 8일 (음 4.14)	24. 묘음보살품	청화큰스님
2월 6일 (음 1.12)	11. 견보탑품	도문큰스님	5월 15일 (음 4.21)	25. 관세음보살보문품	세민큰스님
2월 13일 (음 1.19)	12. 제바달다품	인환큰스님	5월 22일 (음 4.28)	26. 다라니품	응산큰스님
2월 20일 (음 1.26)	13. 권지품	지하큰스님	5월 29일 (음 5.6)	27. 묘장엄왕본사품	혜총큰스님
2월 27일 (음 2.3)	14. 안락행품	종진큰스님	6월 5일 (음 5.13)	28. 보현보살권발품	총무원장큰스님

동참문의 : 조계사 접수처 732-2115 / 신도회 사무처 732-2187 / 화주단

'행복한 대한민국 해피만다라' 선포식

강원도 홍천서 11월 15일

해피붓다해피만다라문화원(원장 동휘)은 11월 15일 만다라보궁(강원도 홍천 북방면 소재) 건립선포식 을 봉행한다.

만다라 화가 동휘 스님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포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해피만다라를 세계적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강원도가 세계적인 깨달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일체유심조'란 구절을 보고 출가를 결심해 만다라를 현실 속으로 옮겨 부처님 깨달음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원을 세웠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만다라를 보고 마음의 눈을 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행복한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차 기공식과 함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강원지부 창립식도 함께 진행된다. 그 밖에도 만다라 전시, 천견에 이어 만다라 쌀탑 쌓기, 만다라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동휘 스님은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만다라 수집에 몰두하며 만다라를 보급하는데 매진했다. 지난 6월에는 만다라 100여 점을 수록한 도록 <동휘 스님의 해피붓다 해피만다라>를 출간하고 해피만다라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만다라 보궁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만다라를 전시하고 현대에 맞는 수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02)3673-3881

이상언 기자

해인사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25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모시고 3000여 명 수계



10월 25일 봉행된 해인사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경남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25일 경내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계대화상에 조계종 종정예하 법전 스님을 모시고, 갈마아사리에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과 교수아사리에는 중앙승가대 교수인 경성 스님을 모시고 봉행된 이날 대법회에는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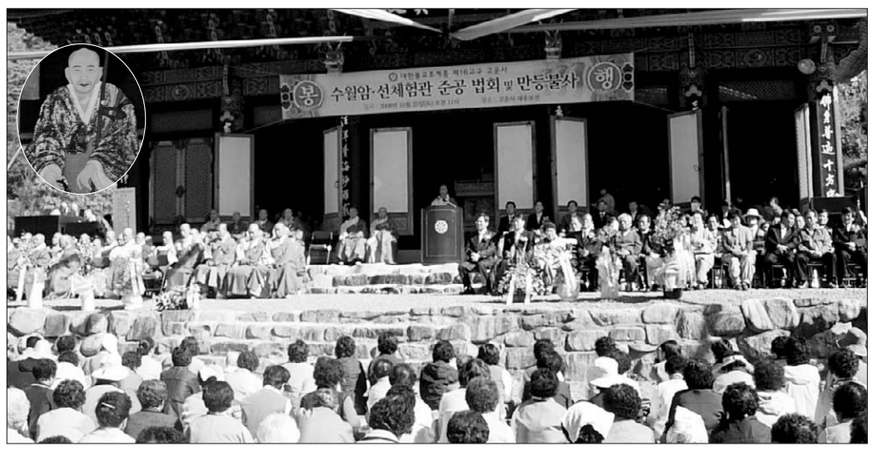
비로자나불 무생계는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온 법신계로서 보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킨 신행규범이다. 지난 1992년 해인사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목조불상인 비로자나불상 안에서 무생계 계첩이 복장물로 나오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된 무상계는 2005년 처음 봉행돼 올해가 네 번째로 본래 오래 공부한 수좌에게만 전하는 최상승계로 평가된다.

괘불 이운에 이어 대령관욕, 입재식, 상단불공, 공양, 달마도 시연퍼포먼스, 천도의식, 법문, 수계의식(참회, 연비) 계첩 배포, 요잡 순으로 봉행된 대법회에서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계'를 받는 것이다"며 계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이어 계를 받은 불자들은 갈마아사리 종진 스님과 교수아사리 경성 스님이 봉송하는 무생계를 따라 읽으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박재완 기자

고운사 수월암·선체험관 준공법회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법계도비 제막식도



의성 고운사는 10월 25일 대웅보전에서 수월암·선체험관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원내는 대비주 수행으로 유명한 수월 스님의 진영.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참선도량으로 거듭난다.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25일 고운사 조실 근일, 회주 혜승, 직지사 주지 성웅, 선운사 주지 법만,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월암 및 선체험관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 법회와 함께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숲으로 조성한 '명상의 숲'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점안식과 법성게의 원문과 해석을 새긴 법계도비 제막식도 함께 봉행했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수월암은 구한말 수월영민 스님(1817~1893)이 10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수행 정진하던 터로 3년에 걸친 복원작업 끝에 준공됐다. 의성군에서 출생한 수월 스님은 고운사에서 출가해 송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고 혜월 스님의 법을 이었다. 각화사 남암에서 10년간의 면벽수행을 했으며, 용성 스님 등에게 법을 전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강좌 등을 실시할 예정인 선체험관은 지상 1층 참선체험관 231㎡, 지하 1층 식당 567.6㎡ 규모로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 건립됐다.

이번 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한 고운사는 전국 최고의 강원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원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축제도 활발히 펼치는 등 지역 내 수행·복지·문화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고운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과 가운루, 우화루를 건립한 최치원 선생이 고운사에서 펼친 화엄사상을 근간으로 수행하는 도량,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량으로 일신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법회가 끝난 뒤, 소외된 지역민에게 나눔을 전하는 회향의 자리도 마련됐다. 사부대중이 등(燈)을 달아 나라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만등불사를 거행한 것. 만등불사의 수익금 전액은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나누기 자비의 김장김치' 사업에 쓰인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조계사 원심회 창립 20돌 기념법회 봉행

장애인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사 원심회(총재 세민, 회장 김장경)가 창립 20돌을 맞아 11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원심회는 1988년 수화 교육을 시작으로 창립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심단결과 사회기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매주 일요일 11시에는 장애인이 참석하는 조계사 일요법회를 개최하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수화지도, 각종 불교행사시 수화통역봉사, 점자경전, 녹음도서 사업도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법상·청안 스님 성대·서울대서 특강

스님들이 잇달아 대학 강단에서 불교 수행법을 전한다.

일산 덕양선원(http://cafe.daum.net/zeol) 선원장 법상 스님은 11월 12일 오후 5시 성균관대 교양학부 '한국문화의 이해'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음)' 강의와 실참수행을 지도한다.

법상 스님은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에는 성신여대 교양학부 '동양의 철학과 문화' 강의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강의한다.

성균관대 강의와 관련, 법상 스님은 "중국 유학생들조차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걱정하는 교수님의 염려에 의해 이번 강의가 이뤄졌다"면서, "한국의 정신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산 스님의 제자인 청안 스님(헝가리 원광사 주지)도 11월 6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자연대 25-1동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선불교 전통이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회장 배광식 교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회에서 청안 스님은 숭산 스님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생활속의 참선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한옥마실가는날 옥천서 가을음악회

음악과 춤으로 풍류를 만끽하는 자리에서 달마도를 소재로 대형 붓을 이용한 행위예술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석주 이종철 화백은 10월 25일 옥천 한옥춘추민속관에서 개최한 '10월 한옥마실가는날 음악회'에서 '달마도의 만남'을 주제로 행위예술을 선보였다.

경기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 이수자인 정원자 선생의 도살풀이를 시작으로 열린 음악회는 서도소리 연구가 한채연 선생의 산염불 공연과 준 인간문화재인 박영준 선생이 충청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을 방문해 서도 창극 배뱅이굿을 선보였다.

혜철 충청지사장

골굴사 중등대안학교 선무도화랑사관학교 개교

12월부터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도 개최

불교 전통무예인 선무도를 특성화한 대안학교가 설립됐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사진)는 10월 1일 중등 교육 과정의 선무도화랑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상시모집 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교육내용은 선무도를 비롯 ▲원어민이 지도하는 영어 ▲승마 ▲활쏘기(국궁) ▲다도 ▲판소리 ▲서예 ▲한국 춤 ▲선(禪) 무드라 테라피 등이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선무도화랑사관학교의 건학이념은 원효 선사의 화쟁 사상을 실현하는 21C 신화랑 육성"이라며, "선무도와 전통문화, 외국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르게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학년, 무학급, 무기한 체제로 운영되는 선무도화랑사관학교는 선무도 지도자의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영어 회화의 습득으로 글로벌 시대 문화인의 기능을 습득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만행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골굴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내용은 아나파나사티(호흡관), 명상, 선기공, 선무술, 불교한문, 전통문화, 국궁(활쏘기), 승마 등이며,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1차 12월 21일부터 매주 접수하며 1주간 참가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054)744-1689 김성우 기자

군승의 날 기념법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일면)는 제40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11월 25일 오후 6시 하림각(종로 부암동)에서 봉행한다.

군불교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유공자 포상 ▲통일가사·군불교40년사 봉정식 ▲지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법어 등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부대중은 14일까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일면) 종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02)749-8646 김진성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현장속으로

간화선해연~ 수험생 속이션~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특화 간화선 수련회 현장



차가운 가을비와 바람은 옷 속을 파고 들어와 살을 에는 듯 했다. 설법전 바닥은 얼음장 같이 차갑다. 주말 이른 시각부터 화계사에서 남양주 봉선사까지 달려온 17명의 학생들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봉선사에서 개최한 청소년 특화 간화선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수련회에 참가한 화계사 학생회 소속 청년들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재식이 시작되자 두꺼운 점퍼 등을 벗고 수련상의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삼귀의와 선언문을 낭독한다.

10월 25일 시작된 1박 2일의 시범 수련회는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지도하에 진행됐다.

입재식 후 첫 시간은 포교원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붓다'가 상영됐다. 화계사 학생회에서 참석했지만, 수련회 프로그램이 개선 보급될 때에는 일반 학생들도 체험하기 때문에 흥미 유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른 시간 쏟아지는 졸음에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눈들이 똘망똘망하다.

애니메이션 상영 후 점심공양을 거쳐 원철 스님의 선 강연이 시작됐다. 강연은 기초수행법 강습 후 소감문 및 이론 수업, 서원세우기 등을 거쳐, 간화선 알기와 화두들기가 진행됐다.

"선은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PC방에 몰래 갔다가 11시 50분에 집에 들어갔어요. 통금시간이 12시이고, PC방 간 것을 부모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잘못했어요."

"그래요.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PC방에 놀러갔고, 12시 10분 전이라고 설명하면 빗자루로 한 대 더 맞을 뿐이죠. 부모님을 봤을 때, 보고 잘못했다고 느낄 때 바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것. 선도 마찬가지에요. 여러 설명보다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좌복을 반으로 접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얹어보세요"

원철 스님의 친절한 강의에 참가 학생들은 잠시 움츠러들었던 자세를 곧게 하고 좌정에 든다.

화계사 학생회장 김사라(상명고 · 18)양은 "전반적으로 내용은 어려웠지만, 스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집에서 명상을 하다가 사찰에서 하니 더욱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선(정의여고 · 15)양도 "어린이 법회 때부터 쭉 해오던 참선이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미숙 지도교사(45)는 "작년 여름 화계사에서 30명 가량이 참가한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오늘 참석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불교를 공부하고 참선 등을 한 아이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사는 "연합 수련회로 개최하면, 작은 사찰 단위에서 1, 2명씩이라도 참가할 수 있고, 아이들의 참가의욕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포교원측에 주문했다.

보슬보슬 내리던 비도 어느새 그치고, 기초수행법 강습도 끝이 났다. 저녁공양 직전 참가 청소년들은 1박 2일의 짧지만 긴 수련회를 위해 따듯한 숙소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다. 저녁공양 후 일정은 김남선 교사(구암중학교)가 맡았다. 이튿날 새벽 3시 30분. 숙소 따듯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던 시간도 금방 흘러가고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벌떡 일어나 나간다.

하루 동안 지도법사를 맡은 원철 스님은 "이번 간화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수행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조기교육이 중요하듯 수행도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져 생활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먼 훗날 간화선을 수행할 때 지금 기억이 떠오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내려 단풍잎을 적시는 가운데, 수능 100일 기도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봉선사의 풍경은 한 폭의 가을동화였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이날 모인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열정은 청소년 간화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문



금오복지관 지역사회복지축제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은 10월 22~24일 주민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회 지역사회복지축제'를 개최했다.



적십자 박애장 금장 수상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03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박애장 금장'을 수상했다.



'구하 스님 불교운동사료집' 봉정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0월 31일 <축산 구하 대종사 민족불교운동사료집> 발간 봉정식을 봉행했다.



호국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인 스님은 11월 17일 오전 10시 부천남부경찰서 법당에서 제18회 호국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를 봉행한다. (011)356-2028



화성 신흥사 35년 중창불사 회향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은 10월 26일 35년 중창불사 회향기념 및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임명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는 10월 29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광동중 명상숲길 및 법사실 개관

광동중학교 이학송 교장은 개교 63주년을 맞아 명상숲길 조성 및 법사실 개관식을 개최한다. (031)571-5392

"재가신행·교육에 매진 제2도약 기반 마련"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2대 안동일 이사장

"초대 설립자 故 김재일 이사장의 불교정신과 설립이념을 계승하고 제2도약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제2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안동일 이사장(70 · 사진)은 "창립 26년, 청년기에 접어든 동산은 지도자를 잃는 큰 시련을 겪었다. 동산이 이러한 아픔을 딛고 불교계 대표적 재가신행 · 교육단체로 발돋움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일 이사장은 故 김재일 이사장과 함께 전국염불만일회와 붓다클럽 등을 이끌어온 동산반야회 역사의 산증인이다. 변호사인 안동일 이사장이 동산반야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동산불교대학이 두 돌을 맞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동일 이사장은 "1993년 아버님께서 타계하신 후 불교에 뜻이 생겨 송광사로 4박5일동안 단기출가했다. 서울에 올라와 조계사 근처에 불교를 공부하는 곳을 찾다가 불교계 최초로 2년제 교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동산불교대학을 발견했다"고 회상했다.

안 이사장은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불교대학 2기를 졸업하고, 붓다클럽 초대총재를 맡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에 故 김재일 이사장은 작고하기 한 달 전인 5월경 안동일 이사장을 찾아 명예이사장과 고문 등을 맡아 달라며 동산의 미래를 부탁했다.

안 이사장은 "불교는 신행(수행)과 교육 그리고 포교가 함께 가야한다"며 동산 비전으로 ▲<금강경> <화엄경> 영어강좌 등 청년교육프로그램 개발 ▲다각화된 온 ·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전법수행도량 대아미타사 완공 ▲정부, 포교원 협조 강화를 통한 대학 제도보장을 제시했다.



동산반야회는 이를 위해 11월 6일 취임식을 기해 지도위원(스님 15명, 재가자 17명), 자문위원(40여 명)을 공표하고, 부이사장, 고문, 재정 운영위원직을 마련해 미래발전을 위한 중 · 장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일 이사장은 "3년 임기동안 김재일 법사가 떠난 동산을 안정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 이사장 부재 시에도 운영되는 체계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동산이 될 것"이라며 동산의 행보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약자 위한 각종 사업 전개"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신임원장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10월 28일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은영 前 의원(민주당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진)이 불교여성개발원 신임원장 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은영 원장은 17대 국회에서 템플스테이사업, 전통사찰보존 등 불교계 문제와 관련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독실한 불자다. 정치적 쟁점이 됐던 '10 · 27 법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하기도 했다.

"대학 재학시절, 집 근처에 대원정사가 새로 문을 열면서 '자아를 발견해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자'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 문구에 끌려 야간불교 대학을 수료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지요."

이 원장은 "불교는 타종교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 행복을 줄 수 있는 넓은 종교이지만, 아직까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때문에 이은영 원장은 앞으로 웰다잉운동본부 · 상담소 설치 등을 불교여성개발원 핵심 사업으로 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인생의 불교적 아름다운 회향을 위한 웰다잉운동본부와 불자들이 가정 · 성폭력 등 모든 고민을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는 불자들의 복지는 물론 노인전문요양요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 예산 확보 등 불교계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원장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원장 이 ·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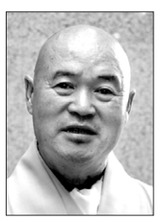
김진성 기자

'그들'의 불성밝히기 '보람'

국민포장 지행 스님, 총리표창 현각 스님

"저뿐만이 아닌 교정에 힘쓴 모든 분들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0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국민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지행 스님(포천 보문원 · 사진 왼쪽)과 현각 스님(원주 성불사 · 사진 오른쪽)은 한 목소리로 수감소감을 밝혔다.

지행 스님은 1989년부터 공주교도소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수감자들의 합동 생일법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우한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1979년부터 경기도 인근 신병교육대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군포교 활동에도 활발하다.

지행 스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장병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수감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뿐 아니라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1978년부터 원주교도소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재소자 취업을 위해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 년에 한두 번 재소자들과 함께 구룡사(원주시)를 방문, 법회를 봉행하고 주위를 산책하는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에게 큰 호응으로 얻고 있다. 현각 스님은 "불교를 받아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감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때로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포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자신의 수술비 신도 위해 쾌척

미륵암 청운 스님

골반이 썩어가는 아픔에도 독거어르신에게 수술비를 양보한 스님이 있어 화제다. 청운 스님(조동종 남해 미륵암 주지 · 사진)이 그 주인공. 청운 스님은 2005년부터 대퇴부(고관절)에 무혈성 괴사를 앓아왔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경산대병원 주치의 소견을 받은 것은 지난 9월. 하지만 스님은 신도 가운데 한 독거 어르신(강막아씨 · 71)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수술비 1000만원을 쾌척했다.



스님은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역 어르신의 입까지 막을 순 없었다. 청운 스님은 "이 한 몸은 한번 가면 없어진다. 부처인 불자님들이 잘 돼야 하지…"라며 말을 흐렸다.

노덕현 기자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연합체육대회 개최



백제불교문화대학 재학생 및 동문회,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신행단체는 10월 26일 대전 공무원교육원 잔디광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신남 축구와 청신녀 발야구 경기, 장기자랑으로 이어졌다. 혜철 충청지사장

충북비구니회, 37사단 장병 수계법회



충북비구니회(회장 묘정)는 10월 28일 증평 호국충용사(주지법사 상찰)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현인 스님(안심사 주지) 등 충북비구니회 스님들과 충북포교사회 포교사들이 참석해 장병 150명에게 수계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북사암·신도단체련 이웃 위한 바자회



전북사암연합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와 전북신도단체연합회(회장 김백호)는 10월 23~25일 전주시 경원동 옥성문화센터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복지시설과 NGO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덕사 수월관세음보살 입상 점안법회



순창 장덕사(주지 청암)는 10월 25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월관세음보살 입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한 입상 외에 각각 폭 17m의 석가모니 열반상과 고행상 등을 자연 바위에 조성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차인회 창립총회



한국불교차인회(준비위원장 허재남)는 11월 2일 오후 1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연숙기자

나를 찾아 떠나는 100일간의 구법여행

재가불자 100일 동안거 안내

참선 공부에 관심과 신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화엄(시민선방)을 열어 동안거결제일 동안 참선정진을 하오니 동참하실 거사님, 보살님께서는 하루 전까지 방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지 각문 합장

양력 11월 12일 (음력 10월 15일)

기도내용 : 부처님 경전 독송, 참선

◈ 11월 12일 동안거결제일에 관세음보살님 봉안 6주기 기념 산신대제 봉행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1월 정월보름기도 회향일에는 태중(냑태)영가 불명수계 후 천도의식과 선망부모의 천도재를 무보시로 올려드리오니, 신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1079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사

문의 (055)381-6631~2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봉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행

창종 1주년 기념 세계 평화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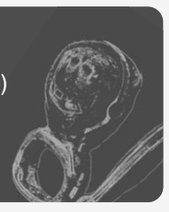


모시는 글

한국불교조계종 창종 1주년 기념일입니다.
우주는 중생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과 달은 우리들을 성숙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땅 언저리에 세계평화의 장을 열고 통일의 염원으로 자리를 깔았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일 시 : 불기 2552년 11월 16일(음,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보현선원)
전 화 : 032)518-1588. 011-9524-8080
식 순 : 1부 - 법요식 오후 2시 / 2부 - 음악회 오후 4시



입 종 안 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 합시다.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日 자쿠초 스님, 휴대폰소설로 '下心'

해외불교칼럼

9월부터 일본의 천태종 비구니 자쿠초 스님이 휴대폰소설 작가로 등장해 폭넓은 전법행보와 더불어 밝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님이 특히 세인의 주목을 끄는 까닭은 금년 세수가 86세인데다 1973년 수계하기 전에는 세토우치 하루미라는 저명문인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이다. 동경여자대학 문학부 출신인 스님은 1956년에 첫 작품 <여대생 곡애령>으로 신조동인잡지상을 받으며 등단해 애정소설 '꽃술' 등으로 퇴폐적 외설 작가 그리고 과감한 전위문학가라는 평을 함께 받았다. 이후 동경신문에 '여자의 바다'를 연재하고 <여름의 끝자락>으로 1963년 여류문학상을 수상하며 정통문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또 스님이 현대일본어로 번역한 11세기 불후의 고전 <겐지이야기(源氏物語)>는 이미 200만부 넘게 팔린 스테디셀러다. 스님은 이 같은 화려한 문단경력에 못잖은 애정편력과 결혼파탄 등 만행(萬行)을 두루 겪은 뒤인 51세에 삭발 수계했다. 이후 천태사 주지와 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전법소설 <석가모니> 등 창작활동을 계속해 1992년 <꽃에게 물어봐>로 다니자키 준이치로상을 수상하고 1997년에는 문화공로자로 선정되며 2006년도 국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그런 이력을 지닌 스님이 전혀 뜻밖에도 아마추어 취향의 휴대폰소설 <내일의 무지개>를 발표한 것이다. 스님은 유려한 필치로 부모의 이혼에 괴로워하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또 자신의 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가정문제를 토닥이고 혼란과 고민에 빠진 청소년과 부모에게 따스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도 전한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소설은 일본의 최신문화사조로서 문자메시지형식의 짧은 문장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파격적 문학 장르다. 사회 일각에서는 만화 등 인스턴트문화에 익숙한 세대가 직접 만들고 나눠 읽는 혁신적 문화 트렌드라 호평한다. 이와 달리, 기성문단과 비평가들은 문학적 가치가 희박한 휴대폰소설이 저질속성문학의 대량생산을 초래하리라 우려한다. 그 비정상적인 인기 또한 일시적 거품현상이자 문학적 퇴행이라 혹평한다. 그 논란의 와중에 팔순의 자쿠초 스님은 스스로 휴대폰소설가로 등장해 신세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휴대폰소설은 대체로 여중 · 고생 등이 같은 또래의 독자를 대상으로 쓴 사랑 이야기가 주류다. 따라서 줄거리가 처지고 등장인물이 대개 여중 · 고생인 통속적 읽을거리로서 구성과 전개가 다소 서툴게 마련이다. 그러나 생활상과 사회적 배경 등이 바로 오늘의 현실처럼 다가오는 사실감과 박진감이 넘치며, 작가와 독자 사이에 짙은 공감대와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책자로 출판된 휴대폰소설은 작년 일본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3위까지를 휩쓸었다. <사랑 하늘>은 약 200만부, 또 21세의 아가씨가 시간제 일터를 오가는 차속에서 문자메시지로 쓴 <만일 그대가>는 40만부 이상 팔리는 등 판매상위 10위 중 5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자쿠초 스님이 휴대폰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뭘까?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평안한 '공유의 공간'을 보시하자는 사려깊은 자비행이다. 공유의 공간이란 누가 누굴 가르치는 근엄한 일방훈시(一方訓示)가 아니라 모두 스승이며 제자가 되는 즐거운 상호학습(相互學習)의 장이다. 스님의 그런 공동체의식이 설득력과 친근감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스님은 대중전법과 중생구제를 위해 눈높이를 낮추고 또 낮춰간다. 일본고전문학을 번역할 만치 특출한 능력과 식견을 지닌 스님이지만 굳이 복잡한 언사와 난해한 어투로써 자기과시를 하려들지 않는다. 스님은 일찍이 붓다세존께서 그러셨듯이,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로 지금 너와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눈다. 그것이 곧 하심(下心)이 아닐까? 사실상 스님은 휴대폰소설이란 신세대매체를 통해 '당면현실'에 대한 다중카운슬링을 하고 있다. '내일의 무지개'의 행간에는 스님이 청소년은 물론 좌절과 실의의 늪에 빠진 가장과 퇴직자 등 기성세대에게 보내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청춘이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the state of mind)를 뜻한답니다.'

이를 몸소 입증하시는 세토우치 자쿠초 스님께 합장삼배를 올린다.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NYT, BTN 기타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s that so?" "아, 그래요?"

A young girl got pregnant. Her angry father asked who the father was. The embarrassed girl pointed the meditation master being respected for a pure life. When the father confronted him with her accusation, he simply replied "Is that so?" When the baby was born, the father brought it to him, who now got ridiculed by the whole village. "You should take care of it!" "Is that so?" The master said calmly and accepted it. For months he took good care of it until the daughter could no longer withstand her lie. She confessed that the real father was a young man whom she had tried to protect. The father rushed to the master," Venerable, could you accept my apologies and return the baby?" "Is that so?" the master said as he handed it to him.

예쁜 아가씨가 덜컥 애를 가졌다. 열이 뻗친 아버지가 애의 아비가 누구냐고 묻자 당황한 딸은 정갈한 생활로 존경받는 한 참선스승을 지목했다. 딸의 말을 곧이들은 아버지가 마구 다그치자 스승은 그저 "아, 그래요?"라고 말했다. 얼마 후 아기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이제 동네방네 비웃음거리가 되고만 그를 다시 찾아갔다. "이봐, 당신이 키우라고, 어!" "아, 그래요?" 그는 나직이 말하며 아기를 받아 몇 달 간 돌봐줬다. 그 동안 자신의 거짓말을 더 견딜 수 없게 된 아가씨는 아버지에게 아기의 친아비인 총각이 행여 다칠까봐 둘러댄 거라고 털어놨다. 한걸음에 스승을 찾아간 아버지가 말했다. "어르신, 제 잘못을 부디 용서하시고 아기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는 아기를 건네줬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티베트 시즌 행사 다채 英 바트 동아시아박물관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영국 바트의 동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티베트 시즌'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의 일환으로 인도의 타시랑파에서 파견된 여덟 라마의 만다라 제작시연행사에는 영국 불자 50여명도 동참했다.

동 박물관 큐레이터 미셸 리는 완성된 만다라를 해체해 강물에 버리는 행사를 겸한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일주일간의 소중한 제작시연체험을 통해 니르바나의 복락을 누리고 상호교감을 넓혀가기 바란다"고 치사했다.

현재 동 박물관에 함께 출품된 몽골리아의 탱화 및 소형 불상 등 불교문화재는 12월말까지 계속 전시된다.

출처: TIB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❹

"카르마 거울로 선악 비추리라"

일생 함께 한 동반자 티베트 '사자의 서'
삶 · 죽음 다룬 영화 '내 인생'으로 감독 데뷔

너른 지식을 쌓고 고운 감성을 그려가는 청소년기에 읽은 책 한권이 때론 그 사람의 인생항로를 비추는 등대가 된다. 브루스 조엘 루빈에게 티베트 <사자의 서>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는 20대에 심취한 그 책을 통해 삶에 눈을 뜨고 문학적 영감도 얻는다.

그가 거쳤던 히피세대는 불교의 미국식 버전인 비트닉 부티즘이 극히 불안정한 기독교가치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등장한 때다. 그 사회적 혼란상 가운데 냉철한 자아를 추구하던 그는 <사자의 서>를 통해 한 가닥의 빛줄기를 본다. 그는 생(生)과 사(死)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동(動)과 정(靜)이 서로의 앞뒤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혼돈 속의 질서, 질서 속의 혼돈이란 이중역설(double paradox), 그 이중역설의 긍정과 수용(acceptance)이 불교철학의 요체임을 배워간다. 그는 이를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접목하고 영화라는 영상매체에 편승하여 대중에게 전달해왔다.

'사랑과 영혼'에 비해 흥행은 뒤쳐지나 그의 또 다른 역작인 '야곱의 계단' 역시 초현실적인 판타지 작품이다. 인간의 영성을 파고드는 그의 탐구적 자세는 1991년 발표한 '기만'이란 사이코드라마로 이어진다.

1993년 마침내 그는 나이 오십에 자신이 각본을 쓰고 제작한 '내 인생'이란 영화에서 감독으로 데뷔한다. 이 영화도 그가 그동안 천착해온 주요 테마 삶과 죽음을 다룬다.

치명적인 지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주인공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 자신의 남은 삶을 비디오로 남기는 최루성(催淚性) 드라마다.

초라한 가정형편과 아버지의 신분 등으로 심한 갈등과 수치심을 지닌 주인공 밥은 집을 뛰쳐나온다. 남다른 집념으로 광고업자로서 대성공을 거둔 그는 교양이 있고 세련된 미인 게일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의 열등감은 이미 체질화돼 아내에게 작은 너그러움마저 베풀지 못한다.

임신한 그녀가 뱃속에 행복의 씨앗을 고이 키우고 있을 때 그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온다. 그의 신장암이 크게 전이돼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은 것이다.

여기서 감독 브루스 루빈은 행복과 불행 역시 서로의 앞뒤 모습이며 생사(生死)가 그러하듯 하나의 연속선상(continuum)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밥은 이내 태어날 아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고 아기에게 꼭 해주고픈 얘기도 남긴다. 착하고 영특한 아내 게일은 그의 슬픈 과거를 토닥이며 아픔을 달래준다.

비로소 그는 암울한 유년기에 대한 '자기 저주'가 암을 키워왔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와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다. 새 생명에게는 삶의 지혜를 남기고 아내에게는 감사하며 아버지와 형제와 화해를 한 것이다.

작가 브루스 루빈은 주인공이 남은 삶을 정리해가는 단계마다 <사자의 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나니, 그대는 움켜쥐고 애타게 바라며 매달리는 바를 다 털어낼지라. 모두가 헛것이자 눈속임이니, 그대가 이를 깨우쳐 집착과 분노를 내려둘진대, 이제 떠나는 다른 길에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떠날 때가 되면 고운 넋을 추슬러 고이 떠나라는 얘기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막판까지 탐욕과 심통 따위의 추한 작태를 보여서야 되겠나? 하는 충고의 말씀이기도하다. 그런 까닭에, 죽은 자를 위한 <사자의 서>가 오히려 산 자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How-To book of Life)' 또는 '대해탈의 서(The Book Of Great Liberation)'라 말하기도 한다. 그럼 거기 서너 줄을 더 소개하며 할리우드의 전법사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의 이야기를 이만 마친다.

'그대와 함께 태어난 선한 영혼이 하얀 조약돌로 그대의 선행을 하나둘 세며, 그대와 함께 태어난 악한 영혼이 검은 조약돌로 그대의 악행을 하나둘 셀 터라. 그에 심히 놀라고 무서워 악을 행하지 않았다 거짓을 고하지 말라. 명부(冥府)의 상제께서는 카르마의 거울로 그대의 선과 악을 낱낱이 비추시리라.'

-끝-

성휴 스님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 귀 자원봉사의 집 귀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간화선 대중화 실참·학문 교류에 해답있어"

조계종 불학연구소 제8차 간화선 세미나

축서사서 '선사와 학자 대담'… '허심탄회' 한 대화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봉화 축서사에서 10월 24~25일 개최한 '선사와 학자와의 대담'에는 혜국 스님, 고우 스님, 무여 스님 등이 참석했다(왼쪽부터).

2004년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담선대법회에서 한 수행자와 선학자의 대담은 실참과 선학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었다. 이후 불교학계에는 봇물 터지듯 수행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지만 학자의 외침만이 있었을 뿐 선사의 대갈일성은 볼 수 없었다. 서산 대사는 <선가구감>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 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말하지 않는 선사와 마음을 모르는 학자의 무심함과 무지함이 부처님 가르침의 왜곡을 방조하고 조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선사와 학자와의 대담이 최초로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24~25일 봉화 축서사(주지 무여)에서 제8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행과 학문의 소통'을 부제로 열린 '선사와 학자와의 대담'은 조계종 원로위원 고우 스님을 비롯해 혜국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지환 스님(기본선원장), 의정 스님(용문선원장), 철산 스님(대승사 주지) 등 10여 명의 선원장스님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고영섭 교수(동국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임승택 교수(경북대),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 선학 및 불교학 전공 학자 10여 명이 자리했다.

1박2일간 3차례 진행된 대담은 학술적 담론이 아닌 수행과 깨달음 등 수행자와 학자 양측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우 스님은 기조강의에서 "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문제 등에도 불교계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구성해 각자 해야할 역할을 분담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불교중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우 스님은 "출·재가간 역할 분담으로 세간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원활히 소통해 자기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행 않는 학자들에 대한 경책도 있었다. 혜국 스님은 "학자들이 쓴 간화선에 대한 글을 보면 화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행자와 학자가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학자들의) 화두에 대한 정견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견을 갖춘 학자들의 글은 대중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대담에 앞서 진행된 입재식에서 현종 스님은 "직절간명하고 살아있는 간화선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 개인적으로는 이고득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맑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선사와 학자의 대담을 마련했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무여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문화상품으로 세계에 선보일 상품 중 으뜸가는 것이 간화선이지만 불자들조차 가치를 몰라 아쉽다"며, "이런 대화를 정례화해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와 간화선을 통한 인류 공헌 방안을 탐구하자"고 말했다.

대담에서는 말과 글에 관한 선적 의미를 시작으로 재가자 수행 지침, 납자의 제접 방법과 수행 점검, 화두 수행과 깨달음, 간화선과 여타 수행법과의 관계 등을 다뤘다. 간화선이 안고 있는 문제, 간화선과 사회참여, 간화선 활성화 방안 등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인 명상 붐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가 실참과 학문 간의 교류 단절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3차례 대담을 통해 간화선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불교학자 등 지식인들의 역할은 물론 수좌회 산하에 수행법과 간화선 대중화 방안 탐구 등을 전담할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정천구·공만식 박사 선정

제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5회 불교소장학자 번역지원사업에 선정된 정천구 박사(왼쪽)와 공만식 박사.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 이하 불교학지원회)가 제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혜자로 정천구·공만식 박사를 선정했다. 불교학지원회는 10월 27일 강남포교원에서 제5회 불교소장학자 번역지원사업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인재들은 불교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불교계가 시대변화에 적응하도록 사회와 불교를 잇는 연결고리"라며, "2004년 시작돼 5회째를 맞은 불교학연구기금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하고 법인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천구 박사(부산대 강사)는 "한국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비교는 화두와 같았다. <겐코오샤쿠쇼(元亨釋書)> 번역으로 동아시아 연구의 초석을 다지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만식 박사(동국대 강사)는 "원전에 근거한 불교학 기초가 부실한 한국불교를 극복하고자 빨리 문헌을 열심히 꼼꼼히 번역해 양질의 출판물로 불교학지원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한·중·일 불교 근대화 과정과 역할 집중 조명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근대불교연구서 2종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한 근대 불교학 연구서적들.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일본을 왕래하며 근대화의 기틀을 다진 이면에 이동인과 무불 등 개화승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억불정책으로 위축됐던 불교였지만 19세기 이르러 내재적 원동력을 회복하며 개화사상가에 이념적 틀을 제공했다는 학술서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 이하 연구원)은 최근 근대 불교학 연구서적 2종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총서 시리즈로 출간한 <동아시아 불교, 근대와의 만남>과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사업 성과물 60여 편 가운데 일부 논문을 수록한 책이다.

연구원은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문화의 변용연구'를 주제로 2005년부터 매년 2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저술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부교수, 류승주·이기운 조교수, 한상길·윤기엽·조승미·원영상·김제란 연구교수 등을 주축으로 서인범·김상길·이봉춘 교수(동국대), 서재영 선임연구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차상엽 연구원(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사토 아츠시 강사(일본 동양대) 등이 참여했다.

<동아시아 불교, 근대와의 만남>은 한국, 중국, 일본불교의 근대화 과정을 ▲제1부 한국 근대불교의 개막과 자주화의 모색 ▲제2부 동·서문화의 충돌과 중국 근대불교 ▲제3부 군국주의와 일본 근대불교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제1부 민족주의의 발현과 근대 불교학 ▲제2부 제국주의와 불교연구 ▲제3부 근대화와 불교교육으로 나눠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혜원 스님은 "<동아시아 불교, 근대와의 만남>은 프로젝트 1, 2년차 연구성과로 한·중·일 근대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로 진행됐다.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근대에 성립한 불교학 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반성적 사유를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발간을 계기로 동아시아 근대불교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의 연구교수 9인과 한국·중국·일본 팀별 공동연구원 2인씩이 참여하는 중점연구사업은 2014년까지 예정됐다. 현재 '아시아 불교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2단계 사업(2008~2011년)을 신청하고 금명간 있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조동섭·이나은 기자

한글대장경 세미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제문제'를 주제로 11월 6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10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장규 교수(동국대)-교판론과 대장경 관련 문제 ▲윤기엽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신수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오윤희 소장(고려대장경연구소)-디지털 대장경의 관점에서 본 고려대장경의 지위와 특성 ▲정승석 교수(동국대)-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박종린 위원(동국역경원)-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제안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보광·해주·계환 스님과 박경준·황순일 교수 등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이 참가한다. (02)2260-3504

조동섭 기자

위대한 치료자를 찾아서

한국불교심리치료학교 11월 8일 학술대회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11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위대한 치료자들'을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륜 스님(정토회 이사장)이 기조법문 '위대한 치료자 붓다'를, 이부영 명예교수(서울대·한국융연구원장)와 조성호 교수(카톨릭대)가 각각 '정신치료자로서의 융'과 '마스터 테라피스트에 대한 심리학적 조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회원 무료, 비회원 3만원(학생 2만원, 성직자 1만원). 010-9582-9119

조동섭 기자

원각불교사상硏 천태불교학술대회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천태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2008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려말선초 천태종승의 동향', 김영미 교수(이화여대)가 '신라 승려들의 여성관', 오지연 연구원(원각불교사상연구원)이 '<법화영험전>의 신앙유형 고찰', 이종수(동국대 박사수료)씨가 '조선후기 삼문수업의 성립연구', 신병삼(동국대 박사수료)씨가 '근본불교의 깨달음', 박서연(동국대 강사)씨가 '<화엄경> 여래광명각품의 주석학적 이해'를 발표한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1월 4일 화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평생회원 정기 수련회

• 주제 : 자기 최면 집중훈련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 정읍 칠보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실로 연락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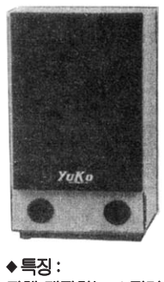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박은주(김영사 사장)

"베스트를 추구하되 '베스트셀러 병'을 경계"

108배와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 열고 닫는 수행자 같은 생활

"경영 키워드 정직 · 존중 · 나눔"… 녹색연합 등 15단체 지원



서울 가회동에 위치한 김영사 사옥에 들어서면 잠시 혼란에 빠진다. 혹시 카페로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사옥은 아름답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답고도 고즈넉한 공간을 사옥 여기저기 마련해 둔 것을 보면 직원들을 배려하는 사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영사 박은주 사장은 여성출판인 CEO로써 끊임없이 회사경영에 혁신을 기해온 전설적 인물이다. 박 사장에게는 '밀리언셀러 제조기' 혹은 '출판 기획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항상 따라다닌다. 김영사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은 줄잡아 2000권이 넘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간 책은 300여권에 이른다. 이 정도면 '출판 기획의 여왕' 등등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법도 한데 박 사장은 이런 호칭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김영사는 책을 만드는데 있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독자존중원칙'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내 가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은 없어요."

김영사는 90여명의 직원이 일 년에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어떤 이는 사원 1인당 매출액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도 한다. 최고 기업의 경영철학을 물었더니 박사장은 첫째로 '정직'을 꼽았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하셨고, 남을 존중하라고 하셨고, 남과 나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내 개인의 삶 또한 부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은 두 글자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도 따르고 고통도 따릅니다. 회사는 행복을 실현하는 실험장이기도 하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길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정직에 대해서도 물었다. "첫째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해요. 수입과 지출 등 매출상태를 컴퓨터에 올려놓고 어떤 직원이든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입니다. 그날 그날의 판매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저자들에게도 인세가 정직하게 돌아가지요."

"가령 책 내용은 빈약한데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도 눈속임이라고 생각해요 과대포장하지 않는 것도 정직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책, 한 권의 책으로 꼭 세상에 나와야만 할 이유가 분명한 책을 만듭니다."

김영사의 베스트셀러 몇 권을 꼽아본다면 <문명의 충돌>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먼나라 이웃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앗! 시리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신화는 없다> 등이다. 이렇게 김영사가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원고를 골라내는 박 사장의 탁월한 노하우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 사장은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평화출판사에 입사했다. 일에 욕심이 많았던 박은주 씨는 자신의 맡은 일 외에도 기획, 번역, 편집, 표지디자인, 제작, 광고,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배웠다. 그러다 1982년 김영사의 편집부장으로 발탁됐고, 1989년 김정섭 사장의 눈에 들어 사장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때가 서른 두 살이었다. "뒤돌아보니 직원일 때도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했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더군요."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入處皆眞)'의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디서든지 자신이 주인이 돼 열심히 일했기에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되어지는 일을 한다. 이것이 제가 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제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게 주어진 사람 인연, 일 인연, 상황 인연에 최선을 다할 뿐, 결과에 연연하여 일을 꾸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못하지요. 좋아보여도 길게 보면 나쁜 일일 수 있고, 안 좋아보여도 길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으니, 좋고 나쁨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게는 결국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판한 <만들어진 신> <투명경영> 같은 책은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했기에 낸 것입니다."

박 사장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백여 명에 가까운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라기보다는 마음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08배와 <금강경>을 독송하고, 하루 동안 때 묻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잠들기 전에 108배와 <금강경> 독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혼란했던 마음, 복잡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들떴던 마음 등이 쉬게 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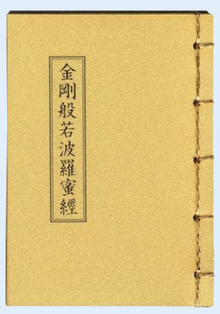
하루를 살면 하루 산만큼 마음에도 때가 끼는데 아침저녁으로 마음의 세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박 사장은 "이러한 수행이 베스트를 추구하되 베스트셀러 병을 철저히 경계하게 만든다"고 한다.

김영사는 세상의 지침이 되고 세상을 맑게 하는 NGO단체 유니세프, 녹색연합 등 15군데를 지원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러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회 공헌은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것이다. 저는 책 만드는 사람이니 좋은 책을 잘 만들어서 적정 가격에 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란다.

"김영사가 단순히 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김영사 자체가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책이 되기를 항상 바란다"는 박은주 사장의 발원은 우리 사회를 맑히는 커다란 에너지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1만800배 기도, 아름다운 천진불이여…

금정中 50여 명 180일간 108배… 원어민 교사도 '수계'

50여 명의 중학생 '천진불'이 100일간 1만800배를 성취했다.

부산 금정중학교(이사장 계전)는 3월 10일 1학기 개학 이후 휴일 및 방학을 제외한 모든 등교일마다 108배를 시작해, 10월 10일을 끝으로 1만800배를 달성, 10월 28일 제34회 수계식을 갖고 원만회향했다.

현익채 교장은 "최근 성적 위주의 경쟁심만을 부추기는 교육 세태가 안타까워, 종교를 떠나 우리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체력 증진을 위해 108배 100일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라미타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이 108배를 시작,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도 50여 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정진해 어른들도 하기 힘든 1만800배 결실을 맺었다. 이들 중에는 불자는 아니지만 평소 몸이 허약해 체력 증진을 위해 참가하거나 수업시간에 산만해 집중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던 학생들도 동참했다.

학생들의 108배를 직접 지도한 이석언 교법사는 "학생들은 저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툰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요' 등을 발원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정진한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전했다.

50여 명의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을 합쳐 장장 180일간의 108배 대장정을 수계식을 끝으로 회향했다.

금정중학교는 1975년부터 매년 전교생의 60%가 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수계를 하고 있다. 10월 28일 오후 1시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108배에 참가한 학생들을 포함한 280여 명의 학생들이 이사장 계전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푸른 눈의 아일랜드인 영어교사 린다 셜리번(27)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린다의 법명은 '일연화'.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불법을 전하는 한 송이 꽃이 돼라'는 뜻이 담겨있다. 2006년 한국에 와 금정중 영어교사로 재직 중 불교를 좀 더 알고 싶어 홍법사(주지 심산) 외국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신행활동에 참여했다. 제2기 심산 스님의 유발상좌이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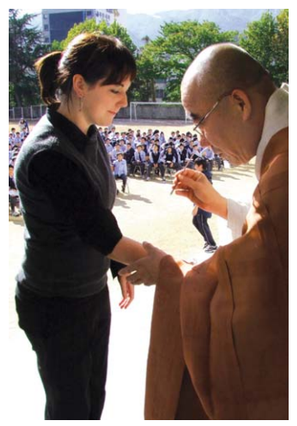
린다는 "가톨릭과 불교의 교리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마음에 와 닿았다"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보살행을 마음 깊이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중순, 금정중학교 영어교사 임기를 마치고 고국인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린다는 "아일랜드에 돌아가서도 보살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100일간 천진불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금정중학교 법당은,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이 찾아와 108배를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뜻을 세우고, 기간을 정해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2009학년도 1학기가 개강하면 108배 2기 참가자를 모아 다시 1만800배 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108배를 하며 100일 기도를 마친 금정중 불자들이 10월 28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위), 연비를 받는 영어교사 린다(오른쪽).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마산금강노인종합복지관 곽인철 관장

"어르신 모두 행복한 날 만들어요"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곽인철 관장(사진)은 마산지역 어르신들의 수호신장(神將)이다. 단순히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욕구에 맞춰 노인일자리창출센터 및 주말복지관, 실버플래너를 통해 노인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보고 즐기는 경로잔치를 탈피하고,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빛축제, 전래놀이한마당, 실버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곽 관장은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감에 웃음과 활기를 잃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계신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어르신들을 그늘진 집 안에서 세상으로 모시고 나와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보람과 긍지를 통해 웃음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금강노인종합복지관만의 특장점을 인정받아 최근 3년 사이 경상남도지사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등을 무려 3차례나 수상할 수 있었던 리더쉽의 바탕에는 10여 년간 종합복지관에서의 실무경험 내공이 있기에 가능했다. "복지관 이사장이신 원행 스님께서는 1988년 마산에 오시면서 정인사에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셨는데, 바로 그 어린이 법회의 지도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스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인사 원행 스님이 발심해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만들고, 약 3년 전부터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마산을 위해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있다.

"향을 싼 종이에 향내가 배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지역사회에 은근하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곽 관장은 최근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도 맡게 됐다. 이 기관은 노인학대 문제를 전면에서 개입하고 예방하는 곳으로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의 슬로건인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하루빨리 만드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곽 관장은 "더 나아가 복지관 분관을 설치해 불교 복지시설 거점화와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복지 실천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곽인철 관장이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교 시절 마산불교학생회를 통해서였다. 지금은 교계 복지관의 관장뿐만 아니라 정인사(주지 원행) 어린이법회와 중고등학생회법회, 경남불교어린이지도자회, 경남파라미타 등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포교와 인재불사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부처님 법을 믿고 나 자신을 믿으며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스스로도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청소년 불자들에게도 늘 강조한다. 또한 "우리 청소년 불자들이 향을 싼 종이에 향내가 가득 배어 있듯 어려서부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수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즐겨 부르는 곽인철 관장은 마산 지역 어르신들의 효심 지극한 아들이자, 불법을 전하는 마산 대표 부루나존자다.

박지원 기자

동명불원 영산대재

창건주 故 강석진 회장

동명불원(주지 정산) 창건주 동명목재 故 강석진 회장의 억울한 누명이 28년 만에 벗겨져, 24주기 기일을 맞아 동명불원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1980년 동명목재가 신군부로부터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낙인찍혀 1조원 가량의 재산을 강제 헌납당한 사실이 28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은 10월 28일 故 강 회장의 장남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동명불원 앞마당에서 추모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영산대재는 불모산영산재보존회(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22호)의 외대령, 괘불이운, 영산작법, 관욕, 시식 등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특별 법문에서 일본 봉개사의 창건 설화와 함께 "부산불교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故 강석진 회장이 동명불원을 창건한 공덕은 크고 위대하다"며 추모했다.

박지원 기자

자성불 찾는 '법화산림'

부산 대각정사 10월 26일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자성불을 찾아 내 안으로 떠나는 85일간 '법화산림'이 열린다.

대각정사(주지 범각 · 사진)는 10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7인의 고승을 초청하고 법화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을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참 나'를 알고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범각 스님은 "우리는 본래 불성의 빛을 가진 존재였지만 세상 빛에 물들어 퇴색해버렸다"며 "이번 법화산림대법회를 통해 자성의 빛을 밝혀 불자로서 '참나'를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26일 주지 범각 스님의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11월 2일 성수 스님, 9일 백운 스님, 23일 선래 스님, 12월 7일 도업 스님, 21일 흥교 스님, 2009년 1월 4일 지성 스님, 18일 원종 스님 순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야단법석이 열린다.



특히 입재 100일째 되는 날에는 흥교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도 열릴 예정이다.

주지 범각 스님은 대각정사와 같은 건물에 이미 2년 전 한국 나란다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해오던 중, 9월 26일 대각정사를 개원하게 됐다.

스님은 "기존의 불교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교리에는 해박하지만 그에 비해 신심이 약한 점을 염려해, 선과 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각정사를 건립불사하게 됐다"며 "타 종교처럼 매주 일요일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찾아와 공부하고 쉬었다가는 마음의 휴양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1)731-2300

박지원 기자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 개원

조계종 최초 참선교육전문 기관 인가 예정

부산 도심 한가운데 오직 참선만을 전문 교육하는 참선수행학교가 문을 열었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25일 오후 1시 참선수행학교 개원식 및 불사기념전시회를 봉행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홍법사 주지 심산,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 김은수 중구청장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의 길을 걷는 불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수행을 당부하고 싶고, 수행을 통해 안목이 열릴 때 원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수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1월초 실시할 첫 강좌는 조계종 포교원이 연구 개발한 <간화선 기본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선공부에 입문하고자 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입문자 과정이 마련된다.

향후 참선수행학교는 동국대학교 선학과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선 수행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 앞장서게 된다.

한편 2009년 3월 조계종 최초의 참선교육 및 선 지도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정식 인가될 예정이다. (051)253-8686

박지원 기자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 개원식.

바로잡습니다.
703호 백련정사 만일염불회 기사에서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정정합니다.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대법회

대각정사는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의 첫 출발점으로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큰스님들의 법력과 원력은 하늘도 땅도 감동시킵니다. 법력 넘치는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키워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다겁의 지은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26일 ~2009년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각정사 대법당** (해운대 선프라자 825호, 826호)
■ **문의 :** (051)**731-2300, 731-3104**

※ 특별수계법회 :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에 동참하여 1회부터 7회까지 참석한 불자님에게는 큰스님의 증명으로 보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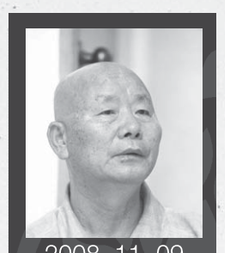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정사 회주 흥교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주지 대풍 범각 합장

초청법회 법사

입재법문 : 10월 26일 **범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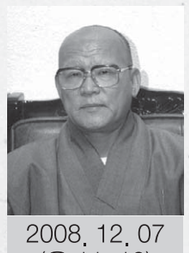
2008. 11. 02 (음 10. 5) 성수 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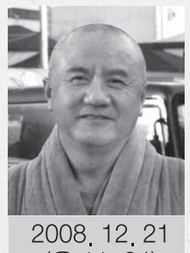
2008. 11. 09 (음 10. 12) 백운 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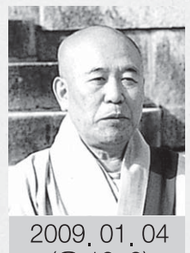
2008. 11. 23 (음 10. 26) 선래 큰스님



2008. 12. 07 (음 11. 10) 도업 큰스님



2008. 12. 21 (음 11. 24) 흥교 큰스님



2009. 01. 04 (음 12. 9) 지성 큰스님



2009. 01. 18 (음 12. 23) 원종 스님

"불자여 깨어납시다" 청화 스님 초청법회

개교 20주년을 맞은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은 전주 완산불교회관에서 10월 26일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불자여 깨어납시다'를 주제로 진행된 법회에서 청화 스님은 "권세와 명예는 누더기에 불과하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물질에 매혹돼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종속되지 않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활하고 판단해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고통과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초청법회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열린다. 11월에는 본각 스님(중앙승가대)이 법문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부가 종교자유 보장" 박광서 교수 주장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이 종교편향 방지 입법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교편향의 원인을 살펴 뿌리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기독교 성시화 및 종교편향'에 대한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 불교실무자들 모임인 육화포럼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0월 24일 무각사 불교대학에서 박광서 교수(서강대)를 강사로 '종교차별 금지와 정교분리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박 교수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개인의 내면적인 종교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광서 교수는 "공무원들의 종교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시화 사업과 선교행위를 하는 일부 공직자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석 군의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 된 학원 내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해 "공교육 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과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라도 공교육시스템에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삶의 길 위에 음악의 혼 덧입히다

화엄사 화엄제 2008-길을 묻다



구례 화엄사는 10월 25일 '화엄제-길을 묻다'를 성료했다. 1000여 명의 관중과 함께 영성음악의 세계를 교감하는 자리였다.

"보살의 길이 무엇입니까?"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찾아 헤매며 '하나의 길'을 묻는다. 그 가운데 문수보살은 "그대 모든 국토에 두루하며 오랜 시간 보현행을 닦아 보리 도를 이루리라"답했다.

화엄본찰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25일 '화엄제2008-길을 묻다' 영성음악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영성음악가들은 각자의 삶에서 길 묻기를 통해 체험한 '눈 맑힘'의 음악을 선보였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은 법계로 향하는 선재의 화두를 띄우며 1000여 명의 관중과 함께 고요한 야단법석을 펼쳤다.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터키 출신 아흐멧 사힌(Ahmet Sahin) · 사드레띤 외즈치미(Sadreddin özcimi)의 영성노래가 이슬람 전통 악기 네이(Ney)와 함께 연주되면서 화엄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스코틀랜드 출신 영성 음악가 데바 탄마요(Deva Tanmayo)와 인도 전통 타악기 타블라 연주가 마니쉬 비아스(Manish Vyas)는 힌두교에서 인간존재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비슈누(Vishunu)를 찬미한 '옴 나모 나라야나(Om Namo Narayana)'를 노래했다. 한국 전통의 동해안별신굿과 진도 굿 구음이 영성 음악과 어울려 동양의 감성을 접목한 새로운 명상음악의 장르를 선사하기도 했다.

음악제의 대미는 '님에게로(박치음 작곡)' 음악이 장식했다. "시방 삼세에 평등하지 않은 것 없으니 필경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없다"는 주지스님의 계송에 이어 소담한 연꽃 한 송이가 객석으로 이동해 스님에서 재가자로 이어지는 장엄한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주지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발원하며 "이번 화엄제 '길을 묻다'는 첫 회 '첫발자국'과 '길떠남'의 연장으로 연기를 주제로 한다. 화엄 도량에서 53선지식의 구법을 따르는 여정이 전쟁과 기아 등으로 결핍된 인류의 마음을 정화해 모든 생명체는 하나라는 영성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도선문화제 지역문화축제로" 영암 도갑사, 도선 국사 문화제



10월 25일 영암 도갑사에서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고려건국에 큰 영향을 미친 도선 국사 문화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도선국사 탄신 1181주년을 기념해 10월 25일 경내에서 '제3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등 스님들과 김일태 영암군수, 유선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혜성 스님의 차 시연회로 시작된 행사는 암도 스님(前 포교원장) 초청 특별강연과 기념법요식, 산사음식공양,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불교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천천클럽·우리는선우 10년 "작은정성 모여 세상 훈훈하게"



"작은 촛불이 모여 어둠을 물리치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듭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힙니다."

10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 · 군산 호원대 교수 · 사진)과 '전주 우리는선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천천클럽은 1999년 전주지역 불자 30여 명이 결성한 '우리는선우' 회원들이 1000명의 회원이 매달 1000원씩을 모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오종근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끼니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커피 한 잔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원이지만 작은 물 한 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작은 정성이 모여 세상을 훈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천클럽은 지난 10년간 목사, 신부, 대학총장, 교수, 직장인, 주부, 유치원 어린이등 다양한 계층의 800여 회원들이 8000만원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와왔다. 종교, 지역색을 떠나 따뜻한 마음 갖기 운동과 소액 기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 공감한 이들은 전주 천천클럽을 벤치마킹해 서울, 충주, 제천 익산 등 타 지역과 단체에서 줄지어 창립했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주 우리는선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천천클럽 후원금이 오로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우리는선우 회원들은 소식지 발행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왔다.

"회원들이 지급한 용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일부를 재보시한 시각 장애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종근 회장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모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자비신행회 무료급식 식당

정성 가득 상차림으로 자비 실천

빛고을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가운데 유일한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다. 광주 장동에 위치한 자비신행회에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재가불자 자비나눔 공동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다. 이곳은 이미 시민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자비신행회가 최근 시도한 '찾아가는 자비의 밥상' 프로그램은 직접 점심공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어르신 식당의 날'을 맞아 자비신행회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리고 있다.

자비신행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인다. '어르신식당'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식당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매월 '어르신 식당의 날'을 정해 운영한 자비신행회는 10월부터는 매주 화요일을 어르신 식당의 날로 정했다.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수일 전부터 준비한 밥과 반찬은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정도다.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 이곳 무료식당 밥맛은 맛있기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10월 차림판만 봐도 자비신행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한 끼 무료급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7일 검정쌀밥, 닭미역국, 참치조림, 김계란말이, 불고기, 오징어무침을 메뉴로 과일과 한과가 간식으로 마련됐다. 14일 조밥, 북어포버섯국, 닭볶음, 숙주나물, 부추김치, 쑥갓전과 후식으로 과일과 빵이, 21일 검정쌀밥, 닭개장, 불고기, 잡채, 겉절이김치, 버섯전과 과일과 한과가, 28일 닭고기떡국을 주메뉴로 무생채, 열무순나물, 부추전, 과일샐러드가 제공됐다.

매주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박윤순 회원은 "어른들을 위한 무료공양에 자원봉사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비신행회는 11월부터 어르신 식당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선발해 회원제 시스템을 갖추고 정성과 질을 더해 양질의 어르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비신행회 사무를 총괄하는 김영섭 사무처장은 "오늘날의 풍요는 과거 어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졌다. 무료급식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며, "어른들에게 많은 은혜를 지고 있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비신행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무료급식소에 그치지 않는다. 부설기관 한꽃노인복지센터, 한꽃차문화아카데미, 한꽃외국인노동자센터, 재가화엄학림을 비롯해 자비나눔 봉사단, 한꽃시민선방, 두손모아호스피스와 같은 회원봉사모임을 통해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일 많은 업무와 일들을 진행하지만 8명의 자비신행회 실무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웃는 만큼 보람도 커진다"는 자비신행회 실무자들의 말에서 빛고을 광주에 새로운 노인복지의 장을 열며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을 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시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자동차용호신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을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을 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형통되게 비방의 "옴"자와 백연화를 넣고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도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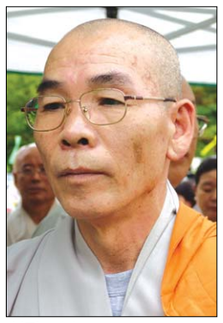
우리 종단을 말한다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

"국태민안의 원융종풍 계승"

보우 국사(1301~1382)는 고려 공민왕 시절, 교와 선을 일치시키고 정토사상과 선을 하나로 융합한 원융사상으로 사분오열된 당시의 불교계를 통합했다.

대한불교원융종(종정 일공)은 보우 국사의 원융종풍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한편, 혼란스러운 사회현실을 극복해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하고자 1977년 창종(1982년 문화공보부 설립 허가)했다.



성관 스님.

원융종은 원효 스님의 회통불교사상을 이어받은 보우 국사 이래 청허 스님과 무휴 스님으로 계승된 원융종풍의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 종립 동원불교대학을 설립한 것도 이러한 원융종풍의 법맥을 계승, 종단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본 종단은 호국불교 실천을 위해 창종 초기 부산 '국태민안기원법회'(1982년 8월) 봉행을 시작으로,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성공 기원 법회'(1986년 9월) '나라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1998년 6월) '호국영령 위령대재와 상세선망부모 왕생극락발원 영산수륙대법회'(2006년) 등 국태민안을 위한 많은 법회를 봉행했다. 창종 기념법회 시 '국태민안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 약자들을 위한 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3년 창종 법회부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잔치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효도관광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12월 30일에는 독거노인 및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잔치연과 떡, 김장나눠주기 운동을 진행한다.

원융종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자 해외 불교계와도 활발한 교류를 맺고 있다. 1980년 일본불교 변천종과 자매결연 맺은 이래, 중국 영광사(2004년) 태국 왓다마 몽콜사원(2005년) 베트남 빙엄사(2008년 10월) 등 많은 외국 종단 및 사찰과 교류 중이다. 1989년과 1991년에는 '한·중·일 친선 문화 교류대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에는 인도 난민어린이 학교 쉬슈 코루나 상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구호품을 전달했으며, 10월 9~15일에는 베트남·캄보디아의 세계최대 빈국마을을 방문해 우물파주기, 모기장 설치, 어린이 용품 보시 등 구호행사를 펼쳤다.

앞으로 원융종은 동원불교대학을 통한 종도교육, 법요집 출간법회를 기점으로 하는 종도의식 통일체제를 통해 원융종풍의 원력을 바로 세우고, 국태민안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무원 (02)853-0531

혼란스런 사회현실 극복위해 창종
소외 이웃에 관심…해외 교류 활발

정리=김진성 기자

범패의 모든 것 한자리서 본다

태고종 구양사 범패박물관 개관, 의식 봉행 체험도



구양사 범패박물관은 1층 전시실과 2층 영산재 공연장으로 구성돼 있다.

범패의식에 사용되던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범패의식 봉행과 체험도 할 수 있는 범패박물관(www.nunghwa.org)이 인천에 들어섰다.

2006년 7월,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인 능화 스님(구양사 주지·사진)의 원력으로 인천 숭의4동 구양사에 터를 잡았던 범패박물관은 지난 8월 인천시에 등록을 마치고 최근 개관했다. 영산재 관련 단위 사찰이 설립한 박물관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범패박물관은 1층에는 전시 및 강의실, 2층에는 법당을 마련해 범패의식 봉행과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불교의식 관련 악기 100여 점, 의상 50여 점, 장엄류 40여 점, 고서적 및 서지류 250여 점, 도자류 50여 점, 사진자료 250여 점, 민속자료 60여 점 등을 포함하여 총 800여 점이 소장돼 있다.

범패박물관은 능화 스님이 직접 후학들을 지도 육성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앞으로 상설 전시는 물론 상설 공연, 체험프로그램,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무형문화재와 연계해 역동성 있는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범패소리음악무용 배워보기, 범패경연대회, 생활민화, 서예, 다도, 생활예절 교실 운영, 팔만대장경 판각 축제 및 이운식, 인경(탁본)의식 재현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범패박물관은 그동안 영산재 사진전, 현충재 악기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관람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월요일 휴관). 관람료 일반 3000원, 어린이 2000원(65세 이상 무료). 전철 1호선 제물포역 1번 출구에서 33, 4번 버스를 타고 남구청 앞 하차,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032)886-0029. 김성우 기자

효예종 석문사 청원군 경로잔치 성료



10월 25일 청원 남이면사무소에서 열린 제5회 경로위안잔치. 왼쪽은 혜전 스님.

대한호국불교효예종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주지 혜전) 자비원은 10월 25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에서 제5회 청원군 경로위안잔치를 마련했다.

효예종 총재 법진 스님과 김재욱 청원군수, 변재일 국회의원, 김경수 청원군의회 의장, 노길우 남이면장, 조성구 노인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초청가수 공연과 어르신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노인전문요양원 '첫 삽'
천태복지재단 성문사에

천태종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 요양원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은 10월 28일 원주 성문사(주지 경혜) 경내 부지에서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기공식을 봉행했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종단 직영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838.73㎡(860평) 규모로 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개실 등으로 구성되며, 생활지도원 30여 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5명 등이 상주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개식사에서 경혜 스님은 "극심한 경제난과 빈부 양극화 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늘어나는 요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진각종 내년 예산 137억9천9백만원

제359회 종의회서 서원·신혜 신임의원 선출

2009년도 진각종 예산이 137억9천9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는 10월 23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재적의원 35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359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통리원과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새해예산 137억9천9백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진각종 중앙종무기관의 새해예산은 지난해보다 44억6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공사 등을 감안해 각종 경상비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긴축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종의회는 또 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원(선정심인당 주교)·신혜(보불심인당 주교) 정사를 신임 의원으로 선출하고, 12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효운(보원심인당 주교) 정사 후임 이사 후보로 효운 정사와 정효(보정심인당 주교) 정사를 복수추천 했다.

한편, 종의회는 (재)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이사회와 합동회의를 갖고 12월 1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유지재단 이사 진성 정사와 이행정 전수의 후임 이사로 상제(홍원심인당 주교) 정사와 법정(지원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출하고, 경정(불승심인당 주교) 정사는 유임시켰다.

김성우 기자

태고종 사미(니)승 62명 탄생

24일 선암사서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10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된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0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서는 62명의 행자들이 4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미(43명)·사미니계(12명)를 받아, 태고종 전체 승려수는 8441명이 됐다.

수계식은 전계대화상에 총무원장 운산 스님, 갈마아사리에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교수아사리에 중앙종회부의장 원봉 스님을 3화상으로 모시고 봉행됐다.

수계를 받은 예비 스님들은 종립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과 전통강원 등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정식 스님으로 활동하게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천 황룡사 경로잔치 및 황룡가요콘서트

개신교가 강세인 인천에서 7000여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불교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 천태종 총무부장)는 11월 29일 오전 11시30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사랑의 나눔행사 일환으로 '경로잔치 및 황룡가요콘서트'를 개최한다.

한편, 황룡사는 이에 앞서 황룡사 낙성 2주년과 개성 영통사 낙성 3주년을 기념해 '평화통일 기원 사진전'도 연다. 사진전에는 두 사찰의 역사를 담은 사진 500여 점이 선보인다. (032)567-2533 김성우 기자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2009년 신상품!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돌침대 ☆☆☆☆☆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그 동안, 엄자간 과다정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소비자 불신이 많았던, 예!! 저희 별다섯 장수돌침대 만큼은! 차별화된, 고품질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이젠 전기열선의 시대는 갔습니다.
뜨끈~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꽉꽉!
참숯을 꽉꽉 채워~
황토찜질, 숯찜질까지!



▲보급형 ▲고급형

보급형 2인용 198,000원 1인용 188,000원
지로분할가 : 2인용 : 47,000원×5회
1인용 : 45,000원×5회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지로분할가 : 2인용 : 59,000원×5회
1인용 : 57,000원×5회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OK할때까지!!!

하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때고도!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써보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료전화 080-788-7878 농협 943-12-426130 조윤성

참선안심법회 '수행과 원력'

"마음의 눈 뜨는 게 최상의 공덕입니다"

법 문 :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일 시 : 2008년 10월 25일
장 소 : 부산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설법전)

수행을 빼놓고 불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으신 것도 모두 수행의 결과였고, 또 그 수행의 결과를 일체 중생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도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게 하려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로부터 '인천교(人天敎)의 어리석은 인연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수많은 조사와 선지식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훌륭한 수행법을 제시했고, 지금도 승속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大乘佛敎)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적지 않은 불자들이 인천교를 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제시하는 인천교의 틀을 깰 수 있는 '수행(修行)과 원력(願力)'에 관한 법문을 함께 들어보자.

인천교의 수행은 기도나 염불 등 나름대로의 독특한 수행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승의 수행방법인 관법도 예를 들어 자비관, 수식관, 부정관, 백골관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대승의 수행방법으로는 지관법(止觀法)과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상승의 수행방법으로 돈오 견성케 할 수 있는 조사선 수행, 간화선(看話禪) 수행과 또한 묵조선(默照禪) 수행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제로 발달해 나온 것은,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그 뜻을 더 키워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원력은 법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아서 법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틔워서 좀 더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인연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대승불교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 <금강경>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조혜능 스님께서 <금강경>을 듣고 돈오를 두 번 하신 점입니다. 첫 번째는 나무꾼으로 계실 때, 어떤 선비가 <금강경>을 읽는 가운데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을 듣고서 개오했던 것입니다. 그 후 오조 스님을 찾아가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은 후, 선지식께서 친히 <금강경>을 해석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과 같은 구절에서 두 번째로 다시 계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오를 두 번 했는데, 앞의 돈오는 '점수적 돈오(漸修的 頓悟)'라고 할 수 있고, 뒤의 돈오는 '돈수적 돈오(頓修的 頓悟)'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을 뜨신 육조스님의 <금강경> 해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돈교적 깨달음을 눈 열게 해줄 수 있는 오가해(五家解)식 해석을 이해해 왔고, 이와 같은 입장이 지금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해공(解空) 제일' 수보리 존자가 주변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려고 애는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짐짓 모르는 척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도 그 뜻을 가납해주셨다. 수보리도 물론 부처님처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위신력을 지녔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함으로써 그 뜻을 더 크게 드러내 보이도록 했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믿어 왔습니다.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강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승의 큰 눈을 뜬 입장에서의 설명도 해야만 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 수보리는 이미 혜안을 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해 비로소 법안을 열고 난 후, 그는 너무나 감격해 체루비읍(涕淚悲泣)하면서 말했습니다.

"혜안으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금강경> 14품에 나옵니다. 그는 아직 모르는 바가 있어서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부처님께 직접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위해서 물어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 스스로가 부처님과 동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삼계를 초월해서 위대한 스승의 눈을 갖추신 분입니다.

수보리가 혜안의 눈은 열렸지만, 그것은 아직 상이 있는 유상(有相)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여열반(有餘涅槃)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아가 '무상(無相)의 눈이 열린 보살의 입장' 즉 무여열반(無餘涅槃)을 증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보리는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상하게 여기고 수보리에게 '유상의 입장'과 '무상의 입장'을 대비시켜서 설명해줌으로써, 그가 꿈을 깨고 유상에서 무상의 입장으로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보살은 명호만 있고 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현신해 계신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無相)의 안목(眼目)을 열어야,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불·보살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 없는 자리에 나아가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무상의 보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대승적 사고입니다. 유상의 입장이 점수적 돈오이고, 무상의 입장이 돈수적 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력'은 혜안 열어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수행 뒷받침되지 않은 포교사업은 모래 위에 집 짓기

<금강경>은 수보리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돈오점수를 넘어 돈오돈수로의 길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승불교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천교에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떤 길로 어떻게 체계를 바꾸어서 안목을 열어야 원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신심을 냈어도 조금만 가다 보면 회의가 오고, 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막막한 심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교리적 이해를 열어 단계마다 그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결과 마침내 돈오견성(頓悟見性)의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행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교사업도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짓는 것과 같이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지 않는 집단은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정신적인 가치관을 높여서, 물질적 균형과 정신적인 균형을 함께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교는 수행이 전제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행이 없는 포교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기몰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한때의 유행에 따라 빠르고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는 궁극적으로 양이 아니고 질을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숫자를 채택할 수밖에 없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근거를 마련해줄 때에 사회 질서가 빨리 잡히고 더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위적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해서는 일시적인 경우에 그칠 것이므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연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금강경> 인연으로 돌아가서 공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과 공덕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은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짓는 것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 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상을 여읜' 모습 없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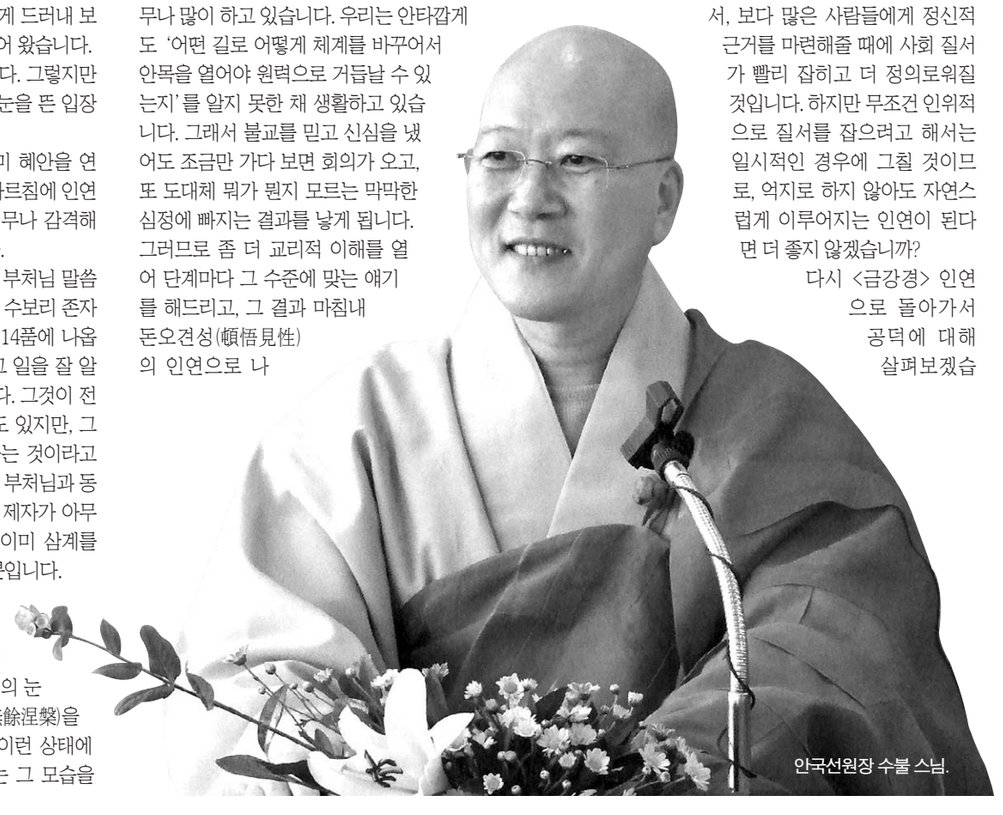
예를 들면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나, "천불 천탑을 쌓고 수없는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다 넉넉하게 베풀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달마 스님이 바로 "공덕이 없다"고 답을 한 이면에는 수행의 결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상을 가지고 남한테 많이 보시하고 희사를 하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지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최상의 공덕을 쌓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 전에 진정한 불공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불공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 깨달음의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불공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도고 원력이고 수행입니다. 작은 수행이라도 실천하면 뒷날 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늘 행해서 더 큰 눈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사회인들도 능히 앞일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기업이나 단체, 가정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향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방법을 통해서 수행할 때 가정도, 회사도, 사회도, 나라도 부강해지고 많은 인재들이 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에 진력할 때, 포교는 저절로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포교만 계속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사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포교를 해야 되는지의 목적의식을 상실했을 때 오는 허탈감을 누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코 앞장서서 포교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교의 노력들이 수행으로 거듭나서 실천됐을 때 올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수행하는 인연을 심을 때, 원력은 한층 더 심화되고 커질 것입니다.

안목을 바꿀 수 있는 인연들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 결과로 여러 방면에 종사하는 분들의 눈이 바뀌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순응하여 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인연 맺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길을 걷는 불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수행을 당부하고 싶고, 수행을 통해 안목이 열릴 때 원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정리=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스님들의 건강관리는 파워봉이 최고!

20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비구니스님들께 권하셔서 전국 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많은 분들이 사용중입니다.

- 미국 FDA가 인정한 육각성 파워봉 -

변변한 광고없이 입소문으로 20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은 속효성 때문입니다.
한번만 체험해보면 몸이 먼저 알게되는 초강력 파워!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목, 어깨, 허리, 좌골, 무릎, 발목, 손목, 등, 고관절

미국FDA등록
MEDICAL DEVICE
NO. 890.3490

특허청등록
디자인 0274541

한번사용해보신분이
선물용으로 여러개씩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선착순 300명 한정판매



특별보급가 60,000원



특별보급가 39,000원(시중가 36만원)

미국,일본,독일,
러시아 보급중!!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7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불타는 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면



지유 스님의 ‘수심결’ 특강 지상중계〈상〉

법문: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
일시: 2008년 10월 21~24일
장소: 범어사 침계루

마음 닦는 요결(要訣)은 무엇일까? 만약 닦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수록 깨달음의 본래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수행을 지어갈 것인가? 참선 수행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직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이 10월 21일부터 4일간 범어사 침계루에서 500여 사부대중에게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역작인 〈수심결(修心訣)〉에 대한 감로법문을 펼쳤다. 스님은 자상하고 경쾌한 어조로 선종 특유의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하는 선지를 밝혔으며, 첨예한 돈점(頓漸)논쟁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해석을 내렸다. 〈수심결〉은 고려 중기 지눌 스님이 직지인심과 돈오점수, 정혜쌍수 등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저서로 문장이 간결하고 논리적이어서 참선 입문서로 널리 읽혔다. 서두와 권결(勸結)을 제외한 본문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본지는 ‘깨달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 선언하는 지유 스님의 수심법문(修心法門)을 2회에 걸쳐 지상중계 한다.



소금이 짠 줄 알고 꿀이 단줄 아는 것이 깨달음
“있는 그대로 모두 옳으며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연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운 배우자를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안심처(安心處)는 아닙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아름다운 배우자를 모두 가진 천하장사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겪어야 한다는 것, 언제 부닥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직면해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이나 억만금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성형수술도 하고 온갖 치장도 하며 삽니다만, 죽어서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大)로 흩어지기 시작하면 썩어가는 몸뚱아리에서는 구더기만 들끓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바탕에서 ‘아하, 마음을 깨달아야겠구나. 마음은 불생불멸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은 끝없는 과거부터 한번도 태어난 바 없고 죽은 바도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이므로 자신의 마음자리를 완전하게 깨달으면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범부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육신이 늙고 병드니까 자기도 늙고 병들어 결국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자에게 이 문제에 관해 물어 보려고 해도 죽은 자와는 통화가 안되니 알 길이 없군요.

삼계 속에서 윤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타는 집(火宅)’과 같아서 하루속히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를 구하는 것이 긴요한데, 부처란 곧 본래마음이니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면 무량겁을 지나도록 장좌불와하거나, 하루 한 때만 식사하거나, 몸을 태우거나, 피를 뽑아 경(經)을 베끼는 등 온갖 고행을 해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옛적에 이견왕이 바라제존자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존자가 “성품을 보면 부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왕이 다시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자, 존자는 “성품은 작용하는데 있습니다”하고 답했습니다.

왕은 이어 “만일 작용할 때는 몇 군데에 나타납니까?”라고 묻자,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태(胎)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고 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쥐고, 다리에 있으면 움직여 달리니, 나타나면 모래 수효만큼 많은 세계를 두루 싸고, 거두어 들이면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니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佛性)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혼(精魂)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화상이 답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 주고자 하나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하자, 화상은 “바로 너니라”하고 단언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보임(保任)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화상은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공화(空華)가 어지러이 떨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끝에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용하면서도 이 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잠 오는 줄 아는 바로 이것인데 말입니다. 임제 스님은 눈앞에 또렷하게 홀로 밝으면서도 모양 없는 자가 있는 바, 이것이 법인(法印)이며 본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마음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불생불멸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망상(妄想)과 집착(執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끼면 눈앞의 산과 물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망상 · 번뇌를 모두 놓아버리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본래성불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 그 자리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새로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차츰차츰 부처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부처임을 단박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오(頓悟)입니다. ‘본래 그 속에서 행주좌와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깝다. 매일 차(茶)를 마시면서 차 마시는 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빙긋이 웃게 됩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며,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가려우면 가려운 줄 아는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일러 줘도 믿지 않으니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식을 비방하고 욕하다가 그 과보로 3악도에 떨어지게 되니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8만4천의 방편 법문을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스님들은 믿거나 말거나 비방하거나 말거나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핵심을 바로 일러주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깨달음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을 때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자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 좋고 나쁜 것이나, 수학을 잘 하고 못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과 신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깨달으면 온갖 신통을 갖춘 비범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깨닫는다고 특별히 다른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이 깨닫는다고 해서 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이 깨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에서 단 맛 나도록 만드는 것이 깨달음일까요? 소금이 짠 줄 알고 꿀이 단 줄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불법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짜고 꿀이 단 것을 공부해서 아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리나 빛깔, 냄새, 맛 등이 모두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 들이려는 취사(取捨) 분별심 때문에 도(道)속에 있으면서도 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맛을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오매일여(寤寐一如)를 위해 늘 화두나 염불같은 수행방편을 들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또한 깨달은 자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깨달은 자들도 범부들과 똑같이 배고플 때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네 마음이 부처임을 알라”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잠 올 때 잠을 잡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성인과 범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선지식이 대답했습니다.

“똑같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선지식이 대답했습니다.

“깨달은 자는 밥먹을 때 분명히 밥 먹고, 일할 때 분명히 일하며 잠 올 때 분명히 잠을 잔다.”

그러나 범부들은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망상들이 오락가락 합니다.

‘똥과 밥이 하나다’ 고 하면 믿겠습니까? 옛날에는 논에 거름똥을 주어 볍씨에 영양을 공급했고, 그 볍씨가 커서 쌀알을 맺으면 다시 사람이 먹는 유기적 순환관계를 가졌습니다. 눈앞의 밥과 똥은 확연히 다르지만 깊이 사색해보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죽음으로써 새로 태어날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 죽음은 축하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태어남으로써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 갓난아이들은 태어나자 마자 슬퍼서 우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선악이 없어지고 취하고 버릴 것이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 옳으며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사량분별을 놓고 보면 실체가 보입니다. 여기가 부동(不動)의 자리입니다.

조사스님들은 ‘도(道)를 이루려면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라’ 고 했습니다. 성품을 찾기 위해 밖으로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안식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안으로 뒤져 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선지식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길을 일러 주십시오.”

선지식이 물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선지식은 “더 이상 공부하지 마라. 일체를 놓고 내일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보라.”

제자는 일체의 생각과 의도를 쉬고 마냥 편안하게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에 제자는 홀연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바로 종소리였구나. 도(道) 아니고 진리 아닌 게 없는데, 나 스스로 가리고 있었구나’ ‘구하면 구할 수록, 찾으면 찾을 수록 멀어 지는구나’ 하고 여기서 탁 계합했습니다.

생각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금언(金言)이라도 들고 있으면 진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금싸라기가 아무리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난다’ 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는 마음, 머리 굴려 궁리하는 마음, 미워하고 집착하는 마음 등 쉼 없이 들고 있는 마음이 본 성품을 가리고 있는 덮개입니다. 늘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의 눈은 마치 썩은 동태 눈알처럼 게슴츠레하고 흐릿합니다. 그래도 들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십시오. 놓아버리면 목전(目前)에 바로 보입니다. 벽이면 벽, 사람이면 사람, 꽃이면 꽃, 물건이면 물건이 또렷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놓아버리고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면 대화하거나 일하는 가운데서도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참되고, 무심하게 되어 이사무애(理事無碍)가 됩니다.

옛 스님들은 앉아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부처라는 이름조차 붙힐 수 없는 대무심처(大無心處)에서 밭 갈고 씨 뿌리며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음은 조금도 맺힌 바가 없이 활발발(活潑潑)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일체 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아무 것도 구하지 않는 수행 즉 ‘닦음이 없는 닦음(無修)’이 ‘참된 수행(眞修)’입니다.

선지식은 말합니다. ‘공부를 던져버려라!’ ‘일체를 놓아버려라!’ 화두든 염불이든 들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듣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렷하고 밝은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놓아라’ 할 때 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긋납니다. 놓는다는 생각 역시 본심을 가리는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객승이 찾아와 선지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선지식이 대뜸 “놓아라”고 했습니다.

객승이 말하기를 “다 놓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하니, 선지식이 “들고 있지 말고 다 놓게나”하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객승이 따져 묻기를 “다 놓았는데 뭘 더 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선지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놓기 싫으면 들고 가게나.”

이 말 끝에 객승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체의 구하는 마음을 쉬고 놓는다는 생각 조차 놓아야 티끌을 벗어난 할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옳기에, 매순간 알아차려 나가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놓아집니다. 조주 선사는 객이 찾아오면 “차나 한잔하시오”하며 차(茶)를 권하면서 차맛을 제대로 아는가를 봅니다. 차 마시는데 일상의 견처가 드러납니다. 차를 마시는 자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와 늘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라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남의 말에 끄달리면 안됩니다. 임제 스님도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끄달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끄달리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들고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가 정답입니다. <계속>

글 박지원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7〉 설호 대강사

설호(雪湖) 스님은 1936년부터 44년까지 해인사 주지를 두 차례나 지내신 분이다. 오랫동안 법륜사 강사로 계시면서 학승들을 지도하였는데, 서울 장안에서 모여온 여러 학인들에게 사미 · 사집 · 사교 · 대교를 차례로 가르치되, 9시에 출근하시면 저녁 5시 공양이 끝날 때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는 거의 쉴 틈 없이 가르치셨다.

일요일이 되면 신도들을 위해서 <금강경> <아미타경> <법화경> 등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경전들을 프린트하여 가르쳤고, 필자가 특강을 들을 때는 ‘이조 불교사’를 가르치셨는데, 한 번도 손에 책을 들고 가르치는 법이 없었다.

“조선 태조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선위를 받아 국호를 ‘조선’이라 한 때는 1392년이다. 3년 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태조 6년에는 고려 왕씨들을 위해서 밭 150결을 개암사에 내놓고 수륙재를 베풀었지.”

위화도 회군을 배경으로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무자비한 폭군으로 왕씨 일족을 씨도 남기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안 죽기 위해 멀리 도망가 전(田) · 전(全)씨로 성을 바꾼 사람도 많았다 한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도 불성이 있어서 그랬던지 죽은 왕씨를 위해 봉성재를 지내주었다 하니 새삼스럽게 성군임을 깨닫게 하였다.

“내가 국가를 세운 것은 조종께서 경사를 쌓으신 복덕에 힘입은 것이다. 선조의 덕에 보답코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신민들을 위해서 혹은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아먹지 못한 외로운 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 주고자 하니 그대들은 서둘러 자리를 물색하도록 하라.”

내신 이득분과 사문 도선이 이 일을 받들어 세운 것이 삼각산 진관사이다. 태조 6년 정월 초2일의 일인데, 27일부터 시작해서 9월에 역사를 마쳤다. 태조께서 친히 세 번이나 납시어 99간의 단(壇)과 랑(廊), 문(門)과 고(庫)를 점검하였다 하니 관심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해 태조는 스님 각추(覺錐)를 일본에 보내 우호를 닦으니 일본서도 스님 의만(義滿)을 통해 답서를 보내왔다고 하고, 태조 7년에 대장경판을 지금 독립문 근처 지천사로 옮겨 보관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스님은 두 달 동안 조선불교를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 없이 앉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그 말씀이 실오리기도 틀리지 아니하였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몸이 6척 장구로 생겼으며, 코끝이 약간 얽음얽음 하였다. 평상시 크게 웃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무슨 일이든지 근거가 없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근자에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이 책도 보지 않고 도도 닦지 않으며, 남이 한 말을 듣고 제 말처럼 지저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니 그대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 확인한 말이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가야산 이야기가 나오면 가관이었다.

“자비 지혜가 꽉 차있고, 신비 웅장하여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소나무가 가관이지. 특히 잣나무가 많은데, 여름철에도 모기가 없는데, 희귀한 나무들이 많고 공기가 맑고 깨끗한데 원인이 있겠지. 산에 가면 산과일, 들에 가면 들나물이 많아 오래 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국보 보물이 많아 구경꾼 또한 적지 않거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해인삼매속에서 삼라만상이 다 들여다 보이므로 희귀한 새, 달리는 짐승들 모습이 극락세계의 찬불가처럼 들리거든. 의상대사가 지엄 법사에게 인증을 받은 해인도를 본따서 절을 지었기 때문에 7언 30구 210자를 염하면 3천 대천세계가 소반위에 반찬처럼 들어나거든. 그러나 자네들은 ‘의상대사 법성게’만 알았지 ‘명백 대사 해인삼매론’은 듣지 못했을 것이야. 어디 내 한번 읊어 봄세.

하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생사열반비이처
(生死涅槃非異處)
번뇌보리체무이
(煩惱菩提體無二)
왕석정진사생사
(往昔精進捨生死)
부지생사즉열반
(不知生死卽涅槃)

“보고 듣고 깨달아 확인한 말만 하거라”

7언 28구 196자는 ‘의상대사 법성게’에 지지 않는 명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수대장경을 편집할 때 그 글을 장경 47권 779페이지에 편입하였거든….”

둥글둥글한 머리 속에 아는 것이 꽉 차 있어 서로 나오려고 하여 말씀은 잘 하시지 못했으나, 종일토록 설법하면서도 조금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타고난 재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서산 스님이 무고를 당해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선조 대왕을 뵙게 된 경위, 8도 도총섭이 되어 5천 승군을 거느리고 전장 터에 나아갔던 일, 유정이 처용과 함께 일선에 나아가 통쾌하게 싸운 일, 영규 대사 외 4명이 일본에 들어가 강화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한 나절을 물도 마시지 않고 열변을 토했다.



불교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신도 등록, 템플스테이, 수련회 예역관리, 접수, 재무 회계, 통계, 분석,
자동집계 기능등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수비라 초기화면 · · 신도등록접수 · · 재무회계통계 · · 접수별통계 ·

종무행정 보상판매 실시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제한 없음
◆데이터 이전 가능(별도 문의)

108사찰 한정 특가
250만원 ➔ 130만원
(연회비별도)

신도간 쌍방향 커뮤니티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제공
- 쌍방향 커뮤니티 지대방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구축
- 내마음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송광사, 용주사, 봉선사, 부석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제공

(주)탑스컴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문의전화 031)965-6629, 031)965-8253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커뮤니티포탈(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탑스컴 www.topscom.net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료기,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 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제품구성 : 희담석볼 찜질기 외피 + 온도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자개열선 사용)
내 용 물 :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 ① 100cm x 50cm (사진) 가격 250,000원
② 170cm x 60cm 가격 550,000원

사은품
숙면을 도와주는 희담석 베개패드

정신집중이 잘되는 희담석 방석



찜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찜질팩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염주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반롱이 되고 목계가 되세요"

오늘의 禪語 41

좌선과 참선

'좌선(坐禪)'과 '참선(參禪)'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먼저 좌선은 '앉아서 선(명상)을 하다'는 뜻으로 결가부좌나 반가부좌 자세로 명상하는 것을 뜻하고, 참선은 '선(禪, 명상)에 들어가다' '선을 참구(參究)하다'는 뜻으로 하나의 주제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좌선', 자세 무관한 총칭이 '참선'
번뇌 해탈 위한 선 목적 잊고 삿된 선 평생 참구해야 '헛일'

따라서 좌선과 참선은 거의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한다면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좌선(坐禪)이라고 할 수 있고, 자세와 관계없이 선을 하는 것은 참선(參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선이나 참선은 모두 정신을 집중, 몰입시키는 방법 즉 '삼매'를 통해 깨달음에 이릅니다. 삼매를 통해 번뇌 망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본래 깨끗했던 마음(불성)과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세계로부터 무분별의 세계로, 중생의 세계로부터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것은 각각의 수행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초기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확인을 통해 욕망(貪) 분노(瞋) 어리석음(癡) 이 삼독(三毒)을 제거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중국의 조사선이나 묵조선에서는 '지관타좌(只管打坐)'라고 해 오직 가부좌하고 앉아서 삼매를 통하여 마음을 고요히 해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화선은 '무' '간시궐' '마삼근' 등 화두삼매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선법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선이나 좌선은 방법만 정확히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독학을 통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교리적 학문적으로 안목이 탁월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훌륭한 선지식이나 스승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보다 안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혼자 하다가 또는 이상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선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한 사람들이 선의 본래 목적과 수행방법을 잘 모른 채 인도의 요가나 단전호흡, 기공, 양생술 등 도교적 수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선수행(간화선)의 목적은 신체적 단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두참구를 통하여 번뇌 망상 등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무집착 무소유의 전인적인 인격을 완성하자는 데 있습니다. 참선을 통하여 일체는 무자성, 공(空)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을 바탕으로 중도, 무집착을 실천하여 번뇌로부터 해탈한 자유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참선자들이 선의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육체적 정신적 신비주의를 추구한다거나 또는 귀신이나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 등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비슷하다 보니 혼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모두 외도(外道)이고 '삿된 선(邪禪)'입니다.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참선해도 허사입니다.

참선이나 좌선을 할 때에는 먼저 반가부좌나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조절한 뒤에 허리를 쭉 펴고 등골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정신을 곧게 세워 화두를 참구합니다. 처음에는 화두가 제대로 들리지 않지만 "왜 무일까" "왜 마삼근일까" 하고 의문사를 던지다 보면 점점 마음이 그곳에 집중돼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 머리에 번뇌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두 참구를 하며 참선이나 좌선을 오래도록 하면 번뇌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잠시일 뿐입니다.

참선이나 좌선을 하면 우선은 마음이 평온해 지고 맑아집니다. 설사 화두를 제대로 들지(참구)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욕망과 출세, 돈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왜 사는가?"라는 강한 의문사를 던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색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것이 발전하면 선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참선은 일상생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명상하는 좌선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좌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엔 묵묵히 좌선하고 앉아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롱(半聾, 반 귀머거리)이 되고 목계(木鷄, 나무 닭)가 되는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분별·집착 버리고 실상 보면 안심입명"

41 부동 우바이

부동 우바이 머무는 '안주' 흐트러지지 않음 상징
불법 수지·보살도 성취로 '싫음 없는 삼매' 얻어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는 보살도를 닦는 방법을 묻기 위해 남쪽의 안주(安住)라는 국토의 서울에 있는 부동(不動) 우바이를 찾아간다. 한량없는 친족들에게 묘법(妙法)을 설하고 있는 화려한 궁전에 들어서니 금빛 광명이 두루 비치는데, 이 광명에 닿은 사람은 심신이 청량해졌다. 그 모습은 너무나 고결해 잠깐 보기만 해도 모든 번뇌가 저절로 소멸될 정도였다. 또 몸에서는 광명이 나와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항상 묘한 향기가 나왔다.

선재동자가 환희심을 내어 찬탄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자, 부동 우바이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꺽을 수 없는 지혜장(智慧藏)해탈문, 견고하게 받아지니는 수행문, 모든 법을 평등하게 모두 지니는 문, 모든 법을 밝히는 변재문, 모든 법을 구하는 데에 고달파하지 않는 삼매문을 얻었다."

선재동자가 그러한 삼매를 얻은 까닭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이 불도를 수행하게 된 인연과 과정을 설명했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에 수비(修臂)여래가 계셨을 때 나는 국왕의 딸이었다. 밤중에 나는 누각 위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허공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뵈었다. 나는 '세존께서는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거룩한 모습이 원만하고 광명이 구족하며, 권속을 많이 두고 궁전을 장엄하며, 신통이 자재하시고 변재가 걸림이 없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 때 여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이길 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리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호하라. 의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길에 태어나라.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오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의 법비(法雨)를 받으라. 옳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내라.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라. 널리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법보를 베풀라'고 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법을 듣고 온갖 지혜, 부처님의 열 가지 힘 · 변재 · 광명 · 육신을 구했다. 선남자여, 내가 이 마음을 낸 후부터는 탐심을 내지 않았고 다른 중생에게 분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한 겁 동안에 받아 지닌 여러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도 잊지 않았다. 그 동안에 여러 보살들이 묘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행도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또 내가 본 중생들 중에서 한 중생에게도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도록 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항상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몸을 나타내며 훌륭한 말로 모든 중생을 깨우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법을 구하여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고,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해 기쁘게 할 뿐이다."

부동 우바이의 의보(依報: 거처)와 정보(正報: 신체의 용모)가 훌륭한 것은 끊임없는 지계, 인욕, 정진 등 보살행으로 말미암아 갖추어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무수한 세월 동안 불법을 한 구절도 잊지 않고 수지하며 보살행을 닦아 보살도를 성취했기에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어 항상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설하게 된 것이다.

부동 우바이가 머무는 곳이 '안주(安住)'인 것은 항상 진실한 법에 의지해 외부의 경계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음을 상징한다. 또 이름이 '부동(不動)'인 것은 발심한 이래로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세속의 욕심과 성냄과 원한 등에 흔들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육조스님은 <금강경오가해>에서 "법을 듣는 사람의 갖가지 모습은 같지 않으나 분별심을 짓지 말 것이니, 다만 공적하고 일여한 마음을 요달하여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所得心)' · 승부심 · 바라는 마음 · 생멸심이 없으면 이를 이름해 여여부동(如如不動)이라 한다" 했다. 규봉 선사가 "부동이란 '물듦이 없음(無染)'이다" 했듯이, 부동 우바이처럼 한결같이 보살도를 닦는 수행자는 갖은 경계에서 오는 번뇌 · 망상을 마주하되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심과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는 본래자리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참선집중프로그램 '염화미소의 향기'=강화 연등국제선원은 11월 17~23일 참선집중프로그램 '염화미소의 향기'를 실시한다. 지도법사 원타 스님은 묵언참선수행, 개인점검, 아비라 기도 등 주인공으로 사는 삶을 제시한다. 대학생 이상 일반인 대상으로 내 · 외국인 30명 선착순 접수한다. 동참금 20만원. (032)937-7033, www.산사체험.kr

●위빠사나 집중수행=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는 11월 20~26일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또다나 스님은 6박7일간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한다. 선착순 55명 접수하며 동참금은 17만5000원이다. (041)567-2841, www.vmcwv.org

●위빠사나 기본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이 11월 10~15일 제115차 위빠사나 기본수행을 개최한다. 수행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30분, 오후 7시 30분~9시 30분이다. 참가비는 자율적 보시 또는 5만원이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 주말 수행은 산행을 겸한 직장인 수행프로그램이다. 제115차 집중수행은 8~15일 열린다. (02)517-284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1. 8(토) 오전 9시부터 ~ 11. 9(일) 오후 1시까지 (11월 7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인도네시아 역사문화 가이드



불멸의 이야기 보로두부르
서규석 지음 | 리북 펴냄 | 1만9000원

보로부두르사원의 종교적, 역사적, 건축학적 이해를 통해 동남아시아 불교문명 탐구서이자 인도네시아 역사문화 가이드북이다.

보로부두르는 대승불교의 사상적 기반과 밀교적 건축양식을 가진 대승불교 기념물로 그 자체가 불교경전이다. 동남아 고대 문명에 해박한 작가는 1460개의 부조에 새겨진 불교경전과 붓다의 전생이야기를 포함한 불교설화를 살아 숨쉬게 했다. 총4부로 구성된 가운데 제3부는 <본생경> <화엄경>등 불교경전에 주목해 보로부두르의 각 회랑을 분석했다. 부조들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그 묘미를 풍부하게 되살려 준다.

화엄경 등 대승불교 경전에 기반한 이야기들은 문명적 교감과 함께 불교경전의 손쉬운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언 기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선물



놀이방 코끼리 : 장애아 부모들의 색다른 행복 찾기
데니스브로디 지음 | 홍은미 옮김
크림슨 펴냄 | 1만4000원

"육체적 장애는 극복할 수 있지만 탐 · 진 · 치에 물든 '정신적 장애'는 이겨내기 어렵다." 부처는 육체적인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놀이방 코끼리>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위안이자 선물이다. 저자는 수업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벌어지는 일, 아이의 짜증 등에 다른 부모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듣는 것이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실제적인 도움의 내용을 전한다.

이 책은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책이다. 일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참다운 시각을 알려주고 육체적 장애보다 무명에 가린 정신적 장애가 더욱 무서운 장애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상언 기자

'전각' 응용으로 다양한 禪 세계 안내



선의 관문: 무문관(無門關)
무문혜개 원저|김백호 역저|심거 펴냄|2만3000원



무자인(无字印)
불성이 없는 개가 있고 불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 불성이 없는 사람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 불성이 없다하여 무자(无字)를 돌에 새겼더니 미륵부처의 형상이 된 것은 어떤 까닭인가? -<무심관> 가운데-

"파도가 있다 없다 싸우지 말라. 일수(一水)를 벗어나지 못하나니."

<무문관(無門關 · 심거 刊)>은 조주 화상에게 개의 불성을 묻자 "없다"고 답한 '조주의 개(趙州狗子)' 선문답에 저자의 '백호평어'를 더하고 송을 붙여 강설한다. 1228년 무문 혜개 스님의 선문을 바탕으로 780년의 시간을 거슬러 무구 김백호(50 · 사진) 선생에 의해 현대적으로 해석된 화두집이다. 선문의 공안 48칙을 담은 <무문관>은 고양시 단일문화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저자가 금요 명상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며 선(禪)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도(道)란 어떠한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화두의 관문을 통과해야 깨달을 수 있지요. 무문관의 관(關)은 관문의 줄임말입니다. 중요한 길목은 문을 통과해야만 지날 수 있듯 화두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엇이란 그 무엇(2002)> <천부경(2007)>에 이은 세 번째 저술서 <무문관>은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펼쳐진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추구 중심인 이 시대에 형평을 맞추는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경쟁구조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에 내재된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음양철학에 기반 한 <천부경> 81자는 정신, 물질, 존재 생명의 조화를 모색하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문관>은 원효스님이 시도했으나 사회에 적용되지 못한 <십문화쟁론>에 접목해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결국 문제는 어둠에서 옵니다. 마음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아의 본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역량은 발휘될 수 없지요. 쉬운 선(禪)을 추구하는 요즘이지만 마음을 밝히는 핵심이 결여된다면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무문관>은 자연스럽게 참 자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저술 과정에 있어 그 시대에 절실한 언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800여년의 시간차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禪)도 모르고 화두도 낯선 이를 위해 '전각'으로 응용해 다양한 선(禪)의 세계로 안내한 섬세함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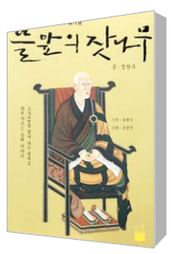
"단일문화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융화를 추구하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허물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종교인들의 공동체로서 '마음이 밝으면 참 부처'라는 진실을 <무문관>을 통해 공감해 보십시오."

저자는 11월 22일 일산 선도원(禪道院) 개원을 앞두고 있다. 박제된 불교를 떠나 삶 속에 살아있는 부처로 깨어나는데 앞장서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참 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현실로 구현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후원:[선도원]국민은행 293201-04-093726, (031)918-8835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어디서든 자신이 주인이 되라



중국 10대 선사 禪기행 : 뜰 앞의 잣나무
정찬주 글|윤명숙 사진|송영방 삽화
미들하우스 펴냄|1만5000원

구도(求道)란 무엇인가?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거두어 취해야 할 도(收取之道)로서 궁극의 깨달음을 정의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찾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대 자신이 주인이 되라. 어디에 있든 그대 자신이 참이고 진리이다"라고 설한 임제 선사 어록을 좇아 현전일념(現前一念)을 화두로 중국 10대 선사들의 주석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뜰 앞의 잣나무 한 그루를 마음에 심었다.

"제 구도 여정에 공감하고 왜 이 사람이 순례하는가 물음을 띄운다면 그것이 이 책의 저술 동기다"라고 말하며 "내가 있는 곳이 달마동이라는 진실을 깨우쳤을 때 나는 이조사가 되고 삼조사가 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왜 현대인은 잃어버린 자기를 찾지 않는가? <뜰 앞의 잣나무>는 중국 10대 선사의 핵심사상을 조망하면서 선문답의 공안으로 정착된 선차의 전통을 밝혀 자성의 본처를 찾는다. **가연숙 기자**

'해야하는 마음' 보다 '벗어나는 것'에 초점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 : 불교로부터의 제언
이노우에 신이치 지음|박경준 옮김|우리출판사 펴냄|1만원

'이대로 갈다면 인류는 없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 경제학의 부적절성에 항거했던 경제학자 E. F. 슈마허(Emst Friedrich Schumacher · 1911~1977).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은 슈마허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거론한 '불교경제학' 모델에 지속가능한 지구의 밝은 미래를 건다.

'서구 팽창주의 배경이 포기되고 그 자리에 불교 가르침이 들어선다면 어떠한 경제 법칙이 적용될 것인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개념의 정의가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불교경제학의 초석을 다진다.

슈마허로부터 영향 받은 저자가 논의한 불교경제학의 세 가지 슬로건은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원만한 경제학' '평화의 경제학'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이다. 부처님은 지나친 가난과 궁핍을 경계하면서도 '의식적인 가난'인 검소와 절약을 강조했다. 물질적, 신체적 즐거움에 대한 개인적 탐닉을 배격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보시 ·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 되는 덕목이다.

역자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는 후기를 통해 "지구를 멸망시키는 現 경제학의 대안 경제학으로서 불교경제학은 명실상부한 지구를 구하는 평화의 경제학"이라고 단언한다. "모든 사람이 불자라는 자각으로부터 불교경제학은 시작된다"는 견해다. 자리이타의 일여(一如)에 의한 여래의 관용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혹은 '해야만 하는 마음'보다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불교는 현세 현실의 종교다. 모든 사업은 불법행(佛法行)이다.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학사를 근거로 한결같은 평상심의 상도덕(商道德)를 행하는 방침에 신중히 접근한다. 이로써 자연히 보리심을 성취하고 무애자재한 행복에 도달하도록 해 불교적 자유를 체현하는 지표를 제시한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3	인과경	현담	선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뜰	원철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그것만 내려 놓으라	지명	조계종출판사
10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딛다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 달다 〉!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달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른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른보인 무문관 / 바른보인 벽암록 / 바른보인 천부경 / 바른보인 금강경
바른보인 신심명 / 바른보인 증도가 / 바른보인 반야심경 / 바른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른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른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른보인 선가귀감 / 바른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❷ 성전사의 미역국

"끓는 물에 미역 넣고 왕소금 간 했을 뿐"

'선정수련회'라는 수련회에 참여했다. 경북 김천의 성전사, 작은 뜰이 예쁜 아담한 절이다. 절 옆에는 산 능선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나 있고, 길가에는 밤나무 몇 그루가 서있다. 산을 오르는 몇몇의 등산객 소리만 간혹 들릴 뿐, 고요함이 웅숭 깊은 그곳에서 나는 여러 수행자들과 더불어 5일간을 앉아있었다. 코끝에 스치는 들숨과 날숨의 들락임을 관찰하면서.



말이 쉽지, 평소 일이십 분도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매 타임마다 한 시간 반을 앉아있기도 벅찰 지경이다. 더구나 숨을 쉬는 사실조차 잊고 살다가 들숨과 날숨의 행로를 미세하게 알아차림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랴. 그저 내가 이렇게 '숨 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버티는 것도 대견할 따름이다. 어쨌든 그렇게 매일 9시간을 좌선하다보니, 정신은 맑아지는 반면 몸이 힘들다.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다보니 어깨와 목이 떨어져나갈 지경이다. 지도스님과의 인터뷰시간을 제외하면 묵언을 해야 하니 때론 갑갑증도 일면서 신경이 예민해짐도 느낀다. 그러니 '먹는' 시간이 낙이다.

공양메뉴는 아침에는 죽공양이고 저녁은 떡과 과일로 대신한다. 점심은 푸짐한 밥이다. 빼빼한 체구의 공양주보살님은 끼니마다 홀로 공양을 준비하느라 소리 없이 분주하다. 참선 중인 수행자들 귀에 조금이라도 거스를세라, 도마 대신에 박스 한 귀퉁이를 떼어내어 조심스레 도마질이다. 공양시간에는 수행자들이 음식을 먹는대로 설거지를 하느라 설레발이다. 이유인즉은 참선시간에 행여나 설거지하는 소리를 낼까봐 걱정이 돼서란다. 보살님의 정성어린 마음에 감복되니 음식은 그저 맛있다. 매 끼니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던 중, 하루는 점심공양으로 미역국이 나왔다. 어찌나 반가운지, 평상시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역국에 그리 새삼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상도 해 나름 분석해보니, 아마도 내 몸이 그새 청청해져서 몸이 원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미역을 원한 건 아닌지 싶다. 아무리 봐도 물에 미역만 풀어놓은 형상인데, 어찌나 깊고 깔끔한 미역의 맛이 우러나는지, 그야말로 보양국이다. 널따란 대접에 미역국을 가득 퍼서 상 위에 올려놓으니, 채 먹기도 전에 뱃속 마음속이 다 뜨끈뜨끈하다. 미역국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낡은 스텐대접마저 감사해 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사실 수련회 규율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공양주보살님에게 슬쩍 다가가 미역국에 무얼 넣었는지 물어보았다.

"마땅히 넣은 것도 없어. 물이 팔팔 끓을 때 미역 넣고 왕소금으로 간한 거 밖에는."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간단하다. 이걸 당체 비법이라고 해야 할지도 난감한데, '물이 끓을 때 미역을 넣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고 국물 맛이 시원하고 깔끔하다'는 말과 '미역을 넣고 푸르르 끓어오를 때 불을 꺼야한다'는 보살님의 당부에 숨은 비법을 알 것 같다.

과일과 쥬스로 대신한 저녁공양 시간에도 낮에 먹은 미역국 생각이 간절하다. 괜히 공양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가스렌즈 위에 놓인 솥단지의 뚜껑을 열어본다. 다행히도 점심에 먹었던 미역국이 뽀얀 자태로 놓여있다. 다음날 새벽, 나의 간절함이 통했던지 아침공양으로는 미역죽이 나왔다. 흰죽에 누룽지죽, 호박죽, 잣죽, 깨죽, 팥죽, 콩나물죽까지 죽이라면 오만 죽을 먹어보았으나 미역죽은 난생 처음이다. 분명 전날 먹다 남은 미역국의 재활용 작전이었을 게다. 아니나 다를까, 보살님은 미역국에 미역을 좀 더 보충해 찬밥을 넣고 폭폭 끓였단다. 하라는 수행은 뒷전이고, 미역국 사모곡에 빠져있던 나로서는 밥시간이 선정인 듯싶다. 푹 퍼진 밥알과 시원한 미역국이 걸쭉하게 어우러진 미역죽 한 사발에 천지의 기운이 충전되는 것만 같다. 그러니 실로 '선정의 죽'이라 할만하다. 미역죽을 두 대접이나 해치우고는 다시 앉았다. 풀벌레소리가 고요하게 감돌아드는 정적 속에서 툭툭, 무언가를 미련도 없이 떨구는 소리가 있다. '무슨 소리가 이토록 행복에 충만하여 아름다울까.' 가만가만 생각해보니, 오솔길 옆 밤나무가 밤을 떨구는 소리다. 선정의 죽을 너무 푸지게 먹어서일까, 가을 새벽녘에 밤 떨어지는 소리가 선정이다.

자유기고가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❹



'침향' 비상약으로 쓸 정도로 효능

필자는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의 여러 불교성지를 다니며 불가의 의미 있는 향 재료를 구하던 중 다비식 광경을 수차례 목도했다. 매번 확인하니 각자의 형편에 맞춰 부호들은 침향과 전단, 자단향 등을 꽃과 함께 넣고 다비했고, 형편이 안 되는 하층민들은 비교적 저렴한 향목이라도 넣어 화장 시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몸에 향기가 나면 좋을 것이며, 윤회에 의해 새로이 세상에 올 때는 이 세상의 악취를 털어내고 더욱더 향기롭게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는 뜻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저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다비 시에 같이 넣은 향목 냄새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큰 위인이 탄생 할 때에는 항상 향기가 동반한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침향은 이렇듯 공양물로 향의 원료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귀한 약재로의 효능이다.

옛날 고승들은 침향으로 염주를 만들어 몸에 지니다가 위급한 사람을 만나면 염주알을 풀어 사람을 치료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에서도 민간요법의 하나로 흔히 말하는 넋이 빠진 사람에게 침향의 향을 맡게 해 정신이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침향의 약성을 증명하는 한 예다.

필자는 현재 간경화를 앓고 있다. 밀림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치료 받은 후 충분히 요양해 회복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능인향당을 운영하며 부처님께 올릴 최고의 공양물만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인도, 네팔, 부탄, 버마, 캄보디아 등 불가의 성지들을 찾아 직접 향 재료를 구하느라 무리하게 해외출장을 다녔다. 회사 홍보를 위해 여러 스님들도 찾아뵙고 박람회나 사찰행사 등에 참여했다.



침향으로 만든 염주.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2006년부터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2007년 말에는 복수가 너무 심하게 차서 혼수상태에 이르렀다. 응급실로 실려 간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간경화에는 특별한 치료제도 없고 오직 간이식 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할 일은 많은데 간이식만이 살 길이라니 앞이 캄캄했다.

얼마간 병원에 있으며 받은 처방은 간성혼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뇨제와 변비약 그리고 알부민뿐이었다. 2주정도 입원해 복수를 25ℓ나 뺐다. 가까운 지인들과는 이미 그 때 마음으로 작별 인사까지도 했었다.

아직 간경화에서 완쾌는 안됐지만 요즘 필자를 만난 이들은 날씬해진 필자를 보고 놀란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❾ 잘 먹고 최적의 삶 살기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인성 식생활이 결정… 사찰음식 주목받아

 # 음식과 병의 인과(因果) 관계

심신의 모든 병은 식생활이 원인인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건강이며,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는 그 사람의 성품 · 생활을 좌우하기도 한다. 식생활은 개인적 인성을 결정해 그 사람의 명(命)을 바꾸고 더 나아가 민족성을 결정한다. 민족의 앞날까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찰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절제를 통한 소식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는 원칙을 지키려 한다. 사찰음식은 육식 지탱과 더불어 정신을 맑히는 작용을 겸하는 선식(禪食)이다. 각종 패스트푸드와 오염된 음식에서 돌출된 색다른 질병의 병폐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기점이기도 하다.

음식은 물질적인 영양소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푸드로 급하게 대충 만들어진 음식으로 길들여진 아이들의 성격이 조급하고 참을성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음식은 물질공급을 넘어 정성과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 교감되는 매개체이다. 이런 가운데 사찰음식과 슬로우푸드(sow food)가 주목받고 있다.

 # 약석(藥石)과 약식(藥食)

수행자들은 음식물을 '음식'이 아닌 하나의 '약'으로 여겼다. 부처님 재세 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의 원칙을 따르던 북방의 수행자는 따뜻하게 데운 돌을 배에 올려놓고는 허기를 달랬다. 그 돌을 허기와 한기를 치유하는 돌로 '약석(藥石)'이라고 불린다.

얼마 전 다녀온 해인사 식당 입구에 '약석'이라고 붙은 문구를 봤다. 음식을 탐하지 말고 '내 몸을 보하는 감사한 약'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라는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 제대로 먹으면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필자는 타임(TIME)지가 '마술 손'이라고 극찬한 굿하트 박사가 60년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식이요법을 기본으로 음식물을 섭취한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제된 밀가루 음식과 탄수화물(빵, 파스타, 떡볶이 등)의 섭취를 줄인다. 탄수화물이 남아있는 한 지방은 연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흰쌀보다는 잡곡밥을 먹는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적당량 먹으며 음료는 물을 주로 마신다. 인공 감미 쥬스나 탄산음료 등은 다량의 설탕이 들어 있으므로 피한다. 설탕의 과다한 섭취는 슈가블루스(sugar blues:설탕을 과다 섭취해 발생하는 우울증 등 정신의 복합적 질환)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우리 정서와 건강에 치명적이다.

양질의 기름 섭취도 중요하다.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꼭 의아해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기름의 섭취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몸의 기름, 즉 축적된 지방을 태우는 것은 기름이다. 일반적으로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고지혈이나 고혈압 등의 질병에 많이 노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적으로 고탄수화물, 저지방, 저단백 음식 위주의 식단을 많이 할 경우 고혈압 등의 질병이 더 많이 발병한다.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명을 위해서는 신선하고 이로운 지방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신선하고 이로운 지방은 오메가라는 비타민이 대표적이다. 그 외 생선과 양질의 올리브유, 호두, 참기름, 달맞이 종자유 등이 있다. 에스키모들의 혈관이 깨끗하고 그들이 장수하는 원인은 생선을 주로 먹기 때문이다. 생선에는 오메가가 다량 함유돼 있다.

간략히 이쯤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식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음식물이 생명의 기본인 우리 몸을 만드는 토대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먹거리 섭취는 너와 나를 위하는 길이요, 앞으로 인류를 살리는 길이자 생명의 기본을 실천하는 길이다. (02)576 -7575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음반 '세속에서의 명상' 발매

명상음악가 홍순지 네 번째 노래

'참 모습 깨닫고 보니 부처와 조사 어디 있는가.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 있으니 몸을 뒤쳐 사자후 하노라.'

명상음악가로 친숙한 홍순지(불국사 합창단 지휘자)씨가 4집 음반 '세속에서의 명상'을 발매했다. 불교 색채 가득한 가사에 그만의 청아한 창법이 어울려 선가의 초연함을 노래한다. 성림월산(聖林月山) 스님의 선시에 백경운이 작곡한 오도송(悟道頌)을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됐다. 음악을 통해 깨달음을 갈구하는 소망이 잔잔한 바람을 따라 초연하게 펼쳐진다. 수도자의 뒷모습처럼 쓸쓸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당당하다. 지 미디어 (054)775-4888 가연숙 기자

이김천 '꽃이핀다' 展



11월 30일까지 이김천스튜디오갤러리서

신장(神將) 동진보살(韋陀天)이 통기타를 연주한다.

호법 신장이 불법을 수호하는 지혜의 칼 대신 나발을 불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갈대밭을 거닌다. 11월 1~30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이김천스튜디오갤러리에서 이김천 작가의 '꽃이핀다' 展을 통해 낭만보살을 만난다.

작가는 영웅호걸의 시대가 아닌 소인배들이 작은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세상을, 노래하는 장군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신장의 연주에 행복한 세상을 그려낼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평화를 발원한다. 갑옷과 투구를 쓴 미소년의 음악회가 무명을 잘라내는 지혜의 검이 되어 반야의 향기로 퍼진다. (043)872-2135 가연숙 기자

허회태 서 · 화 · 각 '이모그래피'展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서 11월 10일까지

생동하는 重重無盡의 佛세계



문자, 감성과 대화하다! 이모그래피(emography, emotion+graphy) 창안자 무산 허회태(52 · 사진) 선생은 서 · 화 · 각(書 · 畵 · 刻) 예술인생 47년을 기념해 11월 4~10일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전관에서 '이모그래피'展을 연다. 사물을 본떠 관념화된 문자가 아닌 감성을 나타낸 흔적을 의미하는 이모그래피는 8m 높이의 작품 '108번뇌불(煩惱佛)'과 '억만 부처佛'로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농담의 균열이라고 표현 하지요. 부처 불(佛)자를 중첩해 하나의 거대한 '佛'자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화선지를 천만번 이상 말리고 또 말려서 기운이 생동하는 이모그래피가 완성됐습니다."

그는 회화의 형태와 설치의 입체 그리고 획의 서예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의 장점만을 결합해 속성의 본질로 다가가고자 했다. 이는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중중무진(重重無盡)한 법계 연기관으로 통섭된다.

재독 미술평론가 류병학은 "그의 용필은 대담하면서도 천진난만합니다. 거대한 붓으로 종이에 긋는 장면을 떠올리니 마치 칼끝이 모래를 밀고 나갈 때 칼과 모래의 마찰음이 손과 팔뚝을 통해 가슴에 와 닿는 듯합니다"라고 평했다.

허회태 작가는 어머니의 불심이 본인의 작품 세계로 물들었다고 말한다. 동양미술사 100년을 회고할 때 왕의 곁에는 항상 명필가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자로 전락한 현대 서예가의 초상을 체험한 작가는 보물창고 안의 서예를 일상의 광장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붓질의 감성을 현실화 시키는 독보적인 이모그래피의 세계를 선보였다.

"세상만사는 공(空)인데 '나를 버리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작업 세계의 단초이자 공의 세계로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허회태 작가에게 이모그래피의 극대화는 세상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장 예술적인 감흥이다. 그 속에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철학을 농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구현된 작품이 바로 '108번뇌불(煩惱佛)'과 '억만 부처佛'이다.

"집중이 어려울 때는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작업에 몰입해 무아의 세계를 경험하다보면 아지랑이 같은 삼매가 피어나는데 이때 모든 에너지를 작품에 담습니다."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5세부터 한학을 시작해 중학생 때 효당 김문옥(1901~1960) 선생에게 아호 무산(茂山)을 받은 허회태 선생은 38세에 국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전각예술로 읽는 <반야심경>과 22점의 도자기 그리고 생활속의 이모그래피 시리즈(한복 · 가구) 등은 획일화된 감성을 재창출하며 만물의 숨결을 응축해 드러낸다. (02)588-3324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지당 박부원 도공 고희 기념展

11월 6일부터 이천세계도자센터

'자연은 자신의 역사를 바위에 새긴다.'

지당 박부원(도원요 대표) 도공은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어 온 외길 인생 46년을 기념한 도예전을 연다. 11월 6~30일 이천 설봉공원內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회고되는 도예의 여정이다.

도자기가 지닌 전통미를 재현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현대도예를 연구해온 선생은, 1960년대 전승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1970년대 도원요(陶元窯)를 설립, 한국전통전승도자계의 원로로서 한국도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척해왔다.

"백자 가운데 순 백자가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조 18세기를 전후해 광주분원 금사리 가마에서 많이 만들어진 달항아리가 더욱 좋아요.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분명 삶의 흔적이 항아리에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박 선생의 '백자달항아리'는 조선시대 소박하고 청빈한 풍류의 정수를 담은 대표작으로 꼽는다. 원형에 가깝도록 둥글게 말아 올린 그릇 모양과 투명한 우유 빛 유약이 마치 달을 연상시킨다. 우리민족의 정신을 맑고 너그럽게 투영해낸 소박한 흙속의 진실과 만나보자. (031)766-4476

가연숙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현대불교건축 조명'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건축 모색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강동균 · 김용환)는 11월 1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현대한국불교건축의 방향과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6회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 · 중 · 일 건축가 및 관계 전문가가 모여 불교사원의 기능과 역할 · 건축 재료 · 생활양식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불교 건축이 현대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 시대의 건축문화에 부합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색이다.

신영훈(한옥문화원) 원장이 '전통건축에서 본 현대 한국 불교건축의 방향'을 우경국(한양대)교수가 '현대불교건축의 새로운 모색-사회적 소통공간으로서의 현대불교건축'을 발표해 현대 불교건축의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범어사, 통도사, 부산 교수불자연합회, 현대불교연구원, 고심정사, 부산불교실업인회가 후원했다.

이상언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 BEST 추천도서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빛을 주는 티벳 사자의 서 오디오 북
죽음의 시기에만 행해지는 매우 가치 있는 실험으로의 초대.
우리는 죽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오디오 CD 3장, 남송 대본 포함 / 값 18,000원
20세기 초반 서구 사회에 처음 소개된 후로 학자와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받아온 고전 《티벳 사자의 서》가 국내 최초로 본래의 형태인 듣는 책(오디오북)으로 제작되었다. 생사의 업을 짊어진 모든 생명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해탈의 길로 이끄는 이 궁극의 가르침을 불교방송 DJ 정목 스님의 밝고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 듣는다. 정신세계사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TV "산성 할아버지의 신新 사고思考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풀어낸 바로 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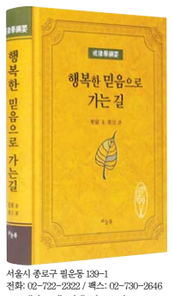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내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천명일 지음 | 신국판 | 고급양장 | 536쪽 | 값 18,000원 | 값 25,000원 지혜의 나무

절로 가는 길
절이 지닌 의미와 깨침의 미학
심신心身의 모든 감성과 마음까지도 환히 깨닫는 절 이야기

사찰은 본래 우리 내면의 각성세계를 밖으로 잘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면목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적 풍광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자로 보이고, 형색의 도설이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 해 준다.
천명일 지음 | 신국판 | 597쪽 | 값 20,000원
신국판 양장본 | 597쪽 | 값 28,000원 지혜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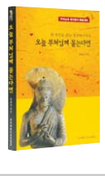
정찬주 장편소설
천불탑의 비밀

인생의 의미를 미법의 용단처럼 펼치는 소설_ 최인호
우리들의 가벼워진 삶에 의문을 던지는 소설_ 한승원
천불탑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비밀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되어, 때로는 기슬 조이고 때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흥미진진한 천불탑의 비밀 속에 빠져든다.
저자_ 정찬주
A5판 • 322면 • 값 10,000원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 계율학강요(戒律學綱要) |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길
대만 법고산사 개산조 성엄스님의 대표작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9-1
전화: 02-722-2322 / 팩스: 02-730-2646
e-mail: hanulbook@yahoo.co.kr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계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의 근본정신을 강조하여 계율조항의 틀에 박힌 대로 사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상적으로 부처님의 근본교의를 통하여 시대적 문화영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향은 바로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표출해 냄으로써 불교의 시대정신을 배양하고, 매 사람들로 하여금 승단제도를 정리하고 사명의식을 갖는 새로운 시대의 불교청년이 되도록 한다. 사상 또한 모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불교의 새 시대문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다면 불교 내의 문란하고 잘못된 일체의 관습과 사상 등을 돌파하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도 없어진다. – 서평
聖嚴 著 | 眞目 譯 | 양장본 | 신국판 | 704면 | 값 15,000원 도서출판 하늘북

생활 속의 명상수행
빠알리대장경 앙굿따라니까야 앤 솔로지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출가수행자들과 재가신자들이 겪게 되는 일상의 관심사에 대한 물음을 풀어주는 책이다.
전재성역주 | 653쪽 | 신국판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쌍윳따니까야 엔솔로지 개정증보판

〈쌍윳따니까야〉에 실린 2,889개의 경 가운데 이시대에 유용한 180개의 경전을 골라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전재성 역주 | 신국판 | 665쪽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마음 깨침
불교텔레비전 무상사 큰스님 초청법회 법문집

이 책은 불교텔레비전에 속해있는 무상사(無相寺)에서 3년간 일반불자를 위해 초청한 큰스님들의 생동감 넘치는 법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큰스님들의 구도정신뿐 아니라, 종교가 지니는 가치, 종교생활을 바른 태도, 세상을 바르게 사는 이치 등이 묻어나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잇다.
20인의 큰스님이 들려주는 법문의 핵심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다. 오늘날 자신의 주인이 '나'임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수산 지음 | 신국판 | 433쪽 | 값 18,000원 휴먼앤북스

벽송사 벽송선원 禪會 교재
간화정로
간화선의 정수 精髓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 안거중인 월암 스님의 간화선 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간화선 지침서'로 간화선에 대한 명철한 이해와 곧곧시린 수행자의 삶이 선禪 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저자_ 월암月庵
신국판양장 • 512면 • 값 18,000원
도서출판 혁대북스 [책방] 051)244-1251

웃음보살 불등거사 〈22〉

구성 : 김흥인



뱀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다툰 이야기 [백유경(百喩經)]



어느 날 뱀 꼬리가 그 머리에게 말했다. "내가 앞서 가야겠다." 머리가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앞에서 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느냐?" 머리와 꼬리는 서로 싸웠다. 끝내 머리가 앞에서 가려하자, 꼬리는 나무를 감고 버텼다. 하는 수 없이 머리가 양보했다. 결국 꼬리가 앞서 가다가 불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떨어져 타 죽었다.
스승과 제자도 그와 같다. 제자들은, "스승은 나이가 많다고 해 늘 앞에 있지만, 제자인 우리들이 젊으므로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계율에 익숙치 못한 젊은이는 항상 계율을 범하다가 곧 서로 끌고 지옥에 들어간다.

옛 판화의 세계

역대 조사들이 법을 이어오다 제조유방(諸祖遺芳)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제조유방(諸祖遺芳)편, 불암사판 1672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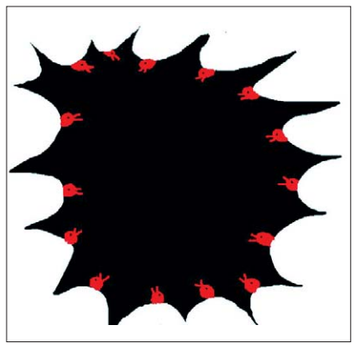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부처님 법이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해진 후 인도를 거쳐 중국에 들어와 여러 조사들에 의해 전수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소나무와 바위를 배경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세존인 석가여래가 쌍림에서 입멸하고 대법이 동방으로 흘러들어 오게 됐다. 한나라 명제는 꿈에 금인을 만났고, 여러 조사들이 뒤이어 세상에 나와 이도를 전수하고 호지했다. 마등(摩騰)은 경을 번역했고, 도징(圖澄)은 신이한 도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천태지의(天台智顗) 대사는 〈법화경〉을 크게 홍법했다. 보리달마(菩提達磨)는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했다. 현장(玄奘) 법사는 인도에서 경을 가져와 대자은사에서 논을 지었다. 소경사와 영지사에서는 계율을 전수 · 호지했다. 청량산의 현수(賢首) 스님은 〈화엄경〉을 널리 열었고, 백장(百丈) 선사는 처음 백장청규를 세웠다."

본문에 실린 조사들의 면면을 다시 살피면 마등은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등을 번역했다. 이것이 중국 역경의 시초였다. 도징은 한인(漢人)의 출가를 허락하도록 했고 북방민족을 불교문화로 교화하는 등 중국 초기불교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천태지의 선사는 천태종을 열어 〈법화경〉을 널리 전법했다. 달마 대사는 중국에 선종을 일으켜, 마음의 법을 전했다. 현장 법사는 경 · 율 · 론에 통달해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했다. 현수 스님은 당나라 사람으로 화엄종을 대성시켰고, 백장 선사는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제정해 교단조직이나 수도생활 규칙 등을 성문화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역대 조사들의 노력으로 불법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전해져 우리에게 광명의 빛이 두루 펼쳐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魂의 비명

우주의 심장을 찢고 찢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저, 새들은
세월 밖에서
주인도 없이 잘도 노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설법 · 최면
"설법 방법과 최면 시술 방법"을 함께 지도합니다

1. 교육목표
2008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 12시 8회 2개월 과정
2008년 11월 20일(목) 오후 3시 - 5시 8회 2개월 과정
※ 특징 : 맞춤식 개인지도 - 수시접수 합니다.
· 선착순 각 반 5명
· 동영상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2. 교육내용
▷ 설법 - 내용과 함께 방법 실기 훈련
▷ 최면 - 내용과 함께 방법 최면 시술
▷ 성격개조, 자신감 향상
▷ 대인 불안 공포증 해소
▷ 음성, 표정연기, 제스처, 마이크 사용법
▷ 사회,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 진행

3. 지도교수 : 김철회 원장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미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 전문가 자격증 취득
※ 대통령 공로표창(교육과 관련) 취득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과일의 왕 두리안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서류대행
전통사찰 교부금
문화재시설 지원금
템플스테이
등록:전통사찰 및 문화재
02)3411-3773 금강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법문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일시: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일요일 오전10시-오후1시까지
생활법문으로써
선문답이 아닙니다
신도 100인이상 절
041)541-0533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천년 수비주사 판 매
019-254-6320
다음카페 "대삼물산"

영어 배우면서 주지소임 사실분
필리핀 비구니스님 조계종
016-428-6665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합격 · 영업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신심있는 종무소 보살님 구합니다
(45세미만)
숙식가능
▷흥국선원
016-9224-2727
010-4939-9192

여사무원 구인
대한불교조계종 정토공원
•조건 : 기혼자, 숙식가능
컴퓨터 유능자 우대
•소재 : 경남 밀양시 삼량진
055)353-6768
011-854-4960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45~60세). 금호동
02)2234-3310
010-6260-3310

급 구
공양주 보살님
사무실 종무원
모십니다
(숙식제공.유경험자)
052)298-9911

행자스님, 공양주, 사무장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작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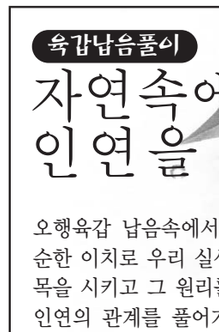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원가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크기(가로×세로 48cm 두께 5cm 이중액자)
만다라의 효험--------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된다. 점포에 걸어두면 가게영업이 활성화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걸어놓고 기도 가능
※ 전국영업할분 초빙 법사나 일반신도 차량소지자 환영
•조 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공급처 : 02)470-7329 016-261-2068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 죽비
소승 천일기도중 지리산 깊은숲에서 채취한 대나무로
산중토굴에서 한자루씩 깎았던 108 죽비를 이제 회향하려 합니다
● 마음의 채찍으로 평생 소장하실 인연있는 불자님께 올립니다.
뜻있는 불자님은소승의 원력불사에 정재의 밝은빛 되어 주시길 두손모읍니다.
● 108개 한정품으로-대죽비 (3종) 30만원 / 중죽비 (2종) 15만원 / 소죽비(1종) 5만원
지리산 백운동천 약수암 홍일 합장
문의전화 055)973-0552 / 010-3769-0552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야구,역도,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010-9554-5149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커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 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 타 암 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케이스(2만원)+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백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 - 1137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가평외곽 ● 위치 : 경기화성
● 법당 : 28평 ● 법당 : 30평(목조) ● 법당 및 요사 : 50평
● 요사 : 38평 ● 요사 : 140평 ● 부지 : 230평
● 부지 : 167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5억
● 가액 : 10억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사찰(중소도심)
● 대지 : 약 900평
● 기와법당 30평,산신각,독성각 요사채(30평)2동,노천입불 심야전기,앞마당, 잔디밭 조성완벽
● 남향 6m도접,텃밭 일부
● 가액 3억 5천만원
● 위치 : 부산 기장(바닷가 5분거리)
● 대지 총평수 55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6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주변 아파트 대단지 5천세대 사찰 뒤 산세수려
● 양도가 : 7억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500평. 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기타 : 산신각, 석불(12자), 연못 등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소재
● 부지 : 약 3,700평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 기타 : 극락전, 한증막 등
●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 특징 : 스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없어 양도 코자 함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 관리지역 약 1350평
(전원주택지로도 가능, 분할 및 평수 조절 가능)
● 전체부지 도로접함, 정남향
● 불사건축시 최저가 책임시공 및 성실업체 알선
● 양도가 : 15만원(평당)
010-9369-6899 (주인 직접)

지리산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대봉
● 부지 : 11,000평
● 대지 : 2,000평
● 건물 : 1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 조망, 정동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금대봉
● 부지 : 130,000평,대지 : 1,000평
● 논밭 : 3,000평
● 법당 및 요사채 : 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조망, 정남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011-9516-3326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 2층 35평
● 시설 최고급,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9414-56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위치 지하철 2분거리 (평지)
● 자연녹지 300평,건축 허가필
● 하천부지 약350평,법당40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2558-7131
011-574-3303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지전리 배산과 전망이 뛰어남
● 평수 : 1706평(전,답) 토목 공사 완료
● 가액 : 평당 8만원(주인직접 매매)
011-1751-0357
011-889-946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현대식 조립식 건물) 산신각,용왕각,요사채(75평)
● 가액 : 급매. 싸게드립니다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국도 4차선에서 300m
● 대지 279평, 답 117평 하천 64평(등기필)
● 건물 : 법당(목조기와) 20평 단청완료
● 요사채 33평, 식당 20평
● 인수 하실분 연락바랍
● 가액 : 4억 5천만원
011-878-4593
054)746-2080

서울 근교 사찰 (비구니스님에 한함)
● 남양주 오남지역 서울 30분
● 30만 신도시 사찰 불모지역
● 전철 버스정류장 교통편리
● 10만평 호수 언덕에 조용한 곳
● 국유지 1000평, 개인 1000평 별지 5000평,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별당 10평
● (가건물) 무속인 불가
● 양도 : 동참금 3,000만원
010-6600-13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8-427-2256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당(급)안내
공찰 주지 발령관계로 급매
● 위치 : 대구시 성당못역 10분거리
● 평수 : 2층건물중 2층(70평)
● 가액: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주차시설완비
017-501-2438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보증금 : 2000만원
010-4662-1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 조경수 900평, 법당, 요사채
● 산세좋고 물좋음
● 가액:1억 8천만원
055)672-03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문화재 있는 고 사찰터) 일죽 IC에서 안성방향 5분거리
● 대지 : 150평, 임법당 40평, 실사용 평수 500평, 산신각, 용궁 기도터 있음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767-4067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 2동 8통 1반 472번지 (영주제일고등학교맞은편 산)
● 평수 : 40평(방4, 주방1, 욕실)
● 가액 : 2300만원(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 1
● 가액: 보증금800만원 /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 등 8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도로변 전철 3분
● 3층 : 40평, 법당, 방 2칸, 주방, 욕실
4층:방大1칸,옥상 단독 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보증금 10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추풍령 부근
● 대지 : 200평
● 법당 : 2층 20평 1층 요사채 60평,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9597-1084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청량산도립공원,울진불령계곡 30분거리. 이전관계로 양도함
● 실평수:600평 등기 300평
● 한옥토굴 27평 방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1억5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0-8868-9407
054)673-6496

사 찰 안 내
● 경주 무열왕릉 옆 독채 200평
● 기와집, 본채, 요사채, 사랑채(법당)
● 아미타,지장,관음,삼존불 봉인 (소불관음)60불, 냉장고 세탁기
● 주방용품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월세 10달치 350만원 시설비 550만원
011-568-127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시설 특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3116-199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6-339-1628

포교당 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신구마 고속도로 IC에서 절에서 25분거리 경부고속도로에서 25분 언양에서 25분
● 법당 21평, 산신당, 칠성각, 요사채,컨테이너 박스1개
● 대지 321평 ● 가액 : 3억
055)353-3321
010-5189-200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법당 : 40평. 3층건물중 2층
● 가액 : 7천만원 (전세5천만원,시설비 2천만원)
● 중간세도 가능하며 현재 법회 진행중
053)759-0108
011-506-2282

사 찰 부 지
● 위치 : 충북 청주 청원지역 백두대간자락
● 총 736평 수행과 포교적합, 현불사중
● 사정상 급매 차량마당까지 진입 생활권 좋음
● 가액: 1억 1천만원
010-3177-3627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랍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1, 방 3개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내사후 절충
02)902-4070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위치 : 서울
● 부지 : 108평 ● 대지 : 90평
● 법당 : 70평 ● 법당 : 18평
● 요사 : 140평 ● 요사 : 20평
● 가액 : 1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504-6591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가격절충) 융자 1억5천만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2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순동 127-1(전주,군산,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옛날구옥: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016-9231-5355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신정 시장 옆. 2층 55평
● 보증금 500만원, 월65만원(가격절충)
● 시설비 5천만원
● 삼존불, 소불, 천불 그 외
010-9031-444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신정 시장 옆. 2층 4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25만원(가격절충)
● 시설비 1,900만원
● 삼존불 그 외 / 몸만 오시면 됨
010-3167-5225

토굴 최적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 특징 : 산을 기대어 앞에는 맑은 계곡물 흐름
● 평수 : 225평
● 가액 : 4500만원
033)434-1413/011-9773-44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50평,주차시설 완비
● 가액 : 6억5천만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 요지
● 신축 불사중 대지186평, 법당건물 목조 25평 건축중,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
018-554-6198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⑥

선근발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念處 正勤 如意 根力 覺道 空 無相 無作 六度 諸波羅密 神通 變化等 一切法門發相 是中應廣分別 故經云 制心一處無事不辨

염처(念處)로부터 각도(覺道)까지는 칠과도품(七果道品)의 모습이다. 이는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이며, 공(空) 무상(無常) 무작(無作) 등 삼해탈문(三解脫門)이다. 따라서 육도(六度)와 신통변화 등의 일체법문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육도는 육바라밀인데, 범어로 바라밀은 생사차안을 떠나 번뇌중류를 건너서 열반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신통변화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체방편의 법문 편에서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체법문이 개발되는 모습은 자세히 분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그 명칭만 표시했을 뿐이다.

경전에서는 "우주만법은 한량없이 많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주인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망상으로 요동하지 못하게 다스리는 처소에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였다.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불법은 허다한 일이 없고 단지 경전에서 말하는 이 두 구절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옛 큰 스님이 말하기를 "세간에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으나 단지 분별심이 있는 사람이 두려울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도 역시 이 같은 뜻일 것이다.

二分別眞僞者有二 一者辨邪僞禪發相 行者若發如上諸禪時 隨因所發之法 或身搖動 或時身重 如物鎭壓 或時身輕欲飛 或時如縛 或時透迤垂熟 或時煎寒 或時壯熱 或見種種諸異境界 或時其心闇蔽 或時起諸惡覺 或時念外散辭諸雜善事 或時歡喜躁動 或時憂愁悲思 或時惡觸 身毛驚竪 或時大樂昏醉 如是種種邪法與禪俱發 名爲邪僞

두 번째는 수행 중에 일어나는 선근발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이 진위를 밝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선근이 일어나는 모습이 삿되고 거짓인지 분별해야만 된다.

수행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했던 삼매가 일어날 때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을 따라서 몸이 어지럽게 요동치기도 하고, 마치 어떤 물질이 꽉 누른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날고 싶을 만큼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 속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축 늘어져서 잠이 오기도 한다.

혹은 몸을 지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갖가지 특이한 경계를 보기도 하고, 마음이 컴컴하게 덮여 막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모든 악한 분별심을 일으키기도 하며, 잡다한 선한 일을 밖으로 산란하게 치구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기뻐 들떠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하며, 근심과 걱정이 꽉 차서 슬픈 생각을 하기도 하며, 악한 촉감 때문에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하며, 마치 술에 취해서 미친 기운이 도는 것처럼 지나치게 즐겁기도 하다는 것이다.

올바른지 삿된 것인지 등 분간하지 못한다면
물고기 눈과 진주 혼동하는 잘못 범할수있어

이와 같은 갖가지 삿된 법이 선정삼매와 함께 일어나면 그것을 삿되고 거짓된 선근발상이라고 한다.

삼매 속에서 선근이 발동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지 삿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물고기 눈과 진주를 혼동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삿되고 거짓된 삼매의 모습을 논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삼매에서 일어나는 선근의 모습을 논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삿되고 거짓된 삼매에서 발현한 모습은 수행자가 지관을 닦는 가운데 발현했던 모습을 따라서 몸을 꽉 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모습이 발현되기도 하고, 몸이 축 늘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두운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몸이 가볍고 무겁고 잠이 오고 뜨겁고 차갑고 하는 등의 갖가지 특이한 경계는 모두 다 삿되고 거짓된 모습이지 진정한 삼매에서 발현한 선근의 모습은 아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껌껌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악한 분별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삿된 생각으로 사유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들뜬 마음으로 환희하기도 하며, 더러는 근심에 잠기기도 하는 등의 갖가지 삿된 법이 선정삼매와 동시에 일어나면 그것을 모두 사견이라고 말한다.

수행인이 이와 같은 갖가지 경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관수행을 열심히 할 때에 진실한 마음과 망상이 교차하며 내적인 마구니와 외적인 마구니가 무더기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식별해야만 한다.

此之邪定 若人愛著 卽與九十五種鬼神法相應 多好失心顚狂 或時諸鬼神等知人念著其法 卽加勢力 令發諸邪定 邪智 辯才 神通 惑動世人 凡愚見者 謂得道果 皆悉信伏 而其內心顚倒 專行鬼法惑亂世間 是人命終 永不値佛 還墮鬼神道中 若坐時多行惡法 卽墮地獄 行者修止觀時 若證如是等禪 有此諸邪僞相 當卽却之 云何却之 若知虛誑 正心不受不著 卽當謝滅 應用正觀破之 卽當滅矣

이와 같은 삿된 선정은 한 생각이라도 좋은 경계로 알고 애착을 갖는다면 바로 인도 구십오종 외도의 귀신법과 서로 일치하게 되어 사람들마다 진심을 잃고 전도망상에 빠지게 된다.

모든 귀신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삿된 법에 집착하는 것을 알면 즉시 세력을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애착을 갖게 한다. 따라서 모든 번뇌와 삿된 선정, 삿된 지혜, 삿된 변재, 삿된 신통 등의 경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삿된 경계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그를 따라서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미혹하고 타인까지 현혹하게 하는 것이다.

내적인 마음은 망상으로 전도되어 오로지 외도의 귀신법만 행하게 하는데, 이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신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이 남은 복이 있어서 인간세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짓을 많이 하여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구십오종 외도의 경전을 연구하면 된다. 수행자가 지관선정을 닦을 때 이와 같은 삿된 거짓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쳐야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리쳐야만 될 것인가. 이 모든 모습이 거짓임을 알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면 바로 사라져 버린다.

만일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관법을 수행해서 타파해야만 한다. 그러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1) 인연생기의 순차적 고찰[生滅流轉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연기성도경(緣起成道經)'과 '유식술기'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무명연행(無明緣行)

진여의 이치에 있어서 올바른 정지견(正知見)이 없고 어리석어 깜깜하게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무명이 의지처가 되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발동합니다.

② 행연식(行緣識)

신구의 삼업, 즉 생이 다시 의지처가 되어 무명업식인 제팔아뢰야식 가운데서 제법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종자를 발동시켜 활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기에서 제법이라 하는 것은 '오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③ 식연명색(識緣名色)

제팔아뢰야식이 그곳에 함장된 신 구 의 삼업의 종자로부터 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시 색심제온(色心諸蘊), 즉 오온이 생기합니다. '명'은 수상행식 사온입니다. 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그 명칭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이라고 합니다.

④ 명색연육입(名色緣六入)

명색을 의지하기 때문에 육근(六根), 즉 안근(眼根)으로부터 의근(意根)에 이르기까지 내육처(內六處)가 따로따로 서로의 간격을 달리하면서 일어납니다.

⑤ 육입연촉(六入緣觸)

육입(六入)이 의지처가 되어 인식 대상인 외육처(外六處), 즉 육경(六境)을 상대적으로 집취하여 그 중간에서 육식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때 외육처인 육경도 내육근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일어납니다.

⑥ 촉연수(觸緣受)

촉이라는 감각작용을 의지하여 삼수(三受), 즉 고락사(苦樂捨)를 일으킵니다. 즉 촉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이 자기의 감정에 순종하는 경계이면 즉시 탐애의 감정을 일으키고, 거역하는 경계이면 즉시 증오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수(受)는 대상경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⑦ 수연애(受緣愛)

대상의 경계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즉시 그 대상에 대해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즐거운 경계에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괴로움의 경계에서도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괴로운 경계를 피하려 하는 것은 괴로움을 떠나서 안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따라서 괴로움과 즐거움, 그 어떤 경계에서도 욕망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704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양동 주택가 요지
● 평수 : 단독 1층건물 27평 작은마당있음
● 아미타,관세음,지장보살,후불탱등 고급신조성시설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600만원
042)623-3309
011-457-3344

포교원 안내
● 부산 사상구 덕포지하철역 바로, 버스정류장 바로. 교통 최요지
● 평수 : 2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일절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가격절충
● 법사, 스님에게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557-21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원평1동 1027-14번지
● 3층건물 반지하까지
● 1층 요사채, 2층법당,3층법당
● 총평수 : 약 60평, 대지68평
● 가액 : 1억7천만원 (융자승계 : 1억 2천만원)
054)571-6973
011-547-697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청량산 맞은편 고찰터 위치 (주변 온천및 공원개발중)
● 평수 : 약20평 건물만 매매함(등기有)
● 가액 : 1천7백만원 시설비:상담후 결정
010-2535-341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80평)
● 법당(40평), 요사채(40평)
● 시설완벽하여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140평,텃밭28평,법당25평
● 요사채 30평,창고 큰거,작은거 2개 요사채 방4개,스님 방 따로 1개
● 건물 90평정도, 화장실 겸 샤워실 2개
● 법당, 마당에 주차가능 부엌 겸 큰거실1, 바깥 큰부엌 2개
● 가액 : 1억6천만원(절충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부탁
● 주지스님 건강상 급안내
010-9466-1191

포교원 안내
● 대구시 달서구죽전동4거리 (죽전지하철역 2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20평 (삼존불 모셔있음) 방2개, 주방겸 거실, 단독 남,녀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포교당(급)안내
● 대구시내에서 포교당하실분. 대로변
● 보증금 700만원 월 45만원
● 재래시장내
● 1500만원. 비품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886-3088

사찰매도 및 전세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33평
● 법당 20평(목조)
● 전세 1억7천만원
● 매매 상담후 절충
010-4741-34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관악산 낙성대입구 도보 5분거리
● 5층건물중 3층 약40평 법당, 방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000만원 월85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전세금으로(포교원건물인수)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부근
● 규모:대지110평 건평약150평 2층 2동 1층 상가2층 (법당약45평 시설비약3000만원) 2차선도로 코너건물 합7세대(임대 수익금 월120만원)
● 용도 : 포교원(사회복지시설적합)
● 가액 : 1억 5천 4백만원
010-9046-70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역 5분거리 대형재래시장입구
● 구조: 5층건물 2,3층 각30평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최저,답사후 결정
010-7742-01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상암
● 주 지 : 반야화(이영순)
● 주 소 : 서울 중랑구 면목7동 653-2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중현학·삼론종 실천적으로 재구성한 우두선에 매료

<21> 선사(禪師)문하의 거사들(2)

이덕유 양관 배도 진소유 최군 거사 등 우두선에 귀의
강남불교 반야학 '주역' '노자' '장자' 현학과 결합

이화(李華) 거사에 이어 우두선(牛頭禪)에 귀의한 수많은 거사 가운데 유명한 이는 이덕유(李德裕, 787~850) 거사이다. 그의 부친인 이길보(李吉甫, 758~814) 역시 불교에 귀의한 불자였다. 이길보 거사는 중서시랑(中書侍郎), 동평장사(同平章事) 등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불법금탕편>에 따르면 "화엄종의 청량징관(淸凉澄觀) 대사가 거사를 위해 <화엄정요(華嚴正要)> 1권을 찬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사는 말년에 앞에서 언급했던 현소(玄素) 선사 제자 법흠(法欽) 선사에게 귀의했다. 선사가 입적 후 선사의 비명(碑銘)을 지었다. 이러한 부친의 영향으로 이덕유 거사 역시 철저하게 우두선에 귀의했다.

이덕유 거사는 자(字)가 문요(文饒)로서 절서관찰사(折西觀察使), 서천절도사(西川節度使)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특히 당(唐) 무종(武宗)이 일으킨 회창법란(會昌法亂, 841~847)시기에 승상(丞相)을 지냈다. <구당서(舊唐書)> 권147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일찍이 조정에 국가에서 허락받지 않은 사도(私度)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주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태화(太和) 3년(829) 검교예부상서(檢校禮部尙書) 직위에 있으면서 20만전(錢)을 보시해 남경(南京)에 법융(法融) 선사의 새로운 탑을 건립했고, 류우석(劉禹錫) 거사에게 <탑기(塔記)> 찬술을 청하기도 했다.

류우석은 이 <탑기>에서 이덕유 거사를 평해 "이치를 숭상하고, 옛 것을 믿으며, 유가(儒家)와 현학(玄學)을 함께 닦았다. 승려들이 부처를 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명령해 금지시켰지만, 참다운 실상(實相)에는 깊게 통달했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거사의 불교에 대한 모순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사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주청해 실행했지만, 그것은 바로 "부처를 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금하려는 의도였다. 류우석의 "참다운 실상(實相)에 깊게 통달했다"는 평가는 거사가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유가와 현학을 함께 닦았다"는 평가는 거사가 심취하고 있던 불교의 경향을 짐작하게 한다.

"유가와 현학을 함께 닦은" 거사의 안목에 걸맞는 불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미 부친에게 불교적 훈습을 받고 성장한 거사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짐작된다. 또한 천태학과 화엄학 등에 능통한 부친이 만년에 우두선에 매료됐던 영향으로 거사에게는 어떤 종파보다도 우두선에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거사가 관직 때문에 상당 기간 강남에 머물렀던 것도 우두선에 관심을 가질 계기를 제공했다.

이쯤에서 강남불교 특징에 대해 잠시 고찰해보는 것도 전체 중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래 중국문화는 장안(지금의 西安)과 낙양(洛陽)의 관중(關中)을 중심으로 하는 황하(黃河) 문화와, 남경(南京) 중심의 장강(長江) 문화로 크게 나뉜다. 한대(漢代)와 위(魏)·서진(西晉)시기까지는 주로 관중지역이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서진의 실정으로 북방지역이 소수민족을 점령하면서 대다수 지식인들이 남방으로 남하해 남경을 도읍으로 동진(東晋)을 세웠다. 이를 '동진16국' 시대라고 한다. 후에 다시 남방과 북방이 여러 황조로 명멸하는 시기를 '남북조(南北朝)' 시대라고 한다.

남북으로 분리된 정치적 상황은 중국불교 전개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남방에서는 관중으로부터 형성된 학문적 전통, 즉 현학(玄學)을 그대로 유지했다. 북방으로부터 대승교학, 특히 반야학이 전래되면서 중국 전역에는 반야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남방은 그 전통에 따라 현학과 반야학을 결합시킨 상태로 출현시켰다. 본무종(本無宗), 심무종(心無宗), 즉색종(卽色宗) 등 철저히 현학과 결합된 이른바 '육가칠종(六家七宗)'의 반야학파가 모두 강남불교에서 출현했다. 현학은 바로 <주역(周易)>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삼현(三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었다. 때문에 현학은 필연적으로 강남불교의 반야학은 이 '삼현'과 결합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 있다. 중국 반야학파인 삼론종(三論宗)에 노장(老莊) 도가(道家)적 색채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唐代)에 이르러서 더욱 심화됐다. 특히 도사인 성현영(成玄英)은 삼론종 학설을 수용해 <장자>를 새롭게 해석하며 강남지역에 새롭게 '현학'을 부흥시켰다. 성현영을 '중현학(重玄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우두선이 중현학과 사상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도 이유다. 우두선 조사인 법융(法融) 선사의 <절관론(絶觀論)>은 대도(大道)를 '충허유적(充虛幽寂)'으로 파악해 '허공을 도의 근본[虛空爲道本]'으로 세웠다. 이는 바로 현학의 '무로서 근본을 삼음[以無爲本]'과 그대로 일치한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성품에 맡겨 소요함[任性逍遙]'을 제창하는 것으로 두 말할 나위 없이 장자의 사상이다.

우두선은 삼론종 길장(吉藏) 대사의 '무정성불(無情成佛)' 학설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장자의 '도는 없는 곳이 없다[道無所不遍]'는 사상을 결합해 '푸르고 푸른 대나무가 모두 법신이며, 활짝 핀 노란 꽃이 반야 아님이 없다[靑靑翠竹, 盡是法身, 郁郁黃花, 無非般若]'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후대에 이러한 사상은 조사선에서 상당히 중시됐다.

무엇 때문에 우두선에 이덕유 거사 등 당시 최고위 관료들이 매료됐을까? 특히 거사는 무종이 회창법란을 일으킬 때, 승상의 지위에 있으며 법란을 막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했던 인물이다. 어쩌면 거사의 안목에는 당시 교학불교의 상황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두선은 순수불교라기 보다 가장 현학과 결합된 불교, 즉 가장 중국화된 '선(禪)'이었기 때문에 유가와 현학을 함께 닦은 거사의 마음에 계합됐던 것은 아니었을까? '회창법란'이 결국 교학의 쇠퇴를 가져왔고, 선종이 중국천하를 석권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림 · 김홍인

우두선에 귀의한 고위 관료 가운데 하나는 양관(楊綰) 거사이다. 거사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청렴함으로 유명하다. 거사의 청렴함은 황제까지도 인정해 이부상서(吏部尙書), 중서령(中書令) 등의 고관을 지내며, 역대로 청렴함의 귀감으로 이름이 높다. <구당서(舊唐書)>에 실린 양관 거사 전기에 따르면, 거사의 성향을 '현리(玄理)를 극도로 숭상하고, 고요하여 욕심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거사는 상당히 총명했다. 학자들이 경서의 오의(奧義)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경서를 일람하고 그 도리를 깨우쳐 대중들에게 설명했고, 불교와 도교의 양교를 모두 숭상해 뛰어난 선사들과 도사들과 도를 논함을 즐겼다고 전한다. 양관 거사는 특히 우두선의 법흠 선사와 관계가 밀접했다. 거사는 선사를 '방외(方外)의 고사(高士)'라고 극찬했다.

양관 이외에 우두선에 귀의한 거사들로는 배도(裵度, 765~839)와 진소유(陳少游), 최군(崔群, 772~832) 등이 있다. 배도 거사는 어사중승(御史中丞), 문하시랑(門下侍郎)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만년에는 법흠 선사에게 귀의해 백거이(白居易), 류우석(劉禹錫) 등의 거사들과 함께 도를 논하며 어울렸다. 진소유 거사는 어려서 노장사상에 심취했으나, 도사 오균(吳筠)이 입궁해 불교를 비판하는 것을 목도하고 불교에 귀의한 묘한 인연을 갖고 있다. 최군 거사는 한림학사(翰林學士), 중서시랑(中書侍郎)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법흠 선사와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의 사법제자인 여회(如會) 선사에게 귀의했다. 아마도 여회 선사가 마조 선사에게 법을 받기 전에 법흠 선사에게 와서 법을 물었던 시기에 인연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사분등록(居士分燈錄)>에 실린 최군 거사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법흠 선사에게 "출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사는 "출가는 바로 대장부가 할 일인데, 어찌 장상(將相), 장수와 재상)이 능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통을 쳤고, 거사는 언하에 깨달았다고 전한다.

우두선에 귀의한 이화, 이덕유, 양관, 배도, 진소유, 최군 등의 거사들을 살펴봤다. 이들 사대부(士大夫) 거사들의 특징은 모두 기본적으로 유학(儒學)을 바탕으로, 대부분 현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두선은 사상적으로 중현학과 삼론종을 결합시켜 그를 실천적으로 재구성한 선학(禪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사대부 거사들을 깊이 매료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러한 사대부 거사들의 귀의는 강남을 중심으로 우두선이 크게 번창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후 선종이 중국 천하에 널리 퍼지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업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업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원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사설사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업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조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리사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사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사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사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업원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사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육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사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사사	충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사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서 울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부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안 산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원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울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업	서 울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사사	천 안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사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영업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자영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 사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사 사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자영업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 사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 업	경기도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마음의 스위치를 누를 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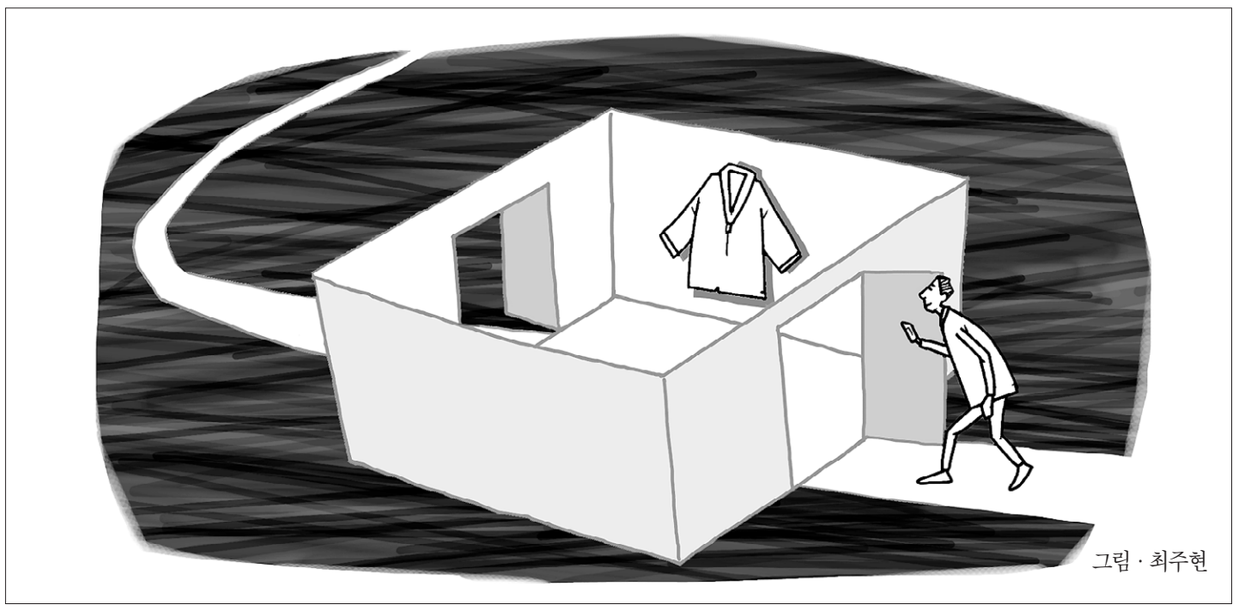
계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지?

질문: 스님, 저의 집사람이 제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절에 다니더니 사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제가 절에 다니지 않으면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늙어서 퇴직하고 나면 24시간 함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는 마음공부가 너무 좋아서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할 텐데 저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정신적인 교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그러면서 퇴직하기 전에 절에도 다니고 공부해서 수계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절에는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몇 번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받으려면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 건지요?

답변: 수계에 관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생동력 있게, 또 걸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진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육통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통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하나만이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서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몸뚱이를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려면 내 마음 자체를 움죽거려야 이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그대로 잘하고 나간다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다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털구멍을 통해서 바로 나가서 조절하고 안에서 모자라는 건 작용을 해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줍니다. 즉 마음을 따라서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의식은 보살로 화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하시면 의식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 육신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르니까, 마음공부들 열심히 해서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들고 난다면 그것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생명의 의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이게 전부 수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대로 이 몸속에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을 뿐입니다. 오계를 받는 데에 이것을 말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게 돼 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야겠다 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 줍니다. 또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형제들 간에도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남의 탓을 하면 무엇하랴.' 하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로 지혜가 부풀어져서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편안하게 이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는 오계를 설하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전체 다섯 가지가 다 '마라'로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샛문을 틔워 놓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분수를 알고 마셔라.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거를 훔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생을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 한다면,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에 맡기고 하면 그대로 두 마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살아난 사람의 마음이나 죽는 고기의 마음이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고기는 고기의 허물을 벗고, 모습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쪽에는 그 고기의 살을 약으로 먹으니 병이 나아서 좋고,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스스로 남을 위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남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벗어야지 만약에 말이나 이론으로 벗으려면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만날 말씀해 드리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입을 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열심히 하셔야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내 형상이고 부처님의 법도 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거를 둘 아니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기를 방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돼야 전력이 들어오죠, 가설이 돼야. 그러니까 가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줄과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듯이 말입니다.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즉 우리들의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단 얘깁니다. 전기 가설은 다 돼 있는데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으니 이게 불이 생전 가야 들어옵니까? 그걸 누를 줄을 모르고 누르는 거를 해 놓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를 줄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을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조상을 이끌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옷을 벗고 다시 나올 때에 차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공부는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천체 물리가 터져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반야줄을 쥐고 가고 있습니다. 우주와 직결돼 있는 줄을 반야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야줄을 쥐고 갈 줄 알면 요다음에 죽어서도 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현보살들이 다 모셔갈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싶어

질문: 며칠 전에 선원에서 개최한 법형제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었지만 5층 법당에서부터 눈을 가리고 눈 뜬 이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갈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발목이 삐지나 않을까 넘어져서 나뒹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절에 다닌다 하면서도 사업이 잘 풀리기만을 바랐고 내 가정과 친지가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근본을 믿지 못해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이는 눈과 생각으로서 이리저리 계산을 하면서 살아온 저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생에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물질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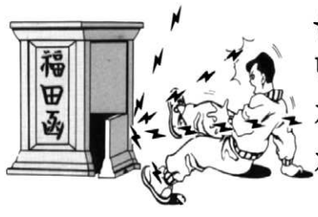
답변: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공중에서 탐지하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114회 3000배 용맹정진
강력한 대긍정의 밝은 기운! 찬란한 부처님 가피! 소원성취 저절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8년 11월 8일(토) 저녁 9시 ~
2008년 11월 9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한 세상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해야!

☞25면에서 계속

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름도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지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 큰 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떼고서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다 듣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과 이 세상…, 아니 보물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르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 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치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그렇게 쪼달리고 방황하고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 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느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세상에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못 보시겔랑 현실을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빚을 얻어서 어떠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익이 남아서 들어올 것만 알았지 빚져서 이자와 더불어 같이 나가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것째 그만 잃어버려서 탕진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분수를 알맞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두들겨 가면서 걷는다면 아마 천둥 벼락이 내려도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보통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그러지만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세균, 영계, 윤회, 생사, 유령, 업보에 끄달리면서 살아나가니까 그 고달픔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 하나만 몰락 벗어난다면 그 외의 것은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空)해서, 벗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어서 속는 것이고 그게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누가 모든 걸 망하게 했고 누가 흥하게 했고 누가 웃게 했고 누가 울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공덕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진심으로 있든 없든 내 성의껏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현실의 공부를 할 때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잘 여미고 다시 한 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사회를 포기했습니다

질문: 저는 지금의 이 사회를 포기했습니다. 눈만 뜨고 나면 회사들이 부도가 나더니 이제는 나라가 부도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주위의 고통을 볼 때마다 마음을 냈지만 제가 깨닫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헤어날 기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나요? 어쩌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깨달음의 길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이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 생각을 내도 지혜롭고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가고 말입니다.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와 나라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건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아,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치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는 '자'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 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꿔 보셨지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깼다.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報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대우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대우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daewoosuperenertec.com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옷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문화는 인간의 심성을 기르는 토양이고, 삶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는 꽃이며 화원이기도 하다. 만약 삶 속에 문화예술이 없다면 메마른 정서에 황무지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며 사람을 아름답게 일으켜 주는 기둥이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솔직히 일각에서는 첫 장관 임명 초부터 일찌감치 문화 분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순수문화계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국가의 정책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도 실용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내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겉모습만 화려한 내실없는 정책의 불신으로 실체가 드러났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빈곤계층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미흡함도 있다. 요즘 사회만큼 복잡하고 변화에 빠른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예술 정책의 시스템 문제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말해 신뢰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문화정책의 수혜는 또 다른 일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어 개별 단체의 이기주의만 더욱 확장된 우울한 시대에 직면해버렸다.

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작금의 우리 행정부나 정치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몹시도 짜증이 난다. 도대체 정책이란 게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웃지못할 일들로 자포자기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온갖 폼만 잡았지 문화의 혈류가 민심의 구석까지 닿는 일은 애초부터 기대하지도 못했다.

급기야 우리의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작태에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10월 24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문화계를 대표한다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진기자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찍지마 씨O, 성질이 뻗쳐 정말…"이라고 마치 시중잡배처럼 행동했다. '막말' 논란을 빚은 장관은 여론의 질타에 못이겨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마치 폭력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실수로 덮어둘 수 있는 일일까. 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들었다.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취재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이로 인해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관이 그것도 사석이 아닌 관련 의원들이 즐비한 국정감사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욕설한 것은 전후가 어찌되었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다. 사과를 위해 야당과 국회 기자실까지 찾았지만 사건은 점차 확장되지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식이 너무 예리하게 곤두 서 있으면 남의 단점이 귀와 눈에 잘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모가나서 남과 다투기 일쑤다. 관용의 마음이 엷어진다. 상대방의 말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이 삶에서 큰 구실을 한다. 그런 사람은 속이 넓고 부드러워서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곧 인(仁)이요 덕(德)이 아닐까.

<잡보장경>에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라는 글이 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린다면 모두들 아름다운 미소와 감사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세상만사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 한낮 보잘 것 없다. 오로지 과정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래도 문화는 당대 역사의 물결 속에서 탄생하는 보석 같은 시간의 결정체이다. 문화계 종사자들이 갖춰야 될 심성의 과제이다.

"감사하는 마음 모든 악연 녹이는 생명에너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다. 감사하고 긍정하기 보다는 불평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다. 젊은 비구 학인스님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108가지를 썼다. 그 중 일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덕에 감사드린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㊽ 나에게 감사합니다

정진하는 나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 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로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늘 솔직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단점을 듣고 화내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배고파도 잘 견디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반찬이 없어도 잘 먹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헛되이 돈을 쓰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늘 배우려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유머감각이 있어서 남을 웃겨주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나에게 감사합니다

공심공체인 나

남과 다투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뒤에서 남을 흉보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려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타인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해 주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상처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말을 들어도 우쭐해지지 않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다듬어주는 훌륭한 도반들이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없는 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세속의 유혹을 잘 참아주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법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신도님들의 큰 은혜를 받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보다 불교를 먼저 생각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수행자로서 계속 살아갈 나에게 감사합니다
수행자로서 위의에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체투지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출가자인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라고 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악연을 녹일 수 있는 생명에너지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지금 마음의 입력을 바꾸어 아름다운 자성의 빛을 찾아보면 어떨까.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승려노후복지가 중요한 까닭

조계종이 11월 6일부터 열리는 정기중앙종회에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28일 실천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승려노후복지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노후복지에 대한 종단 내 스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에서 노후복지 시설의 운영과 장소, 수발문제 등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 승려노후복지 제도의 시행이 종단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승려보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할 승려노후복지법의 초점도 노후의 수행과 주거, 의료 혜택 등에 맞춰져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나 노후연금보장 등 제도적인 복지 수혜를 위한 종단적 지원의 길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재정의 충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충당은 법의 효력 발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단적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출가자들에게도 노년복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출가자라는 신분적 특성이 출가자를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복지는 물론 종단 내에서도 특별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수행과 전법의 원력이 올곧게 지켜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 바로 노후복지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승려노인복지법이 종법으로 제정되고 재정과 각종 시설 충당 등 관련 과제들이 걸림돌 없이 해결되길 바란다.

서불대 사태 지욱 스님 용단 절실

학생 35명의 무더기 제적으로 치달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측 선처만을 기다리다 제적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던 학생들이 학교 측의 강경한 태도에 못 이겨 강의실을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제적생들은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학교 측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 문을 열어 달라"며 외치는 학생들이 택한 시위 방법은 퍼포먼스(만다라 테라피)와 오체투지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재단이사장 지욱 스님은 "역행보살들이 서불대를 널리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가자다운 해석인지는 몰라도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스님은 10월 29일 초하루 법회에서 "제자를 제적으로 내 몰은 교수들이 살신성인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그간의 경과는 차치하고라도 교수에게 살신성인의 자세를 요구한 지욱 스님의 발언은 학생 35명이 학교 측과 일부 교수의 갈등으로 희생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용서는 가진 자의 여유요, 화해는 갈등의 회향이다. <육조단경>에는 "참 수도인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若眞修道人 不見世間過)"는 말씀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불대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진정 '큰 것'을 위해 현재를 지혜롭게 풀어 '교육불사'에 차질이 없길 주문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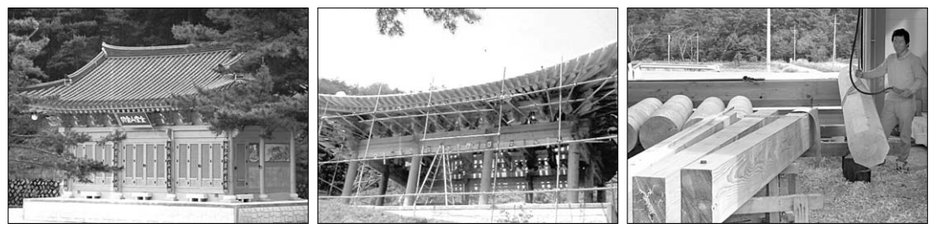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태용 문화재 고 건축

최저예산으로 전통을 거르지 않고 책임시공, 관리,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木手 - 사람들은 절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 木壽 - 전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에 목숨을 불어 넣는 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집을 짓는 전 木壽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일 : 대웅전(3포, 5포, 7포등), 요사채, 범종각, 삼성각 등
작은 일이라도 제게 주어진다면 정성을 다해 내집 처럼 짓겠습니다.

도 편 수 : 이 형 찬 합장 H · P 011-9515-5587 / 공장 055)852-5537 (팩스겸용)
경남 사천시 서포면 궁항리 8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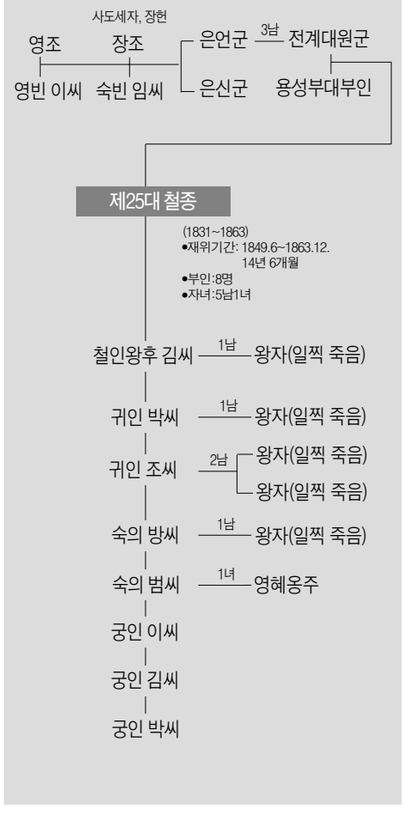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농사짓다 등극한 철종 안동 김씨 허수아비로 전락

58 25대 철종 – 예릉

철종 1831~1863(33세)
재위 14년 6개월
1849.6(19세)~1863.12(33세)
철인왕후 김씨 1837~1878(42세)

제25대 철종 가계도



예릉(睿陵)

제25대 철종(哲宗, 이변, 속명 이원범)과 비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金氏)의 쌍릉이다. 서삼릉에 세 번째로 조성된 능이다. 다음 대인 고종과 순종이 황제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예릉은 조선조 왕릉 형식의 마지막 능이다.

예릉의 상설제도를 보면 왕과 왕비릉의 봉분은 난간석으로 연결돼 있고, 병풍석은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장명등의 위치가 혼유석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왕릉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37-1 서삼릉 경역 내 소재. 사적 제 200호.

"사또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오색 깃발 휘날리며 그를 모시러 온 영의정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연신 사또님 살려달라고 울먹인다. 만인지상(萬人之上) 일인지하(一人之下)라는 영의정을 본 일이 없는 떠꺼머리 시골 총각 원범에게는 고을 사또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덕완군(德完君) 나으리. 어서 일어나시오소서."

한순간에 호칭이 달라졌다. 아직 즉위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니까 '나으리'다. 농사꾼 원범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덕완군이라는 군호(君號)가 대왕대비의 명에 의해 내려졌던 것이다. 당황한 영의정 정원용이 예를 갖추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하여 열아홉 살 무지렁이 총각 원범이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다.

1835년. 24대 헌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승하하자 왕실과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왕위를 계승할 적자(嫡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왕실의 어른이자 종실의 제일 웃어른인 대왕대비가 팔을 걷고 나섰다.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는 김조신의 딸로서 조선조 말 세도정치의 아성을 구축한 안동 김씨였다.

순조비 순원왕후를 축으로 하는 안동 김씨와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익종)비 신정왕후를 축으로 하는 풍양 조씨는 어느 쪽에서 먼저 왕을 내느냐 하는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이해(利害)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냐 몰락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신하라는 이름으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쥔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는 때로는 협조하는 동반자로, 때로는 각을 세워 대립하는 라이벌로서 조정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다.

종친부를 꺼내놓고 찾아보니 정조대왕의 아우 은언군(恩彦君)의 손자 원범이 떠올랐다. 안동 김씨의 좌장격인 김문근과 대왕대비는 지체 없이 원범을 택했다. 직계혈통에 마땅한 사람도 없었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성군이 될 여지가 있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원범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적임자였다. 또한 풍양 조씨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촌각을 지체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대왕대비의 명이 떨어졌다. 종묘사직을 이어갈 왕으로 원범이를 택한다는 교지였다. 이게 바로 택군(擇君)이다. 임금이 신하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군왕을 선택하는 기가 막힌 처사다. 비록 대왕대비의 명을 거치는 요식행위를 거쳤지만 신하가 임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권위를 기반으로 군림해야 하는 왕실로서는, 몰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다.

안동김씨에 의해 간택(?)된 원범은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대왕의 아우 은언군의 손자로서 할아버지 은언군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형당하고 아버지 전계군은 원경, 경응, 원범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형 이원경은 민진용의 모반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다. 이에 놀란 아버지 전계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한양을 빠져나와 강화도에 숨어들었다.

글을 읽고 깨우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원범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며 농사꾼 노릇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잃고 작은형마저 죽자 원범은 천애고아가 됐다. 외톨이가 된 원범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여인이 있었으니 복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영순이었다.

떠꺼머리 총각 원범과 섬 처녀 영순의 사랑은 길지 못했다. 1850년 6월 5일, 영의정 정원용이 이끄는 제왕봉영 일행이 갑곶나루를 건너 강화도에 들이닥쳤다. 깃발을 앞세우고 진해루(동문)를 통과하여 위엄 있게 들어오는 일행을 발견한 원범은 자기를 잡으러온 것으로 착각하고 산으로 숨어버렸다. 난감해진 것은 한양에서 강화까지 온 봉영 일행이었다. 이틀 밤을 강화유수 관아에서 묵은 일행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더욱 몸둘 바 몰라 하는 것은 강화유수 정기세였다. 한양에서 봉영 일행을 이끌고 강화까지 행차한 정원용은 관직으로는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하는 영의정이었고 사적으로는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한양에서 내려온 일행이 불편하지 않게 보살피고 임금을 모셔가는 일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출세 길도 열릴 텐데, 원범이가 산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영순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강화유수는 영순이를 설득하고 영순이는 원범이를 타이르는 형국이 됐다. 원범이를 모셔갈 봉영일행이 강화도에 처음 당도했을 때 영순이 역시 원범이를 잡아갈 무리라 생각하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며 깊은 산 속 동굴에 원범이를 밀어 넣었다.

원범이에게 줄 밥을 삼베 보자기에 싸들고 산을 오르던 영순이가 뒤돌아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강화유수 관아에서 갑곶 나루까지 줄지어 서 있는 일행이 예사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350여명이나 되는 행렬과 기품 있는 가마가 준비된 것으로 보아 강화유수의 말처럼 원범이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유수의 말처럼 '원범이가 왕노릇 하러 한양으로 가면 나는?'이라는 의문에 답이 없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 착한 원범이의 각시가 되어 아들딸 낳고 알콩달콩 살겠다는 순진한 섬 처녀의 꿈은 유효한 것일까?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통한 답이 없었다. 그러나 철종의 운명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진행될 뿐이다.

대왕대비의 리모콘에 의해 얼떨결에 왕위에 오른 철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3년간 수습기간(수렴청정)을 마치고 막상 친정을 시작했지만 왕으로서의 역량도, 의지도, 충성스런 주변 참모도 없었다. 정신이 들어 나름대로 백성을 위하고 선정을 펴려고 애썼으나 안동 김씨의 고용 사장이란 굴레를 벗을 수 없었다. 은밀한 조언자 역할을 해줄 왕비조차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이었다.

그래, 왕노릇 포기하자. 마음을 비우니 그의 세상에는 쾌락 천국이 대령된다. 대궐에 있는 여자는 모두 왕의 여자다. 여색을 마구 탐한들 누가 딴지를 걸까. 오히려 히히덕거리며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득실거린다. 정비 철인왕후 외에 공식 후궁을 7명이나 두었다. 기록에 없는 하룻밤 풋사랑의 여인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여색에 빠져 요통에 걸려 누웠다가 33세로 승하했다. 슬하에 5남1녀를 두었으나 아들은 모두 '○○군'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요절했다. 여기에도 어찌 음모가 없었으랴. 단 하나 살아남은 딸, 영혜옹주는 갑신정변의 주역 개화파 박영효에게 시집갔으나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었다.

원범이를 한양으로 떠나보낸 영순이는 매일같이 해질녘이면 갑곶나루터에 나가 원범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원범이는 돌아오지 않고 무심한 갈매기만 끼륵끼륵 울어댈 때 영순이도 같이 울었다. 그후 영순이는 어떻게 살다죽었는지 모른다. 고인이 된 신상옥 감독은 그녀에 대한 진혼곡 삼아, 영화에서는 철종이 그녀를 궁궐로 불러 재회하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강화도에 있는 광성보.

왕으로서의 역량, 의지, 충성스런 참모도 없었던 비운의 왕
성군 자질 보다 권세 위해 배경 없는 강화도령 왕으로 '택군'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